



(사)미래희망기구 UN 전문가 교육과정 10기

The 10th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 Summer in Geneva

# 목 차

<b>01. 인사말</b> .....	<b>1</b>
유엔협회세계연맹 사무총장 .....	1
(사)미래희망기구 이사장 .....	2
<b>02. 단체 소개</b> .....	<b>3</b>
유엔협회세계연맹 .....	3
(사)미래희망기구 .....	4
<b>03. 프로그램 소개</b> .....	<b>7</b>
프로그램 안내.....	8
교육 커리큘럼 .....	10
UN 본부 강연자 소개 .....	12
프로그램 후원사 .....	16
<b>04. 주제별 교육 보고</b> .....	<b>17</b>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18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	42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 .....	54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	59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63
Universal Periodic Review .....	81
World Trade Organization .....	95

06. 대학 탐방.....	138
University of Oxford .....	139
University of Cambridge .....	156
07. 참가 후기.....	193
전체 참가 후기 .....	194
대학생 가디언 참가 후기.....	201
08. 참고자료 - 팀 발표 영상 .....	203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

*Summer In Geneva 2017*

#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 10기 참가자 명단



강태은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Tae-Eun Kang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권유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Yoo Jin Kwon  
Jeonnam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김승준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Seung Jun Kim  
Dan-Kook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김에스더영미  
Lycee International Xavier  
Esther Youngmi Kim  
Lycee International Xavier



김지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Jiwon Kim  
Suwon Academy of World  
Languages



박현제  
안양외국어고등학교  
Hyunjai Park  
Anya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서란  
Branksome Hall Asia  
Ran Seo  
Branksome Hall Asia



신승민  
과천외국어고등학교  
Seungmin Shin  
Gwache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신정민  
범계중학교  
Jeongmin Shin  
Bumgye Middle School



이규형  
웰틴크리스천국제스쿨  
Guhyeng Lee  
Welltain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이성준  
대구외국어고등학교  
Seongjun Lee  
Daegu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전혜진  
칭다오청운한국학교  
Hyejin Chun  
Qingdao Chungwoon Korean  
School



정예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Yaein Jung  
Myung 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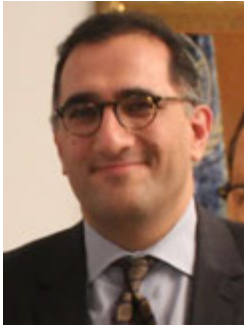
주민정  
한국국제학교  
Min Jeong Joo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홍준영  
등대글로벌스쿨  
Jun Young Hong  
Lighthouse International  
School

## 01. 인사말

### 유엔협회세계연맹 사무총장 **Bonian Golmohammadi**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I welcome you to WFUNA's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 Program. This is an exclusive opportunity for youth and I would like to thank Hope to the Future Association for their commitment to collaborate with WFUNA on this important initiative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WFUNA is a global non-profit organization working for a stronger United Nations. Established in 1946, we represent a membership of over 100 UN Associations and their thousands of members.

We promote the effective engagement of youth in the UN's work through week-long training courses in New York and Geneva. These courses are designed for youth from a small group of educational partners who are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and engaging with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During the five-day program, you will receive hands-on information, practical knowledge and guidance on how to constructively and effectively engage with the UN system. We will empower you to exchange and network with UN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to learn about the most pressing issues at the United Nations. The training will cover a wide range of topics under the three pillars of the UN: peace and secur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Located in the UN Headquarters in New York and Geneva, WFUNA works with its large network of partners from the UN, NGOs, the diplomatic community and academia to offer students a rare and intimate view into the workings of the UN.

I am convinced that this experience will be most valuable and fruitful for your development as global citizens and that you will greatly benefit from the program content provided to you. I wish you all the best of luck for the training as well as for your future endeavors.

*Bonian Golmohammadi*



## (사)미래희망기구 이사장 정진환



사단법인 미래희망기구 이사장 정진환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세계적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의 참가 학생들 환영합니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향상되고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을 필두로 UN에서의 입지와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청소년들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인권, 세계평화와 안보 등 세계적인 이슈와 지속가능개발목표 17대 목표 등 유엔 의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육에 참가한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8박 10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되는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는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더불어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한 시야의 확대를 도모합니다.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는 ILO, UNEP, UNDP, UN Women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기구와 국제 NGO 인사들의 강연을 통해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학생들은 범 세계적인 이슈들과 UN의 의제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 함양을 함께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는 여러분이 글로벌리더로서의 자질을 형성하고 의사소통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가 참가자 여러분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자신의 꿈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미래희망기구 이사장 정진환

*Jin Hoan Choung*

## 02. 단체 소개

### 유엔협회세계연맹

####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WFUNA



유엔협회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Associations; WFUNA)은 유엔 창설 이듬해인 1946년 8월 발족한 비정부간 국제기구로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100여개가 넘는 유엔협회와 수 천 명의 회원국을 대표합니다. WFUNA는 시민사회 간의 원활한 활동과 소통을 위한 중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엔을 지지하고 유엔의 활동에 적극 관여하는 국제 비영리기구입니다.

유엔관련 단체들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단체이며,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대한민국 서울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 임원진 소개



##### 박수길

- 현) WFUNA 회장
- 현) 유엔한국협회 명예회장
-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수석대표
- 전) 중동지역 대통령 특사



##### Bonian Golmohammadi

- 현) WFUNA 사무총장
- 전) 스웨덴 UNA(United Nations Association) 사무총장
- 전) UNA 유럽 네트워크 회장



## (사)미래희망기구 (Hope to the Future Association)



(사)미래희망기구는 다각적 국제이해 교육과 지속 가능한 후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청소년들이 삶의 희망을 찾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외교부 소관 (120-82-161) 사단법인이며, 2014년 6월 UN DPI NGO (NGO

Assoc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협력지위를 획득했습니다.

### 1) 나눔사업부

다양한 후원 및 봉사활동을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빈곤국가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 2) 교육사업부

(사)미래희망기구는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과 함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p>Global Leadership Excellence Challenge (GLEC)</p>	<p>국제적 이슈를 주제로 진행되는 영어 논술과 말하기 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부터 매년 1회 진행. 예선과 본선 진행</li> <li>• 영어 논술과 말하기 부문으로 진행</li> <li>• 후원: 유엔협회세계연맹, 유엔아카데미입력트, 경희대학교</li> <li>• 협찬: 한국고원단체총연합회,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등</li> </ul>
<p>국내 영어 에세이 대회 지원</p>	<p>학교 별 진행 (연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연간 총 9개교, 총 1,429명 참가</li> <li>•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백영 고등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충남삼성고등학교 등</li> </ul>
<p>UN 도서 한국어 번역 및 출판</p>	<p>UN 공식 출판물의 한국어 번역 및 국내 출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명: Action for Disarmament: 10 Things You Can Do!</li> <li>• 출판계약 체결일: 2014년 8월 19일</li> <li>• 계약번호: PB/CON2014/03</li> <li>• 2016년 3월 번역본 인쇄 및 국내 출판 완료</li> </ul>
<p>Training Programs at the UN: Korea</p>	<p>미국 뉴욕 및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UN 전문가 교육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협회세계연맹과 정식 MOU 체결에 따라 실시되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UN 교육 프로그램</li> <li>• 연 2회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내) 8박 10일 간 실시</li> <li>• 강사진: 현재 UN 및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고위급 전문가</li> <li>• 강의 내용: UN시스템, 인권, 글로벌거버넌스, 환경, 인권, 난민, 세계평화 등 국제적 이슈 및 UN과 국제기구 커리어 개발 특강 등</li> </ul>
<p>한중일 대학생 3국 협력 포럼</p>	<p>한국, 중국, 일본 3국 대학생 대상의 학술 포럼 (Trilateral Cooperation Youth Foru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1회 (2016년도 경우 8월 12일 - 15일) 3박 4일 간 실시</li> <li>• 참가대상: 한중일 3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li> <li>• 참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최/주관: (사)미래희망기구, (재)니어재단</li> <li>✓ 후원/협찬: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주한중국문화원, 유엔협회세계연맹, UNAI,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경기도, 경희대학교,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대학</li> </ul> </li> <li>• 인원: 90명 (한중일 각국 30명씩 참여), 고등학생 참가자 100명</li> <li>• 포럼 구성: 역사, 안보, 협력, 경제 등 3국 현안에 관한 다양한 주제 관련 전문가 강연 및 팀 토론과 발표</li> </ul>
<p>Youth Camp : Korea (YP)</p>	<p>국내에서 실시되는 UN 전문 교육 청소년 영어 캠프 (YP: Kor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초등5학년 - 고등3학년</li> <li>• 강사진: 현재 UN 및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li> <li>• UN 시스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UN관련 이슈에 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팀 토론 및 발표, 모의유엔 등 다양한 커리큘럼</li> </ul>

<p>Yale MUN</p>	<p>예일대학교 모의유엔대회 (Yale Model UN) 미래희망기구 대표단 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 40개국 1,800명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국제모의유엔대회</li> <li>• 매년 1월 중순, 3박 4일 진행 (2018년 1월 18일~21일 진행 예정)</li> <li>• 주최: 예일대학교 모의유엔대회 사무국   파트너: 미래희망기구</li> <li>• 대회진행: 미국 예일대학교</li> <li>• 참가대상: 중3-고3 재학생 또는 만 15세-18세 청소년</li> <li>• 참가혜택: 예일대학교 Certificate 및 상장 등</li> </ul>
<p>WIMUN</p>	<p>유엔협회세계연맹 국제모의유엔대회 (WFUNA International Model UN) 미래희망기구 대표단 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 60개국 1,000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국제모의 유엔대회</li> <li>• 대회 진행: 미국 뉴욕 UN 본부 총회장(General Assembly Hall)</li> <li>• 유엔 공보국(UN DPI)이 직접 제작한 UN4MUN의 의사규칙 기반</li> <li>• 현재 유엔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강의 및 브리핑</li> <li>• 참가자가 직접 유엔회원국의 대사가 되어 유엔 총회 및 유엔안보리 회의 등을 직접 경험 후 결의안을 작성하여 채택</li> </ul>
<p>KOICA와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p>	<p>KOICA 전문가사와 함께 전국 학교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MOU를 맺고 전국 '학교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을 진행</li> <li>• 토론, 토의, 발표 등 학습자 중심 활동 수업 진행</li> <li>• 2017년 진행 학교: 박문여자고등학교, 성문고등학교 등</li> </ul>
<p>World Hope Project</p>	<p>그림 공동제작, 캠페인 진행 등을 통한 협동심 제고 및 리더십 함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청소년들이 미래희망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li> <li>•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협동심 제고와 리더십 향상을 달성</li> <li>• 작품주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li> <li>• 전시: 2016년 5월 30일~6월 1일 제 66차 UN DPI/NGO Conference의 미래희망기구 전시부스 내</li> <li>• 설치장소: 탄자니아 마라와 초등학교, 짐바브웨 레인함 퓨처 센터 등 아프리카 빈민국가 내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li> </ul>

# 03.

## ABOUT THE PROGRAM

###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안내 8
- 교육 커리큘럼 10
- UN본부 강연기관 소개 11
- 프로그램 후원사 14

## 1) 프로그램 안내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 는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와 (사)미래희망기구가 함께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유엔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으로 만 15세 ~ 만 18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맞춤형 된 유엔의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내에서 직접 교육이 진행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 관계자 분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국제적 이슈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관련 된 강의를 듣는 고급 맞춤 커리큘럼 입니다.



### 참가신청 자격

- ◆ 현재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 만 15세~만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 ◆ 국제이슈 및 국제기구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깊은 자
- ◆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 없는 자
- ◆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선발 과정

- 1차: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목적에 대해 영어 에세이 작성 (500-700자)
- 2차: 대면 인터뷰

## 참여인원

- 총 15명

## 연수 장소 및 기간

- 장소: 스위스 제네바 UN본부 (Palais des Nations, 1211 Genève, Switzerland)
- 기간: 2017년 8월 4일 ~ 8월 13일 (8박 10일)

## 참가자 특전 및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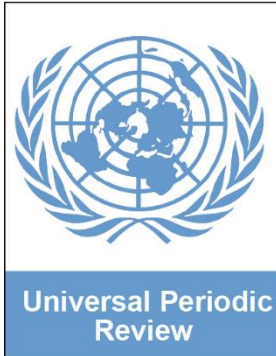
- WFUNA에서 발급하는 Certificate 수여 및 미래희망기구 수료증 수여
- WFUNA 사무총장의 대학 추천서(Reference Letter) 수여
- 교육 이수자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국제기구 인턴십 신청자격 제공
- 교육 이수 후 참가자가 직접 집필하는 결과보고서 책 발간
- 2018 글로벌리더십 외국어 경연대회(GLEC) 영어부문 본선 진출 자격 부여
-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 지원 시 활동실적 배점에 가산 점 부여



## 2) 교육 커리큘럼

WFUNA TRAINING PROGRAM AT THE UNITED NATIONS UN HEADQUARTERS IN GENEVA 2017		
THEME		DETAILED CURRICULUMS
Day 1	<b>The UN and Human Right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lcome Remarks by WFUNA</li> <li>•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Agenda</li> <li>• Guided Tour of United Nations at Geneva</li> <li>• Korea Permanent Mission to the UN in Geneva</li> <li>• Welcome Dinner</li> </ul>
Day 2	<b>Technology, Trade and Developmen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li> <li>• Guided Tour of ITU Museum</li> <li>•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li> </ul>
Day 3	<b>Humanitarian Affair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uided Tour of Permanent Exhibition and Museum</li> <li>• Red Cross – Exploring Humanitarian Law</li> <li>•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li> </ul>
Day 4	<b>Humanitarian Affair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national Trade Center</li> <li>•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li> <li>•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li> <li>• World Trade Organization</li> </ul>
Day 5	<b>UN Career Developmen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nal Presentation by Participants</li> <li>• UN SDG Quiz Session</li> <li>• Final Recap Session by WFUNA</li> </ul>

### 3) UN 본부 강연 기관 소개



#### UPR

##### United Nations Universal Periodic Review Mechanism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is a unique mechanism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RC) aimed at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n the ground of each of the 193 United Nations (UN) Member States. Under this mechanism,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all UN Member States is reviewed every 5 years.



####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Regulates International Trade

The WTO is the only glob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aling with the rules of trade between nations. At its heart are the WTO agreements, negotiated and signed by the bulk of the world's trading nations and ratified in their parliaments. The goal is to ensure that trade flows as smoothly, predictably and freely as possible.



####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UN Specialized Agenc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 organization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since its inception, ITU currently has a membership of 193 countries and almost 800 private-sector entities and academic institutions. ITU is headquartered in Geneva and has twelve offices around the world. ITU membership represents a cross-section of the global ICT sector, from the world's largest manufacturers and telecoms carriers to small, innovative players working with new technologies.





## **CERN**

###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Largest Particle Laboratory in the World**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known as CERN, is a European research organization that operates the largest particle physics laboratory in the world. At CERN, physicists and engineers are probing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universe. They use the world's largest and most complex scientific instruments to study the basic constituents of matter – the fundamental particles.



## **ICRC**

###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Humanitarian Institution Ensuring Humanitarian Protection Worldwide**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is a humanitarian institution based in Geneva, Switzerland. Established in 1863, the ICRC operates worldwide, helping people affected by conflict and armed violence and promoting the laws that protect victims of war. As an independent and neutral organization, its mandate stems essentially from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 Governmental Orga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November 1951, the Observer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was established. The Mission became a full-fledged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in September 1991, with the Republic of Korea's accession to the UN. The Korean Mission is currently headed by H.E. Mr. Cho Tae-yul,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Permanent Representative.



##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the UN Refugee Agency, is a global organization dedicated to saving lives, protecting rights and building a better future for refugees, forcibly displaced communities and stateless people.



##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Provides Services Concerning Migration**

Established in 1951, IOM is the leading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migration and works closely with governmental,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partners. IOM works to help ensure the orderly and humane management of migration,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issues, to assist in the search for practical solutions to migration problems and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migrants in need, including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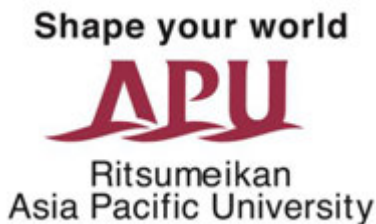
## 5) 프로그램 후원사

### (주)삼경엠에스



(주)삼경엠에스는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자율형고, 마이스터고, 공/사립 일반고, 대학교 및 연수원 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를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삼경엠에스는 기숙사의 전문적인 운영과 학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수년간의 기숙사 운영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 인력으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교육 프로그램인 Training at the UN: Korea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APU)



APU는 학교법인 리츠메이칸 재단이 리츠메이칸 대학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4월 1일에 개교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국제대학입니다. 학부 과정의 수업이 일본어와 영어로 동시에 개설되어 APU의 학생은 원하는 언어로 수업을 받아 졸업 시에는 영어와 일본어에 통달하게 됩니다. 현재 APU에는 학부와 석, 박사 과정 학생을 합한 약 5,6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며 이들 중 44%는 전세계 80여 개 지역과 나라에서 모인 인재로써, 아시아 최고의 다(多)문화, 다(多)언어, 다(多)국적 환경은 APU의 자랑입니다. 또한, Training at the UN: Korea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이 APU에 지원할 시 활동적 배점에 가산점을 부여해 드립니다.

# 04.

## Reports by Theme

### 주제별 교육 보고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16
-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22
-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 36
-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49
-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68
- Universal Periodic Review 95
- World Trade Organization 106

## 1)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Daegu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eongjun Lee  
Welltain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Guhyeng Lee



### About the ITU Program

On the second day of the UN program in Switzerland, we had a chance to learn about ITU and CERN. In the morning, we could visit ITU and listen to lectures inside the building, from a Korean officer who works in the ITU. During the lectures, we were informed of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ITU. And after the lecture ended, we also had a chance to ask questions to the speaker. When the whole lecture was over, we ate lunch in the ITU cafeteria with staffs, managing our entire UN program and the speaker who gave us good lectures.

### History and Definition of the ITU

ITU is the acronym fo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hich manages global telecommunication. Even though telecommunication is not a limited resource such as oil, or coal, they can also be a part of a broad range of resource. In the past, they could not feel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ng globally because they used sources, such as the signal fires, which is one of the limited resources. Nonetheless, over the years, it became natural to use unlimited

resources for communication, such as the internet. Thus, there was a need to manage global telecommunication. For this reason, the ITU was made in 1865, in Paris and was included in the United Nations, which was made in 1981 after the World War 2. Today, a total of 193 countries have joined the ITU which is the same number with the United Nations, but the ITU includes Switzerland while it does not include the Republic of Palau, and the Vatican City. There are also almost 700 people working for the ITU, and over 140 students are a part of this organization.



### **Structure of the ITU**

ITU includes one council and 3 minor departments named the ITU-R, T, and D. ITU-R manages the radio spectrum and satellite orbit for efficiency of telecommunication and avoids crosstalk. ITU-T coordinates standardization fo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uch as the number +82 for the Korean numbers, and besides these kinds of standardizations, there are also almost 4000 available, and this is the main reason why this organization is built. Lastly, ITU-D helps to develop telecommunication to undeveloped countries where systems are not activated properly, and assists know-hows of regulation and promotion. ITU has its own council and a secretary-general, but mostly follows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hich is held every 4 to 5 years. This is to promote better interactions, and proper communication around the world. This constitution strongly protects sovereign rights but has limited

power to restrict unfair acts in some countries such as the limited use of SNS in China. For a better world, ITU is looking to make regulations related to the big data, or the 5G systems.

### **Q&A**

After the lecture, we had a chance to ask questions so I also got a chance to ask questions concerning the ITU. The first question was about the issue well-known in Korea about internet regulation and a line in the constitution about ICU monitoring the internet in the 2012 Dubai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his conference, highl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did not sign to this article while countries with dictatorships, such as Russia signed. The speaker answered that the article was not as it was delivered to the public, but it was in fact related to governments of such countries, trying to monitor and avoid the US and EU based telecommunications.

The second question I asked was about Google's claim that the ICU only focused on giving power to countries while isolating private operators. The answer was that it is a matter of function. Private operators can indirectly join the conference by actively communicating with the government. There were other questions from other students and one question that was interesting was, "What will the 2017 Busan conference talk about?". The answer was they will talk about AI or fee issues, while all that would be decided in the previous conference so that the countries could prepare for answers and ideas for the conference.



## 1) 국제전기통신연합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이성준**  
**웰틴크리스천국제학교, 이규형**

### ITU 프로그램에 대해서

스위스 UN 프로그램의 둘째 날에는 ITU 와 CERN 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오전에는 ITU 에 직접 방문하여 내부의 강의실에서 ITU 소속의 직원에게 직접 ITU 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한국 분이셔서 모국어인 한국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수업 이후에는 잠시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ITU 구내식당에서 UN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스텝 분들과 강사 분과 같이 식사를 하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 ITU 의 정의와 역사

ITU 는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의 약자로 한국어로 직역하면 국제통신연합이다. 석유나 석탄과 같은 한정된 자원은 아니지만 통신이라는 것 역시 산소와 같이 자원에 분류된다. 전서구나 봉화 같은 한정적인 통신을 사용하던 과거에는 이 통신 자원을 각 나라에서 정책을 마련했지만 모스 부호, 인터넷 등을 필두로 한 통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국제적인 통신이 가능해지고 일국이 아닌 국제적인 형태로 통신을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그렇게 1865 년 파리에서 ITU 가 만들어졌다. UN 은 이후 1981 년, 세계대전 이후 평화적인 이유로 국제사회가 모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ITU 와 다르지만 비슷한 이유로 만들어졌고 1947 년에 ITU 가 UN 의 기구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 ITU 에는 193 개국이 가맹되어 있고 698 명이 직원으로 존재하며 143 명의 학생들도 소속되어 있다.

### ITU 의 구조

ITU 는 총괄 위원회와 3 개의 부서, ITU-R, T, D 로 이루어져 있다. ITU-R 은 전파와 인공위성 궤도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여 전파간의 혼선이나 위성의 충돌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ITU-T 는 ITU 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이유이며 국제통신표준을 담당한다. 한국의 전화번호가 +82 로 시작하는 것도 ITU 에서 제공한 국제표준의 예시 중 하나이며 총 4000 개의 유효한 국제표준이 현재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ITU-D 는 전자통신이 열악한 통신 후진국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총 53%의 나라가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ITU 는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자금적인 지원이나 설치를 돕는 것만이 아닌 규제와 같은 노하우도 제공해주고 있다. ITU 에서는 소속 국가들로부터 전권을 부여 받은 협회와 UN 의 기구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3 개의 각 부서의 장과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포함한 5 명의 장이 존재하지만 매 4 년마다 국제회의에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여 협약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행동한다. ITU 의 협약은 국제적인 회의에 의해서 탄생하고 국제적인 통신을 관리하지만 각국의 주권을 보장해주지만 이 때문에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만이 가능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ITU 는 이후 빅데이터나 5G 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과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 Q&A

강의를 마치고는 전날 사전에 조사한 ITU 를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란인데 2012 년 두바이 회의에서 협약의 조항 중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반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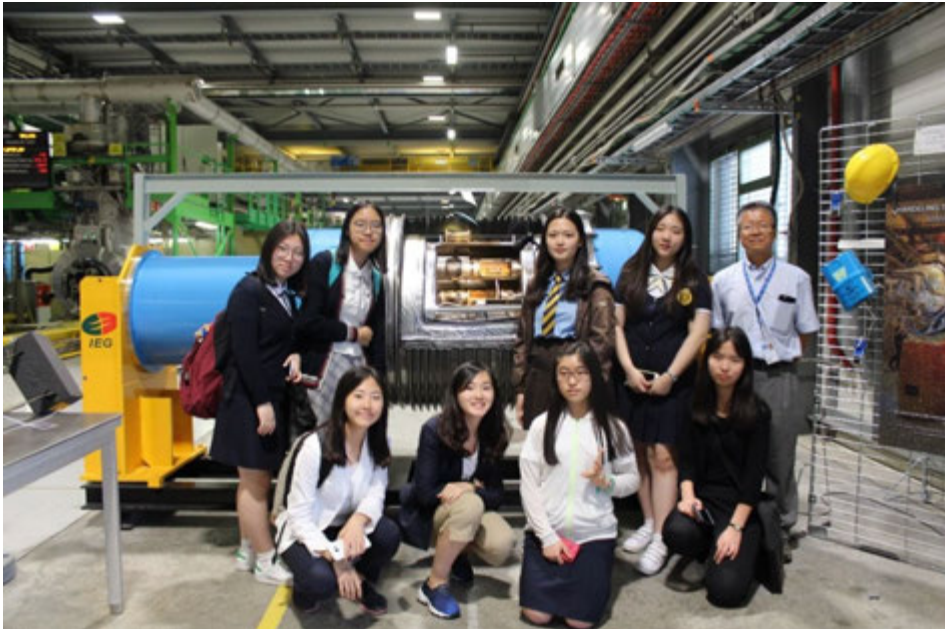
서명하지 않고 러시아와 같은 독재국가에서 찬성하여 서명하는 일이 있어서 질문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님은 미국 중심의 통신에서의 탈피 과정에 대한 것이기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들이 반대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ITU 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 각국에서의 인터넷 통치에 대한 감시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로는 구글에서 주장하는 ITU 에 대한 논란으로 국가 주체로 진행되는 ITU 회의이기에 정작 훨씬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글과 같은 민간사업자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했다. 강사님께서서는 역할 적인 문제로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민간사업자를 대변하는 것이며 민간사업자는 자신의 소속국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ITU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대답하셨다. 또한 나의 질문 이외에도 다른 학생들로부터 의 질문도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2017 년에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ITU 회의에 대하여 어떤 안건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강사님이 시나 요금제 문제와 같은 안건이 나올 예정이며 4년전에 미리 다음 회의에서 다룰 주제도 논의하고 4 년간의 공백동안 국가들이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답하셨다.



## 2)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CERN)

**Lycee International Xavier, Esther Youngmi Kim  
Gwache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eungmin Shin**



### **Definition and History of CERN**

CERN is a research institute located in Mirren, Switzerland, and the Institute is a lab with the largest size of LHC. With highly advanced technology, if NASA is a leader in the macro-world world, CERN is a leader in the micro world. As you can see in the name, they use the accelerator here to find a variety of discoveries by using the accelerator.

There are so many Ministries, which made me surprised.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Israel, Russia, and Turkey that a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 The organization consists of the Council, the science policy committe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accelerator and beam research, the accelerator technology, the ministry of finance,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and lastl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Since its foundation, basic sci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s well as basic scientific research for nature, have been launched. It has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particle physics for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s and young scientists and engineers. In 1989, the World Wide Web created the World Wide Web and opened a worldwide joint research experiment. Since 2000,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conducting experiments on discovering particles of particle Higgs particles and symmetrical particles.

Korea, a non-convertible country, has not been invited but is also responsible for producing a detector for the Large Hadron Collider (LHC). More than 2,000 scientists are participating in the study alone in 160 institutions worldwide. About 6,500 scientists use lab facilities, and more than 500 universities and over 80 universities are directly and indirectly involved in research. The institute covers two countries in western Geneva, Switzerland and the French border.

### **CERN and World Wide Web**

The World Wide Web, is in fact, the first choice for the World Wide Web. In 1989, the physicist Tim Berners-Lee and colleagues at CERN, who worked, and developed the protocols and programs in CERN, had created to search for various research materials. This is the, World Wide Web.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Wide Web, the world has been able to connect to one another and share information easily, which results in global warming.

### **CERN and Higgs boson**

The second is the discovery of the Higgs boson. The Higgs boson is a particle that can provide mass to each of other bosons, attributed to the Higgs mechanism, but it has been regarded as a theoretical tool to prove the Higgs mechanism. And, the surprising thing is, CERN discovered it actually in 2010. They told they did not discover it, while it is not obscure that it was the 'Higgs boson'. Nonetheless, Cern had announced that they found that it really was Higgs boson who was the founder, and this held a major scientific impact.

### **CERN's relations**

In the year 2012, 14 December,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granting CERN, observer status in New York. The Organization has the right to attend its sessions as an observer and to participate in the work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main factor was that CERN's activities covers areas of considerable interest to the General Assembly, mainly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It's a great honour for CERN to accede to the status of observer at

the UN General Assembly", said CERN Director-General, Rolf Heuer. "CERN has a long tradition of clo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and its agencies, which dates back to 1954 when the Laboratory was founded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ERN owns the expertise in science and technology while the network of UN Member States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disseminating CERN's knowledge more widely, allowing developing countries to benefit from it.

CERN has an institutional participation and a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Institutional participation consists of Membership, Associate Membership and an observer status which are open to States only. In the past, Observer status has been granted to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sually, States who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CERN infrastructur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has maintained close links with CERN are awarded with the Observer status.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consists of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reement and Memoranda of Understanding.

### **Why is CERN's accelerator complex?**

The accelerator, also called the LHC, is located 100 m underground, in the region between the nearby Jura Mountains and the Geneva International Airport. It occupies about 27 km and the majority of its length is on the French side of the border. The accelerator complex is made of a series of accelerators who work together to push particles to nearly the speed of light. The process starts from a simple bottle of hydrogen gas. Using an electric field they strip electrons from hydrogen atoms to yield protons. The protons are then accelerated by four accelerators (1st acc, PSB, PS, and SPS) before getting transferred to two beam pipes of the LHC. One circulates clockwise while the other circulates anticlockwise. The beams will circulate for many hours inside these two pipes. The two beams are brought into collision inside four detectors: ALICE, ATLAS, CMS and LHCb. By studying these collisions, they tell how matters are made which helps to find out how other elements or substances are made.

### **<How do they manage these machines?>**

**1. Three steps to cooling:** LHC produces a lot of energy which leads the machines to heat up to very high temperatures. Cooling this giant machine down consists of three different stages. First, liquid nitrogen is used in heat exchangers in the refrigerating equipment to bring the helium down to 80K. Next, using turbines the helium is cooled to 4.5K and injected into the cold masses of magnets. Lastly, refrigeration units bring the temperature further down to 1.9K.

**2. Control rooms:** CERN Control Centre (CCC) combines the control rooms of the Laboratory's eight accelerators as well as the operation of cryogenics and technical infrastructures. Due to harmful substances normally people aren't allowed to go underground near the machine. Control rooms such as the Atlas's control room prevents workers being present in risky situations. Regulations for the beams are also made in these rooms in order to produce collision.

**3. Test facilities:** Cryogenic test facility (SM18) is a world leading magnet test facility for testing magnets and instrumentation at low temperature and up to high currents. Many parts are already being used in the LHC. Not only do they run tests but it also provides a space for visitors to understand better by seeing a few samples of the material used in the LHC. Security procedures are an obligation to follow such as only a limited people of about 12 visitors can go in with their guide.



### **Future plans at the CERN**

Normally the underground is not open to the public but CERN is planning to stop, once again, the accelerator complex for 2 years from 2018 to 2021. It takes 5 weeks to shut down and 5 weeks to restart the entire machine. There will be no radiation nor any harmful energy that could be dangerous for the visitors. CERN had done a long term shutdown in the past starting in the year 2013 and ending in 2015. These long term breaks is a time when scientists, engineers and CERN benefit to improve the installations and solve any problems.

## After TP

The lecture about CERN helped our understanding during our tour around CERN. For many understanding this area wasn't easy but it was interesting to see how LHC worked as the world's biggest accelerator and how CERN played significant roles not only with UN but with oth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 have a lot of interest in the fields of science but I only had a brief idea of CERN.

While having a significant concentration I was able to understand more and more about this organization leading me to dig in deeper into the world of science. Along the history of CERN many discoveries were made and are now integrated in our daily lives like the detectors at the airports. Even though we didn't get the chance to go underground I was so thankful to have the privilege in discovering CERN while our stay in Geneva. Moreover, this scientific journey along the two borders is a TP experience that I will never forget.



몽블랑을 배경으로 유럽입자물리연구소 (CERN) 앞에서 TP 10 기 단체사진

## 2) 유럽입자물리연구소

Lycee International Xavier, 김에스더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신승민

### Definition and History of CERN

CERN은 스위스 제네바의 근처인 메이런에 위치한 유럽연합의 연구소로, 소장은 로프 호이어 박사이며 이 연구소에 지상 최대크기의 LHC가 위치해 있다. 최첨단 기술이 몰려 있으며, NASA가 거시세계의 선두주자라면 CERN은 미시세계에서의 선두 주자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곳으로 여기에 있는 가속기를 이용해 여러 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발견을 한다. 이 가속기는 Atlas 라고 불리며 우리가 낮에 방문해서 직접 보았던 것이다.

이 외에도 미국·일본·이스라엘·러시아·터키 등이 회원국으로 연구에 참여한다. 기구는 평의회, 과학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가속기 및 빔 연구부, 가속기기술부, 재정부, 인적자원부, 정보기술부(IT), 물리학부, 기술지원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립 이후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호기심 탐구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는 물론, 각종 국제적인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펼쳐왔다. 또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한 입자물리가속기 연구와 젊은 과학자, 기술자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1989년에는 월드와이드웹(WWW)을 개발해 전세계 인터넷 시대의 문을 열었고, 2000년 이후에는 소립자 힉스입자와 초대칭 입자의 발견을 목적으로 국제 공동 연구 실험을 하였다.

비회원국인 한국도 초청을 받지 않는 않지만, 대형 강입자충돌형가속기(LHC)의 검출기 제작을 맡고 있다. 이 연구에만 전세계 160개 기관에서 2,000명 이상의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다. 또 6,500여 명의 과학자가 연구소 시설을 이용하고, 500여 개 대학과 80개 국 이상이 직접·간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소는 스위스 제네바 서쪽과 프랑스 국경의 두 나라에 걸쳐 있다.



## CERN and World Wide Web

CERN이 한 일중 최고를 뽑자면 월드 와이드 웹(WWW)의 개발을 첫번째로 꼽을 수 있다. 1989년 CERN에 근무하던 물리학자 팀 버너스 리와 동료들은 여러 연구자료를 찾기 위해서 만든 프로토콜과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월드 와이드 웹이다.

월드 와이드 웹의 개발을 통하여 세계는 하나의 그물망(web)처럼 연결되어 서로 쉽게 정보를 공유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 CERN's relations

2012년 12월 14일, 유엔 총회가 CERN에게 뉴욕에서 오피서버 지위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관은 세션에 목격자로 참여하고 유엔 총회의 참가할 권리가 있다. 주된 요인은 CERN의 활동들은 총회에 상당한 관심 영역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과학 기술 분야의 지식. "It's a great honor

for CERN to accede to the status of observer at the UN General Assembly", said CERN Director-General, Rolf Heuer. "CERN has a long tradition of clo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and its agencies, which dates back to 1954 when the Laboratory was founded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ERN은 과학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는 동안 유엔 회원국들의 네트워크는 CERN의 지식을 더욱 널리 보급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개발 도상국들이 네트워크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허락한다.

CERN은 제도적 참여 과 비국가적 참여를 갖고 있다. 제도적 참여는 멤버십, 준회원 멤버십 그리고 관찰자 상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들만 열려 있다. 과거에 관찰자 상태를 국가들과 국제 기구들이 허가를 받았다. 주로 CERN 사회 기반 시설에 상당한 기여를 한 국가들 아니면 CERN과 근접 링크를 유지하는 국제 기관들은 관찰자 상태와 함께 수여한다. 비 국가 참여는 국제 협력 양해 각서로 구성되어 있다.

### What is CERN's accelerator complex?

LHC라고도 부르는 가속기는 지하 100미터에 가까운 곳에 있는 주라산들과 제네바 국제 공항에 위치한다. 27미터를 차지하고 대다수의 길이는 국경의 프랑스 쪽에 있다.

가속 복합체는 같이 거의 빛의 속도로 입자들을 밀어 붙이기 위해 함께 일하는 여러 가속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수소 가스로부터 시작된다. 전기장을 이용해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양자로 만든다. 그러면 LHC의 2개의 빔은 파이프를 옮기기 전에 4개의 가속기에 의해 양성자가 가속됩니다. (처음 가속기, PSB, PS, SPS).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동안 다른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빔 줄기들은 여러 시간 동안 이 두 빔은 파이프를 순환할 것이다. 이 두 빔은 4개의 검출기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만듭니다: 엘리스, 아트라스, CMS 그리고 LHCb. 이러한 충돌들을 연구함으로써 다른 요소나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 <How do they manage these machines?>

### - *Three steps to cooling*

LDC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기계들을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되도록 한다. 이 거대한 기계를 냉각 식힐려면 세가지 다른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액체 형태의 질소를 냉동 장치의 열 교환기에 사용해 헬륨을 80K로 낮춘다. 다음 터빈들을 이용해 헬륨이 4.5K로 냉각되고 차가운 자석 덩어리에 주입된다. 마지막으로, 냉장 장치는 온도를 1.9K까지 낮춘다.

### - *Control rooms*

CERN 콘트롤 센터(CCC)은 실험실 8단 가속기의 조정실하고 우생학적 수술과 기술 기반 시설을 결합한다. 유해 물질로 인해 원래는 사람들이 지하에 있는 기계 가까이 못 가게 한다. 아틀라스의 조종실처럼 조종실은 직원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을 방제한다. 빔들을 위한 규정들도 충돌을 일으키기 위해 이 방에서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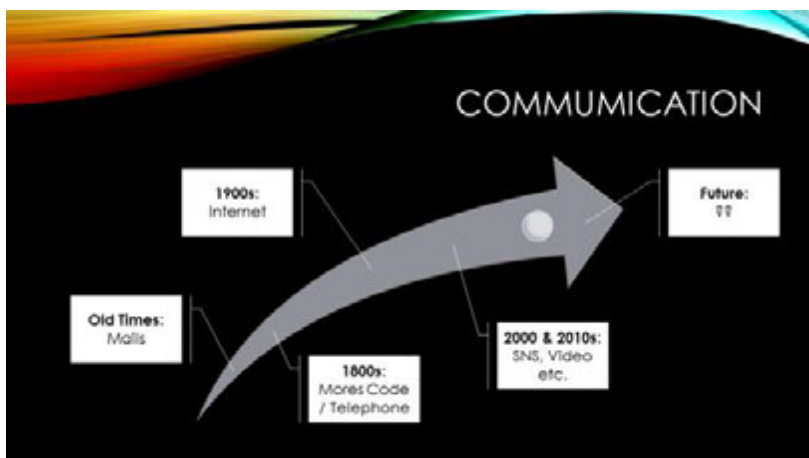
### - *Test facilities*

극적온의 시험 시설 (SM18)는 자석들과 낮은 온도와 높은 전류로 기악 편성을 실험을 위해 세계를 이끄는 자석 시험 시설이다. 여러 부품들도 이미 LHC에서 이용되고 있다. 실험만 하는게 아니라 방문객들이 LHC에서 이용하는 재료에서 예시를 보면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되어 있다. 보안 절차는 따라야 되는 의무다. 예를 들어 제한된 12명의 안내원들과 함께 갈수 있다.

## Future plans at the C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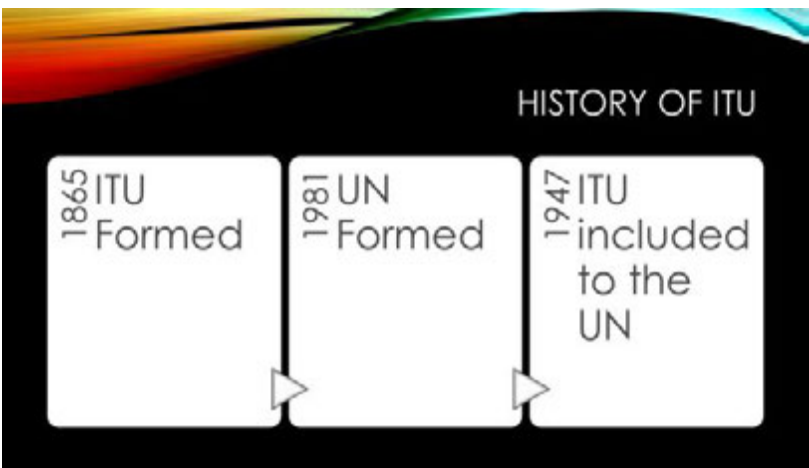
원래는 지하는 일반한테 열려 있지 않은데 CERN은 또 복합 가속기를 2년을 멈추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까지. 정지 하려면 5주가 걸리고 기계 전체를 다시 시작 하려면 5주가 걸린다. 방사능과 방문객한테 위험한 유해 에너지는 없을 것이다. CERN은 과거에 장기 차단을 했었다, 2013년에 시작해서 2015에 끝났다. 이런 장기 차단은 과학자들, 공학자들 그리고 CERN이 시설을 개선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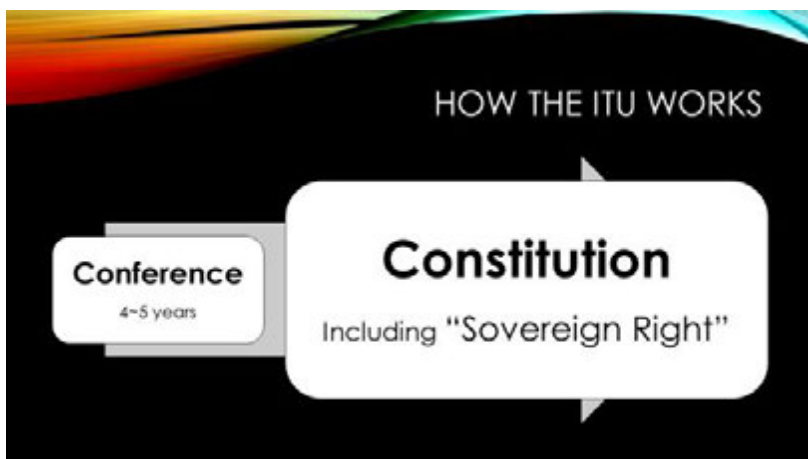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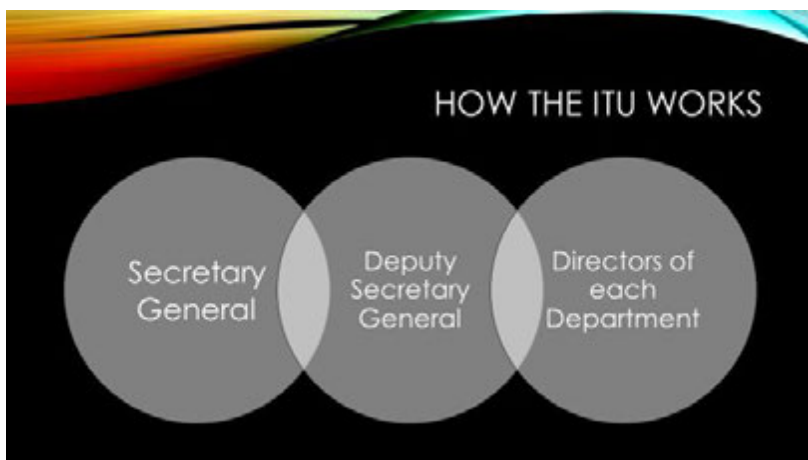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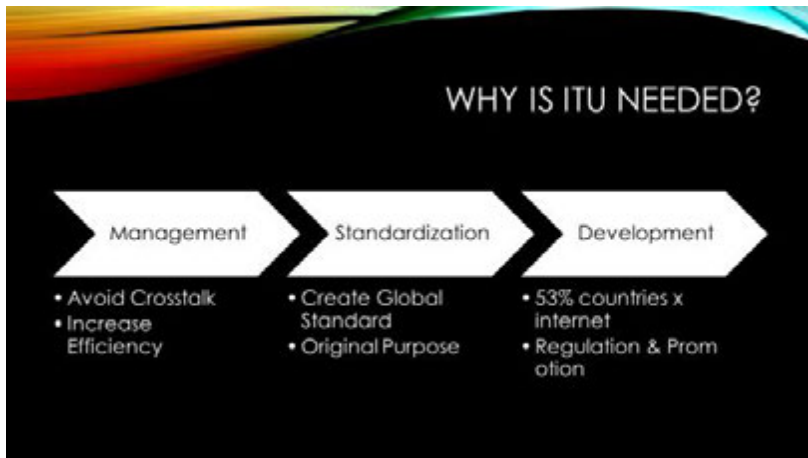
[팀 프리젠테이션 자료]



#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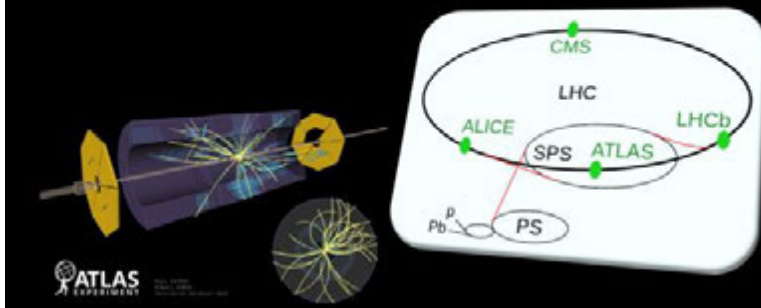
### HISTORY OF THE CERN

1 October 1952	• CERN Established
17 March 1954	• Made Tunnels
29 September 1954	• Started Nuclear Research
11 May 1957	• Started the First Accelerator
24 November 1959	• Started the Proton Synchrotron



- Institutional participation
  - Membership
  - Associate Membership
  - Observer Status
- Non – Institutional participation
  - International Cooperation Agreement
  - Memoranda of Understanding

## CERN'S ACCELERATOR COMPLEX, LHC



## HOW DO THEY MANAGE THESE MACHINES?



CONTROL ROOM



TEST FACILITIES



PARTICLE ACCELERATOR





### 3)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

Branksome Hall Asia, Ran Seo  
Bumgye Middle School, Jeongmin Shin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is in charge of working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y are from 193 countries that usually treat global affairs such as global peace,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As one of the countries, South Korea has been cooperative after since the government established Resident representative office in 1959. Before the Korean mission was built, the government was still discussing whether the nation needed a mission or not. Nevertheless, after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ad discussed about how to send Korean natives from Japan back to Korea, the government finally decided and today's Permanent Mission was installed in Geneva. For decades, the Permanent Mission of South Korea have shown passionate supports and achieved great changes on both the nation and the world. Through the mis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United Nations activities such as UN peacekeeping and industrial contribution, with its main foreign policy goal being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United Nations



In Geneva, it is possible to do things related to human rights, humanitarian aid, disarmament, etc. Due to its neutral position, geographical convenience and aggressive policies. There are now 34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more than 250 international NGOs, and 178 representatives. Due to these conditio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d established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fice in Geneva in 1959, for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The mission is composed of a total of 30 government officials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mbassador Choi Kyung Lim, Ambassador of the Ministry of Finance, Deputy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Counselor and Clerk. It contributed to various development support projects and led various conferences on issues such as urgent issues such as the Middle East and the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WD). In addition, it held a public debate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for civilian victims in Syria and Mali, contributing to reaffirmation that civilian protection is the core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In the case of the civilian protection related to Korea, there are cases where major human rights issues were discussed at the regular and special sessions and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was promoted.

## <Relations between Kore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The United Nations actively supported the Republic of Korea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especially in the period where the economic crisis broke out in Korea. At the 46th UN General Assembly in 1991, the Republic of Korea unanimously joined all 159 member nations with the North. Since joining, South Korea has been able to ent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has issued eight Secretaries of the United Nations. Korea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a specific role in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countries and discussing solutions to global social problems. During the period of non-standing membership of the Council, South Korea was the first to hold a public debate on refugee issues. This raised concerns of refugee protection issues. In addition, the mission has developed concrete development goals for improving the lives of those suffering from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 1. *Human rights*

When the Third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as held in Paris on December 10, 1948,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adopted, which encompasses common definitions of human civil, political,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lthough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was abolished, various conventions were adopted, including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 is a party to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reats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n people as one of the major issues of global human rights. In fact, at the 34th UN Human Rights Council meeting held from February 27 to March 24, 2017, the Representative Office gave detailed explanations of the horrible reality of North Korean peopl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He also emphasized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s who live a life that is not respected by human rights. It is the representative office in Geneva that it informs the world of the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reminds the world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 2. *Disarmament*

From the Cold War to the present, wars are continuing, and many nations, including the delegation, continue to make conventions such as the BWC, CCW and ATT to reduce the army to maintain peace. The Republic of Korea delegation also participated in many conferences and presented conventions related to disarmament. Below are examples of agreements that the Korean delegation participated or concluded together with other delegations.



- ①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Weapons (BWC) is a multilatera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treaty that prohibits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iological and toxic weapons and aims at the complete disposal of biological weapons possessed by each negotiating Party. The General Assembly is held every five years in Geneva, Switzerland. It discusses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Convention, and if doubt about the development and use of biological weapons is raised, there is no effective verification system to check whether the Convention is violated. Establish a regulatory verification system. So, in 1995, a special group (AD HOC Group) meeting was held in Geneva for the negotiation of the Protocol on Verification of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 ② The Special Convention on Conventional Weapons Convention (CWW) was signed in 1980 and entered into force in December 1983, with 84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a, Republic of Korea, Russia, Since the early 1990s, when the victims of the mine landmines that had already been buried in the world during the Cold War erupted and became serious international problems, the CCW Convention Parties made five evaluation meetings in 1996, Revised.
- ③ The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Weapons (ATT) is the first international treaty to regulate the use of conventional weapons and is

a treaty in which 130 countries entered into force in 2014. The treaty states that the control of the transfer of conventional weapons and their parts abroad and the provision of equipment to regulate weapons intermediaries in their own countries are included. Under the arms trade treaty, exports are prohibited if conventional weapons are likely to be used to attack buildings such as schools and hospitals used by civilians or civilians.

### **3. Humanitarian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expand its participation and contributes to global debates, in the field of humanitarian diplomacy.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o be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result of poverty and disease disast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to guarantee people's life, basic personality and rights. If the previous humanitarian aid activ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were mainly relief, the mission is now making efforts to expand support for chronic crises and forgotten disasters. In the meantime, the delegation has worked with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NHCR, IOM, ICRC, IFRC and OCHA to solve refugee problems.

Also the mission provided \$ 230 million for the 2016 World Summit in India and the 2016 Refugee Summit in 2016 to 2016 and 2018,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amount of support for refugees will increase from \$ 3.5 million in 2012 to \$ 51.9 million in 2016,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various humanitarian discussions.

Another humanitarian aid from the delegation is the civil war in Yemen. At that time, many Yemeni citizens suffered from trauma and damage caused by civil war. Korea was one of the countries that came to help these people. On April 25, 2017,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government emphasized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and announced that it would donate US \$ 400 to correct the lives of the displaced citizens. In this way, the delegation is making efforts for world peace and happiness for others. In addition, representatives from other countries or governments are encouraging and influencing humanitarian assistance.

### **Goal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Geneva,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s the interests of our country, strengthens cooperation with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upports the entry of our people in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United Nations, the stag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delegation is making efforts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ffective resolution of global problems. As a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from 2013 to 2014, we actively participated in discussions on major security issues including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we will use our experience in Korea to overcome the damage of war to carry out our constructive missions on issues such as peacekeeping activities, regional disputes, and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women, children, and civilians. It also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DCs and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world, based on the experience of achieving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for half a century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 <After visiting the Republic of Korea>

##### ***Ran Seo, Branksome Hall Asia***

At first I did not know what the delegation was. The Republic of Korea will attend the United Nations or a global meeting. How and who? I had many questions. Through the United Nations Training Program, I came to the answer to the many questions. Of course, when I first heard a briefing about the delegation, it was too difficult to first understand what I had just listened to. However, as we prepared more presentations about the delegation, we became mo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delegation. It was embarrassing that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I did not know what was important in dealing with diplomatic work in Geneva. I just wondered what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Korea is, what the world looks like to Korea, and what Korea had done, and is doing, to solve global problems. At first, I had failed to even acknowledge who attended such conference, and what exactly these people did. However, I had learned about the accomplishments of the delegation that contributed to the world through my experience and research activities in the representative office and how I have tried to solve the international problems together. I do not know when I will have another chance to visit the delegation, but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 about what the delegation is doing and what I talked about at the recent international conference. I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what my country, South Korea is going to do through the Permanent mission.

### ***Shin Jung-min, Bumgae Middle School***

I went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in Geneva, United States, and Mr. Hong Seung Tae had been briefed o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hat he himself had done so far, his future goals, and other things about the relationship with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Geneva.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know in detail where Korea i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what practical things the country is doing. And I learned more about the delegation, as the more I knew, the more I wanted to know.

### **Reference**

- <http://che-geneva.mofa.go.kr/korean/eu/che-geneva/state/right/index.jsp>
- <http://che-geneva.mofat.go.kr/korean/eu/che-geneva/main/index.jsp>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133&cid=43667&categoryId=43667>
- Email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Geneva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5547&cid=43667&categoryId=43667> - <http://overseas.mofa.go.kr/korean/eu/che-geneva/state/right/index.jsp>
- <http://che-geneva.mofa.go.kr/korean/eu/che-geneva/legation/work/index.jsp>
- <http://che-geneva.mofa.go.kr/korean/eu/che-geneva/state/military/index.jsp>
- [file:///Users/student/Downloads/160311\\_UNHCR\\_65th\\_SC\\_Asia\\_as%20delivered.pdf](file:///Users/student/Downloads/160311_UNHCR_65th_SC_Asia_as%20delivered.pdf) - <http://che-geneva.mofa.go.kr/korean/eu/che-geneva/state/support/index.jsp>
- <http://che-geneva.mofa.go.kr/korean/eu/che-geneva/state/support/index.jsp>

### 3)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제네바

Branksome Hall Asia, 서란  
범계중학교, 신정민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및 여타 국제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고 국제 평화와 인권, 인도적 주제들을 다룹니다.

스위스 국제기구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 대한민국 대표부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9년에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해 제네바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제네바 대표부 설치에 논의되던 중 일본의 재일교포 송복안 문제가 제네바의 적십자국제위원회에서 논의됨에 따라 상주 대표부 설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주요 외교 목표로 놓고 유엔 평화 유지활동 및 산업 기여 등 유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제네바는 국제기구의 본산으로 34개 정부 간 기구, 250여 개 국제 NGO, 178 대표부가 배경이 되었고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 지리적 편의성, 적극적 유치정책에 기반을 두고 인권, 인도적 지원, 군축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최경림 대사를 비롯하여 정무담당 차석대사, 경제담당 차석대사, 참사관, 서기관 등 총 30명의 정부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각종 개발 지원 사업에 기여하였고, 중동문제 등 긴박한 현안과 대량파괴 무기(WWD)위협 등 다양한 회의 의논 문제를 이끌었습니다. 또, 시리아, 말리사태에서 희생되는 민간인들을 위해 민간인 보호를 주제로 안보리공개 토의를 개최하여 민간인 보호가 안보리의 핵심적 책임임을 재확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민간이 보호로는 정기 및 특별회기 시 주요인권 이슈토의를 열고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 〈한국과 제네바의 국제기구와의 관계〉

유엔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와 한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대한민국 또한 1991년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유엔에 가입하여 유엔 안전보장 위원회에 진출, 56회 유엔 총회의장을 수임하고 8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였습니다.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의 구체적인 역할은 각국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세계의 사회문제의 해결책에 관한 토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은 각종 개발 지원 사업에 기여하며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중 안보리 최초로 난민 문제에 대한 안보리 공개 토론을 개최하여 난민 보호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빈곤과 저개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개발목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1. 인권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인간의 주요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포괄하고 있는 ‘세계인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가 폐지 되었지만,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여러 가지 협약들이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은 인권 협약의 당사국이며 세계적인 인권문제 중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주요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부에선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된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계기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과 인권 침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권리를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사는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또다시 상기시킴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것이 제네바에 있는 대표부입니다.

## 2. 군축

- ①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부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평화를 유지 시키기 위해 군을 축소하는 BWC, CCW, ATT 등의 협약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부도 많은 회의에 참여하여 군축과 관련된 협약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체결된 협약 사례들은 한국 대표부가 참여하였고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 ② 생물 무기금지협약(BWC)은 다자간 군축 및 비확산 조약으로서 생물과 독소 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을 금지하며, 각 협상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무기의 완전히 폐기를 목표로 합니다. 총회는 5년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데, 주로 협약 이행 평가 및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생물무기 개발 및 사용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협약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검증장치가 없어 이를 좀 더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검증체제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제네바에서 생물 무기금지협약(BWC) 검증의정서 제정 협상을 위한 특별그룹(AD HOC Group)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 ③ 특별재래식무기금지협약(CWW)은 지난 80년 체결되었고, 83년 12월 발효됐으며, 2001년 현재 미국,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 등 84개국이 가입해 있는 협약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냉전 시대에 이미 세계에 매설되어있던 대인지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여 심각한 국제문제로 심각해지자 CCW 협약 당사국들은 5차례에 걸친 평가 회의를 통해 1996년에 지뢰의정서(제2 의정서)를 개정했습니다.

- ④ 무기거래금지조약(ATT)은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 조약이며 2014년에 발효된 130개 국가가 참여한 협약입니다. 조약에는 재래식 무기와 그 부품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통제하고 자국 내의 무기 중개상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에 따라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이나 민간인이 사용하는 학교, 병원 등의 건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이 금지됩니다.

### 3. 인도적 지원

대한민국은 인도주의 외교 분야에서의 글로벌 논의에 대한 참여와 기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빈곤, 질병 재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기본적 인격 및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구호 위주였다면, 이제는 만성적 위기 및 잇힌 재난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표부는 난민 문제들을 해결하기 NHCR, IOM, ICRC, IFRC 그리고 OCHA 등 많은 국제기구와 협력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2016년 5월 세계 인도지원정상회의와 2016년 9월 난민정상회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2016년~2018년에 2.3억 불을 지원하였습니다.

난민에 대한 지원 규모도 2012년 350만 불에서 2016년 5,129만 불로 약 15배 확대하며 대한민국 대표부는 인도주의 관련 다양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대표부에서 한 또 다른 인도적 지원으로는 예멘에서 발생한 내전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엔 많은 예멘 시민들이 내전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피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던 국가들 중 대한민국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2017년 4월 25일, 국제적 회의에서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폐한 시민들의 삶을 바로 잡기 위해 미국 돈으로 400달러를 기증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표부는 세계의 평화와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쏟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 대표들 또는 정부들도 다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격려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의 목표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제네바 소재의 많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우리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부는 다자협력의 무대인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지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많은 이바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2014년에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안보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의 피해를 딛고 일어난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평화 유지활동과 지역분쟁, 여성·아동·민간인 등의 취약계층 보호 등의 문제에서 건설적인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개발국가들의 발전 논의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는 한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대표부를 다녀온 후>

#### *서란, 브랜섬홀아시아*

처음에는 대표부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나 세계적인 회의에 참석을 할 텐데 어떻게 그리고 누가 하는 거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지? 라는 궁금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Training Program 을 통해서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표부에 관한 설명회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어렵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부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은 자료 조사를 하게 되자 대표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제네바에서 외교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곳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한국과 외교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만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누가 대표로 국제적인 회의에 참석할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부에서의 경험과 자료 조사 활동을 통해 그 동안 대표부가 세계에 기여한 업적들, 그동안 국제적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해왔는가에 대해 알게 되었고, 대표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표부에 또 한번 가볼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대표부가 하는 일들이나 최근에 가졌던 국제적 회의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넓은 국제적인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대표부를 통해 무엇을 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신정민, 범계중학교

주 제네바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 가서 홍승태 참사관님에게 대한민국 대표부의 역사, 지금까지 해온 일과 앞으로의 목표 등 설명을 들었고 제네바에 위치한 다른 국제기관들과 한국과의 관계에 관한 것 들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시간에도 알고 싶었던 것들을 더 알게 되어 대표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 4)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Dan-Kook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Seung Jun Kim  
Korea International School, Min Jeong Joo



### 1. <History of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ICRC)>

#### A. *Founder of ICRC*

The idea of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came from a man called Henry Dunant. After his experience in the battlefield of Solferino in 1859, he wrote a book called, *A memory of Solferino*. This was written in order to show the horrors and unnecessary violence occurring in the battlefields. The book encouraged many political leaders to take action to protect the victims and the vulnerable soldiers during wars. Following his suggestions, government representatives gathered together to adopt the first Geneva Convention(Prominent ideas of the treaty were making it mandatory to take care of wounded soldiers and creating societies that provide military medical services)

#### B. *World War I(1914~1918)*

During the WWI,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played a conspicuous role in linking lost families and providing medical services to the soldiers in the

battlefields. ICRC created Central Prisoners of War Agency in Geneva in order to help connect the captured soldiers and their families.

### C. **1918~1939**

After World War I, the changing global situations stimulated the ICRC to play a new role in the world community. Hence, ICRC founded the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in 1919,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cooperation between states and effectively carrying out the activities of ICRC.

It even tried to adopt new Geneva Convention in 1929 to offer far-reaching protections for war victims. Unfortunately, the constant attempts were inadequate to prevent the massacre of WWII.

### D. **World War II (1939~1945)**

In 1945, the Second World War broke out causing millions of deaths.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supplied necessities and medical services to the conflict zones. Although these constant attempts, the ICRC was unable to prevent the most violent and brutal Holocausts. The main reason for their failure in WWII was the absence of detailed legal basis and its inflexible procedures of the system

## 2. **What does ICRC do? ( <https://www.icrc.org/en/what-we-do> )**

The ICRC specifically states, “The ICRC responds quickly and efficiently to help people affected by armed conflict. We also respond to disasters in conflict zones, because the effects of a disaster are compounded if a country is already at war. Emergencies are unpredictable, so our rapid deployment capability is hugely important.”

The ICRC specifically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Economic security, Restoring family link, Water and habitat, Health, Sexual violence, Forensic science, Mine action, Building respect for the law

## 3. **<Governance: red cross consists of main five parts>**

The Assembly, the Assembly Council,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Directorate, the Internal Unit Audit

- A. The Assembly is the top governing body of the ICRC and it supervises all ICRC activities. About fifteen to twenty-five co-opted Swiss nationals are the members of the Assembly.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 of the Assembly hold the additional position of those of the ICRC. The Assembly decides goals to achieve, establishes policies, and approves the budget and the accounts.

- B. The Assembly Council is a secondary body of the Assembly, which supports ICRC function. For example, it helps the Assembly to prepare for discussions and about finance such as ICRC fund, foundations, and budgets. Moreover, it takes responsibility of carrying out the Assembly's duties in urgent situations.
- C. The Office of the President consists of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 The president is responsible for relationship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countries as a representative of ICRC.
- D. The Directorate executes strategies determined by the Assembly and the Assembly Council. It has a duty on running the organization smoothly and managing the ICRC members.
- E. The Internal Audit Unit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at monitors ICRC.

#### **4.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IHL defined armed conflict as “fighting between countries and fighting between a country's armed groups, or between armed groups.” “Fighting between countries are international, and fighting within the countries are non-international.” Also, basic principles of IHL are humanity, distinction, proportionality, and precaution.

IHL is a set of rules that protect human dignity in war situations by protecting civilians and by restricting the way wars are conducted. IHL provides specific rules on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people and limiting the way in which war is conducted.

#### **5. <Dealing with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A. The courts: Courts can be international or national courts. These courts are responsible for trying and punishing people who have committed grave breaches. The most important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se actions ar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 B.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enacting national laws that prohibits and punish grave breaches. It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searching for and prosecuting people accused of committing grave breaches. It must also ensure that its military commanders take action against those under their authority who commit grave breaches.



- C. Commanders of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They are responsible for monitoring the application of IHL and must stop any violation. They must also report all violations of the law and take disciplinary measures. Lastly, commanders are also in charge of bringing court martial people under their authority who commit grave breach.

### <Reflections>

#### ***Seung Jun Kim, Dan-Kook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When I thought about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the only information that I was aware of was that it was an organization supplying medical services to the conflict zones. However, listening to a presentation given by two staffs in ICRC helped me realize that ICRC played a far more important role than just offering medical services.

The role that I thought was very important was restoring family link. I noticed that there was a lot of soldiers or civilians that wer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or important members during the process of wars. They had no means to connect with their loved ones.

However, ICRC provided services so that the war victims could reconnect with their family members. I always thought that the most important step in restoring a country from a war is healing the wounds of civilians physically and mentally. Linking lost family members will be the first step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Another prominent role that ICRC played was setting humanitarian laws so that certain laws could be kept even during the war. These laws provided the civilians and the most vulnerable people with the protections from armed forces. In the past, there were numerous unnecessary violence and murders during war.

This was because many people thought that no laws were in place in the battlefields. Thus, soldiers killed civilians who were not even a threat. I think that ICRC's active participation made it possible for basic rules to be kept during wars significantly reducing unnecessary deaths.

Listening to lectures given by the ICRC staff helped me realize the crucial role ICRC was playing in the global community. It was not a simple organization, but one truly devotes itself to international peace.

***Minjeong Joo, Korea International School***

I have heard about ICRC but I did not know about specific roles of ICRC. I thought ICRC wa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provided medical services to wounded people in armed situations. However, I realized that ICRC was crucial in not only offering humanitarian aid efforts but also helping child soldiers after listening to the lecture. Unfortunately, however, many children became soldiers to revenge combatants who killed their parents, which is tragic. What really made me relieved was ICRC helps child soldiers restore their mental health through rehabilitation process to better adapt to the society.

I felt much better that ICRC took vigorous actions for child soldiers. Also, through role-play of a child soldier, I felt heartbroken because I could empathize with the little boy's pitiful situation. I hope things were turning around for child soldiers as soon as possible.

**4) 국제적십자회**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김승준

한국국제학교, 주민정



Red Cross 의 Mr. David Steve 께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적십자의 역할과 활동 강연

## 1. <ICRC 역사>

### A. ICRC 창립자

ICRC 창립의 근본적인 바탕을 제시한 사람은 Henry Dunant 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59년에 소팔리노 전투를 경험한 후, A memory of Solferino 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가 분쟁 지역에서 경험한 경악스럽고 불필요한 폭력과 죽음에 대하여 알리기 위하여 쓰여 졌습니다. 그의 책은 많은 국가 지도자들에게 전쟁 지역에서 민간인과 위협이 되지 않는 군인의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Henry Dunant 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정부 대표들이 모여 첫 제네바 컨벤션을 체결하였습니다.



### B. 세계 일차 대전

세계 1차 세계 대전 당시, ICRC 는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ICRC 는 Central Prisoners of War Agency 를 제네바에서 창립하여 전쟁 포로와 그의 가족들이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ICRC 에 지원하는 수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ICRC 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크나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 C. 1918~1939

세계 1차 대전 이후, 변화되어 가는 국제 정세와 발 맞추어 ICRC 도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자극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ICRC 는 1919 년에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를 창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구의 창립 목적은 각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ICRC 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ICRC 는 새로운 제네바 컨벤션 내용을 채택하여 더욱 광범위 하게 전쟁 피해자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도 제 2차 세계 대전의 대학살을 막기 부족하였습니다.

### D. 세계 2 차 대전

1945년에 발생한 제 2차 세계대전은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ICRC 는 필수품과 의료 서비스를 분쟁 지역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CRC 는 가장 잔인하며 야만적인 대참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ICRC 의 실패에 핵심적인 이유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의 부재와 융통성이 없는 절차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 E. 세계 2 차 대전 이후

과거 전쟁을 통하여 발견한 ICRC 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도주의적인 국제법을 구체화를 장려하였습니다. 또한 제네바 컨벤션에 4번째 조항을 추가하여 적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까지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ICRC 활동 (<https://www.icrc.org/en/what-we-do>)

ICRC 는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ICRC 는 무력 충돌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 국가가 이미 전쟁에 처해 있다면 재난의 영향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분쟁 지역의 재난에도 대응합니다. 긴급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배포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ICRC 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활동을 담당합니다: 긴급 구호 및 경제적 자활 지원, 가족 찾기 활동, 식수와 위생, 신체 재활 치료, 민간인 보호, 피구금자 보호, 응급치료와 보건의료

### 3. 적십자는 5 개의 큰 부서로 구성됩니다.

총회는 ICRC 의 최고통치기구이고, ICRC 의 모든 활동들을 감독합니다. 선임된 15명~25명 스위스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총회의 대표와 부대표는 ICRC 의 대표와 부 대표를 겸임합니다. 총회는 ICRC 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결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예산과 회계를 승인합니다. 총회 의회는 총회의 부수조직으로써 ICRC 를 뒷받침합니다. 또, 총회의 회의준비와 재정관리를 도와주고, 위기상황에서 총회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The Office of the President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CRC 위원장은 ICRC 대표로서 다른 단체들과 국가들간의 관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총회와 총회 의회에 의해 결정된 계획들을 수행합니다. ICRC 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ICRC 멤버들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회계감사단은 ICRC 를 감독하는 독립기구입니다.



#### 4. <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은 무력 충돌을 "국가 간 전투와 국내 무장단체들간의 전쟁, 또는무장 단체 간의 전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국가 간 전투는 국제적이며, 국가 내에서의 싸움은 비국제적입니다."또한, 국제 인도법의 기본 원칙은 인류, 구별, 비례 및 예방 조치입니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을 보호하고 전쟁 수행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전쟁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련의 규칙입니다. IHL 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쟁 수행 방식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칙을 제공합니다.

##### A.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규칙

-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규칙
- 민간인과 주택, 학교 및 역사적인 기념물과 같은 민간 건물들을 공격해서 안 됩니다
-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고문해서는 안 됩니다
- 인간 방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B. 포로로 잡힌 시민들과 적들은

- 포로로 잡힌 시민들과 적들은 충분한 음식, 물, 의복, 피난처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편파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는 예외입니다.
- 어린이와 여성들은 가능한 남성과 분리되어야 구금되어야 합니다.

##### C. 전쟁수행규칙

-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키는 무기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할 수 없는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전쟁 중 민간인으로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 D. 의무들

- 전투원들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 군사적 시설과 관련된 곳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 5. <국제 인도법 위반을 처리하는 방법>

- A. 사법 재판소: 국제 사법 기관 또는 국가 법원이 국제인도법의 위반을 처리합니다. 이 법원은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직은 국제 형사 재판소
- B. 정부: 정부는 중대한 위반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내법을 제정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대한 위반에 대한 혐의로 기소 된 사람들을 찾고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군 사령관이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 C. 군사령관: 그들은 국제인도법 적용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모든 국제법 위반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법률 위반을 보고하고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느낀 점>

##### **김승준,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국제 적십자 위원회를 생각하면, 저는 단지 의료 서비스와 필수품을 전달하는 간단한 국제 위원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적십자 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신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저는 이러한 위원회의 광범위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ICRC 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떠나 더욱 중요한 역할들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제 적십자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은 가족과의 연결 고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이나 중요한

구성원들과 분리된 많은 군인이나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ICRC는 전쟁 희생자가 가족과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항상 전쟁에서 국가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민간인의 상처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CRC가 수행한 또 다른 두드러진 역할은 인도주의 법을 제정하여 전쟁 중에도 특정 법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법은 민간인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무장세력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 중에 수많은 불필요한 폭력과 살인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는 아무런 법칙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사들은 위협조차 되지 않는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ICRC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전쟁 중 기본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불필요한 사망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ICRC 직원들의 강연을 듣는 것은 ICRC가 전세계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닌 진정한 국제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기구였습니다.





### 주민정, 한국국제학교

ICRC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ICRC가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국제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연을 듣고 나서 ICRC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CRC는 국제구호활동뿐만 아니라 소년병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부모님을 죽인 적들을 복수하기 위해 소년 병이 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CRC가 소년병들이 재활치료를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ICRC는 다방면적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소년병 역할을 맡아 연극을 하면서 소년병들의 안타까운 처지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병들이 하루 빨리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ICRC 강연을 들으며 친구들과 토의시간

[팀 프리젠테이션 자료]

## ICRC &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Day3  
MinJeong Joo, Ran Seo, SeungJun Kim, JeongMin Shin



# ICRC

### ICRC <Table of contents>

1. History of ICRC
2. History of Geneva Convention
3. Basic rules of IHL
4. Korean history & ICRC
5. Status quo of Korean Red Cross

Founder of ICRC



Henry Dunant

##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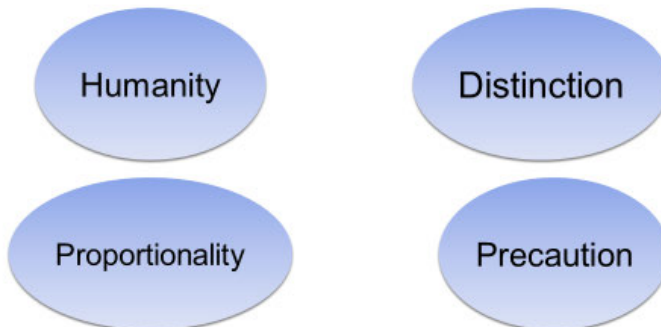
*“A Memory Of Solferino”*



## History of Geneva Convention

- 1864 •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 1906 •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 1929 •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 1949 •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 Basic rules of IHL



## Korean history & ICRC(1)



<Go-jong Emperor>

1. Korean Red Cross was established in 1905 during Empire of Korea.



<Japanese colonial era flag>

2. Korean Red Cross disappeared in Japanese colonial era(1910).

## Korean history & ICRC(2)



3. During the Korean war, the Korean Red Cros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usan.



POWERED BY Google + MAPS



- Red Cross members worked in Korea during the Korean War.
- 1960~1963

## Korea Now & ICRC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Table of contents>

1. The Permanent mission
2. Disarmament
3. Development / Delivery Support
4. Human rights
5. What now?

The Mission



Cho Tae-yul, the 25th ambassador

- Works with 193 organizations and representatives
- Representatives of South Korea
- Global affairs : global peace, humanitarian or human rights
- Contribution on various social issues, global peace and global economic development

The Mission

Organizations that are working / cooperating together



## Disarmament

[Geneva Disarmament Conference]  
2017.02.08



"I urge all of you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achieve CVID for nuclear weapons programme and abandonment of all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in North Korea."



## Development / Delivery Support



## Human rights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93~2006]  
Membe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Established in 2006]

What now?



What now?



What now?





## 5)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Tae-Eun Kang  
Lighthouse International School, Jun Young Hong  
Qingdao Chingwoon Korean School, Hyejin Chun  
Suwon Academy of World Languages, Jiwon Kim



스위스 제네바 유엔난민기구(UNHCR) 본부 앞에서

On the 2nd of September, 2015, there was a photo on the newspaper which struck the whole world into shock and guilt. A photo of a young boy, Alan Kurdi, lying face down on the beach of Turkey, was seen by 20 million people in just 12 hours. This triggered an international and global response together. Alan Kurdi was a Syrian refugee trying to reach Europe using a rubber inflatable boat. The Kurdi family and other 14 people were trying to reach the Greek island but the boat got capsized within five minutes. This photo soon became the stepping stone to make the world aware of the urgency of Syrian refugee crisis.

In the UN, there are countless of organizations that aim to help and improve refugee living standards. However, among all departments, there are two organizations that deal with refugees and migration: 'IOM' and 'UNHCR', both working to achieve humanitarianism.

### <What is Humanitarianism?>

Humanitarianism is an active belief in the value of human life, which aims to create better humanity for both moral and logical reasons. There are 4 principles of the humanitarian syste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ll member states have promised to keep these principles by signing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The four principles are as follows:

- ① Humanity – Suffering of human beings should be dealt with vulnerability regardless of place and should guarantee the least of human life, health, and dignity of human
- ② Neutrality – The humanitarian aid must not favor any side in an armed conflict or other dispute
- ③ Impartiality – The humanitarian aid must be provided solely based on need, without discrimination (age, sex, religion, nationality, and class)
- ④ Independence – Every political, economic, military and other objectives should be sovereign

### **Definitions:**

There are several terms frequently used throughout the lectures by both organizations. Migration: The movement of people to a new area or country, regarding the period and reasons (economic, political, family reunion etc.) – this can both be domestic and international

- ① Economic migrant: those who migrate to improve their living standards
- ② Refugee: Person who has been forced to leave their country to escape from war or persecution

### **Why do people migrate?**

There are lots of reasons behind migration. General reasons include economic, political, environmental, war, religious persecution, and cultural factors. We would like to share Brazil's migration case study to explain the reasons, push and pull factors and the challenges that migrants face after migration. Brazil is a big portion of South America, and the country stretches from the Amazon Basin in the north to massive Iguacu falls in the south. Internal migration has happened

in Brazil from the North to South. The north part of Brazil was weaker in the economy and there were fewer job opportunities available to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south of Brazil is an economic core, where there are lots of economic opportunities as they made lots of money through the coffee plantation in 1800-1900s.



### ***Push Factor***

- ① Extreme Climate
- ② Difficult access to trading links
- ③ Difficult access to water, x sanitation
- ④ Limited Education
- ⑤ E.g.: Caatinga – suffered from 10 years of drought + poor medical infrastructure

### ***Pull Factor***

- ① Fertile Soil
- ② Good access to ports for trading
- ③ Advance education
- ④ Western Lifestyle
- ⑤ E.g.: Sao Paulo – Crowded slum /favelas at the outskirts, in the city center, every household has a maid

The Brazil case focuses on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but Syrian refugees migrate due to religious persecution, safety, and political reasons.

### **What is IOM?**

'IOM' stands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t is a special organization as its structure is highly decentralized. This is a unique style that suits the work of IOM to be conducted efficiently. For example, when Typhoon 'Saola' battered the Philippines in 2016, IOM was the first to arrive at the Philippines among all organizations, arriving before 24 hours had passed. Due to the decentralized system, they can respond to the situation more quickly and are abl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people's needs, creating a more horizontal and agile environment.

Brief History of IOM – There are three significant events for IOM.

**1951** – The year of establishment, due to the chaos and displacement of Western Europeans following WWII – had low profile for a long time

**2015** – The year of dramatic change in the migration landscape – mass waves of migration in the shores of Europe – EU asking for help

In 2015, the French mayor made anti-migration comments about Muslims and also disapproved of Syrian refugees coming in. Furthermore, there were lots of lies in media containing very sensational approaches, such as 'Migrants are taking over our jobs and even the future'. These issues created huge conflicts and arguments between people, and the field of Migration arose,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IOM.

**2016** – IOM became part of the United Nations

IOM has worked closely with the UN a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but now, IOM has been raised to a new level of importance as well as receiving more recognition and advocacy.

**<What IOM Does>** - Managing Migration for the Benefit of all

There are four main areas that IOM works on:

- ① Assist migration challenges
- ② Advance understanding of migration issues
- ③ Encourage development through migration
- ④ Uphold the well-being of migrants

William Lacy Swing, the director-general of the IOM, phrases the word 'Migration' as '21st century's mega trend'. As now, 10 billion, 1 out of 7 people in the world, are migrants. Therefore,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crucial to change people's perception on migrants and protect migrant's minimum rights.

IOM came up with two campaigns to change the public's negative perceptions such as anti-migrant populism and xenophobia of migrants and also inform migrants of the alternatives to fatal journeys.

- ① 'Together' initiative – This is a global initiative led by the United Nations, which promotes respect, safety, and dignity for refugees and migrants and tries to counter the rise in xenophobia and discrimination. 'Together' uses social media and technology to promote community integration and share benefits of migration to economies and to the nations while also acknowledging the concerns of the host communities.
- ② 'I am a migrant' website – This a platform to promote diversity and inclusion of migrants in society by using the testimonies of migrants. It allows the voices of each individual to shine and provide honest and real, human stories about migration and their background. These anecdotes and memories help people to understand the true meanings of words like 'Diversity', 'Multiculturalism' and 'Integration'. Currently, there is one Korean migrant on the website, Jim Young,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sharing his stories of migrating to the states.
- ③ Refugee Cultural Festival – This is a festival celebrating Switzerland's national refugee day as well as world's migration and refugee day by sharing different culture and food with lots of engaging activities. This festival helps build bridges between the communities and different cultures.

### **Status Quo - Refugees**

There are 65.6 million people forcibly displaced, and it is one-tenth of the world's population. Among those who are displaced, 22.5 million, one-thirtieth of the whole population are refugees. The majority of refugees currently exist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where frequent combats occur. Afghanistan, Syria and South Sudan have the most number of refugees and emigrants.

Since the beginning of Syrian Refugee Crisis in 2011, over 4.8 million refugees have escaped from Syria and fled to nearby countries like Turkey, Lebanon,

Jordan and Europe for survival. However, this escap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y have a bright future since there are lots of unexpected difficulties waiting for refugees such as not being accepted to countries of arrival. Even if they are approved, they are not able to get the same benefits and welfare as the citizens and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find somewhere to settle and start fresh. Ethnic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also exist, especially in Europe.

The journey to Europe is very tough and dangerous. Those refugees need to travel more than days in a cramped boat with a limited amount of food and water, and no safety equipment. This does not guarantee their survival and most of the people die during the long journey due to a capsized boat just like Alan did.

### **What is UNHCR? – Geneva-based, Field-focused, People-oriented**

UNHCR stands fo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plays a crucial role in satisfying the basic needs of the refugees, saving precious lives and solving human rights abuse situations. It is a global humanitarian player, helping tens of millions of uprooted people with more than 10,000 staffs in more than 130 countries.

#### **< Brief History of UNHCR >**

##### **1945 – End of the WWII**

The history of UNHCR begins in 1945 after World War II ended. This devastating war resulted in more than 60 million deaths and a huge number of refugees. Those refugees moved to nearby countries to maintain their living and the sudden influx of population caused big chaos. There was a lack of resources and money to help both the refugees and their own citizens. Therefore, countries felt the necessity of a global-level effort to cope with the sudden influx of refugees. Countries together have made a resolution and this got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 **1950 – Establishment of UNHCR**

At first, UNHCR was supposed to close after 3 years, but it remains today as refugees are created continuously in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for various reasons

##### **1954 – The 1st Nobel Prize after retrieving the situation of WWII**

##### **1981 – 2nd Nobel Prize after retrieving the Vietnam War**

### <What UNHCR Does?>

UNHCR's work can be divided into six different categories:

- ① Protection – UNHCR helps the refugees not return to a country where they have chances of persecution upon arrival. Instead, they come up with a solution such as returning to their homeland, integrating with the country of asylum or resettling in the third country where they can start hopeful life
- ② Shelter – In extreme conditions, the presence of shelter decides life and death. Therefore, UNHCR provide tents, distributes plastic sheeting and develops emergency strategies, tools, guidelines to restore home like atmosphere
- ③ Advocacy – UNHCR tries to make people follow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areas of national politics, economies and social structure both in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country of asylum. This can result in protection of all people by UNHCR.
- ④ Health (most prioritized category) – UNHCR tries to minimize the death rate and morbidity of the refugees by cooperating with other health organization. They also stipulate that all refugees should have the same level of health care as ordinary people.
- ⑤ Safeguarding individuals – UNHCR tries to protect the individual's rights of refugees. They help people to form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to gain freedom from persecution or discrimination, by forming a community.
- ⑥ Education – Education can be often regarded as a luxury in the middle of survival, but UNHCR valu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bringing back hope and preparing for future. Therefore, even in an emergency situation, UNHCR has contributed hugely to the establishment of INEE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and providing active support.

### **Application of Humanitarian System in UNHCR**

As UNHCR is a UN body helping refugees under humanitarianism, they try to find permanent solutions that allow refugees to rebuild their lives and provide

necessary help. There was a unique humanitarian action by the UNHCR in 2016. 10 Refugee athletes have made history by competing in the 2016 Rio de Janeiro Olympic games as members of the first ever 'Refugee Olympic Team'. The true effort of UNHCR and International Olympics Committee's decision has led to opportunities for refugees to demonstrate their talents and achieve their dreams.

These refugees did not participate the game with their country of origin, but with the Olympic flag showing strong unity among themselves. Among those, there was one girl, Yusra Mardini, from Syria. When she was heading to Europe, the ship got wrecked while crossing the coast of Syria. As both her sister and her, have learned swimming from her dad, they jumped into the sea and swam for three hours and finally reached to an island in Greece. After surviving dramatically, she grabbed this chance of becoming an Olympic athlete and achieved her dream. Without the help of UNHCR and the Refugee Olympic Team, Yusra Mardini and other refugee athletes could not have participated in Olympic Games, show their talents and achieve their dreams. Wherever that person has come from, whatever stories that person has, they have same right to be treated equally and grab the second chance, showing their ability and achieving their dream.

### **IOM and UNHCR**

As written above, IOM and UNHCR work in the similar field of helping migrants and refugees a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They both work under the humanitarian system following the four principles, receiving the control of UN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IOM and UNHCR have signed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often collaborate. Recently, UNHCR, IOM and other partners have launched a new plan to respond to Europe's refugee and migrant situation. Furthermore, like IOM, UNHCR is also decentralized and have field offices all over the world.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organizations is the extent of whom and what they are dealing with. As mentioned in the name, UNHCR focus on providing help to those who have the status of refugees, whereas IOM helps a broader range of people, including non-refugees, economic migrants,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lso, UNHCR is a more protection based organization, where they respond to people who were left behind in countries, processing applications and determining who qualifies as a refugee and who does not. However, IOM works with refugees in relation to resettlement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rather than processing the application. Still, IOM and



UNHCR's work are complementary and the coexistence of these two organization is what makes our world more interconnected and understanding.

**<Overall Reflection>**

***Jun Young Hong, Lighthouse International School***

It was a worthwhile and remarkable time to learn about IOM and UNHCR. Due to this memorable experience, I think I am now one step closer to becoming a fully global minded student. Also, after researching about new materials like different principles of the humanitarian system, even things I thought I knew, came to me as a new information after hearing it from specialized experts. I hope someday I will be the one who makes this world a better place.

***Jiwon Kim, Suwon Academy of World Languages***

It was a very special and honorable day for me as I dreamed of becoming an international civil servant of UNHCR for a long time. Out of all sessions, UNHCR was the most helpful and interesting experience for me because I heard about UNHCR by a real officer of UNHCR. I can confidently say that this experience has become a strong motivator for my future dream. This lecture also helped me to expand my knowledge further into the more global field. Hopefully, this results in changing myself into a more active student who tries hard to reach the future dream of working in UNHCR.

***Hyejin Chun, Qingdao Chingwoon Korean School***

It was such a meaningful time which helped me to broaden my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Refugee crises, one of the greatest matters of the world. During these two lectures from IOM and UNHCR, I realized the whole issue about the refugee crisis is not an unrelated issue and that I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wards refugee issues. To quote from the UNHCR lecturer,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child can afford clean and drinkable water, well-balanced nutritious food for a month just with 1000 KRW" (1US\$ = 1200KRW). I learnt lots of global issues and decided to become a more responsible global citizen, by doing any small things that I can do for the issues. It was a good stepping stone for me to widen my perspective and I really thank two lecturers for giving me such unforgettable lectures.



***Tae-Eun Kang,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After getting the schedule for a week, I can proudly say day 4 was the one that grabbed my passion. IOM and UNHCR. This was a very precious opportunity for me as I was able to discuss the Syrian refugee issue with representatives from both IOM and UNHCR.

I was really into the lectures and extremely busy taking notes of every single information that the lecturers are giving because I did not want to miss anything. Little pieces of information such as the Banksy mural in Calais, complemented my existing knowledge and created a new mindset that allowed me to look at the world in a different approach.

I found out that anti-migration populism and xenophobia is a big problem that we are facing. Therefore, as a student who dreamed of becoming a diplomat for a long time, I will continue to grow my passion for global issues and hopefully create a more connected, welcoming and understanding community, regardless of one's nationality, age and gender. I thank the two lecturers for making my memories so special through amazing responses to my questions.

## 5) 유엔난민기구 & 국제이주기구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강태은  
 등대글로벌스쿨, 홍준영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전해진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김지원

2015년 9월 2일 신문에 전 세계를 충격과 죄책감에 빠뜨린 한 사진이 올라왔다. 아일란 쿠르디라는 터키 해변가에 엎드려 있는 어린 소년의 사진은 12시간만에 2천만 명이 보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대응을 찾도록 자극했다. 아일란 쿠르디는 부풀릴 수 있는 고무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오려던 시리아 난민이었다. 쿠르디 가족 외 14명의 사람들은 그리스의 섬에 도착하려고 했지만 배는 5분만에 뒤집어졌다. 이 사진은 시리아 난민 문제에 긴급함을 일깨워 주는 발단이 되었다.

유엔에는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고 돕는 많은 기구들이 있지만, 모든 부서들 중, 특히 난민들과 이민자에 대해 다루며 인도주의를 이루어 나가려 하는 국제이주기구와 유엔난민기구라는 두 기구가 있다.

### <‘인도주의’란 무엇일까? >

인도주의는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으로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를 통해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인간성을 창조한다. 국제 인도법에 따르면 인도주의 제도의 4가지 원칙이 있다. 모든 회원국들은 1949년 제네바 협정을 개정하여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네 가지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간성 -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다루어 져야 한다. 인도적 활동의 목적은 인간의 삶과 건강 그리고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 ② 공정성 - 인도적 활동은 오직 수요에 기초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가장 긴급한 사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적, 인종, 성, 종교, 계급, 정치적 견해에 상관없이 수요에 비례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 ③ 독립성 - 인도적 활동은 정치, 경제, 군사적 사항들과 관계없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 ④ 중립성 -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종교, 인종, 정치 또는 이념적 성격이 다르다고 하여 인도적 지원을 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

## <정의>

두 기구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쓰이는 몇몇의 용어가 있다.

- ① 이주: 새로운 장소나 나라로의 이동으로, 기간과 이유(경제적, 정치적, 가족 재결합 등의 요인)에 관하여 이것은 국내적일 수 있고, 국제적일 수도 있다.
- ② 경제적 이주자: 그들의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고자 이민한 자들이다.
- ③ 난민: 전쟁이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강제적으로 나라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

## <이민/이주를 하는 이유>

이주, 그 뒤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보편적인 이유로는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박해와 전쟁, 그리고 환경적이고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

브라질 이주의 경우를 추진요인과 흡인요인, 그리고 이주자들이 이주 후에 마주치는 어려움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나눠보도록 하겠다.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브라질은 북쪽으로 아마존 유역부터 남쪽으로 이과수 폭포까지 뻗어있다. 브라질의 국내 이주는 북부에서 서부로 많이 일어나왔다. 브라질 남부 지방은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커피 재배로 많은 돈을 벌음에 따라 경제적 기회가 많아진 경제적 핵심이다.



#### <추진요인>

- ① 극한 기후
- ② 무역의 어려움
- ③ 물을 접하기 어려움, 위생적이지 않음
- ④ 제한된 교육
- ⑤ 예시: 카팅가는 10년동안의 가뭄에 시달렸고, 열악한 의료시설을 가지고있다.

#### <흡인요인>

- ① 비옥한 토지
- ② 무역을 위한 항구에 접근하기 쉬움
- ③ 고등 교육
- ④ 서구적인 생활양식
- ⑤ 예시: 상 파울루-북적거리는 빈민가/ 변두리에는 빈민가가 있으나, 도시 중심에는 모든 집이 가정부를 가지고 있음

브라질 사례는 주로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집중되어 있으나, 시리아 난민들은 종교적 박해와 정치적 이유로 이주한다.

### 'IOM'이란?

'IOM'은 국제 이주 기구의 약자이다. IOM의 구조는 중앙 집권화 되어 있지않고 매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다. 이것은 IOM의 작업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구조방식 이다. 예를 들어, 2016년에 태풍 Saola가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 IOM은 그 느 기구보다 빠르게, 태풍이 강타한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필리핀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그들은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수평적이고 민첩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국제이주기구의 역사 - 국제이주기구에게 중요한 3개의 년도가 있다

**1951-** 설립년도로, 제 2차세계대전 후 서유럽의 혼란과 이동 때문에 설립되었다.

**2015-**이주의 풍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 해이다.

2015년, 프랑스 시장은 무슬림과 허가 받지 못한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이주반대를 옹호하는 말을 남겼다. 게다가, 이주자들이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접근을 포함한 거짓말들이 미디어에서 쏟아졌다. 이러한 문제는 사람들과 이주자 상승의 논쟁과 함께 큰 갈등을 일으켰고, 국제이주기구의 중요성은 강조되었다.

**2016-**국제이주기구가 유엔의 일부가 되었다.

국제이주기구는 유엔과 정부간기구로서 설립 후 부 터 긴밀하게 일해왔지만 지금, 국제이주기구는 더 많은 인지도와 옹호를 받음과 함께 새로운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국제이주기구의 임무-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이주를 관리한다>**

국제이주기구가 일 하는 4개의 주요 분야가 있다:

- ① 이주에 있어서 어려움을 도와줌
- ② 이주 문제에 대한 더 높은 이해
- ③ 이주를 통한 발전을 장려함
- ④ 이주자들의 건강을 유지시킴

국제이주기구의 심의장인 윌리엄 레이시 스윙스는 ‘이주’라는 단어를 천만, 세계의 1/7이 이주자인, ‘21세기의 메가트렌드’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의 이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주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제이주기구는 두 개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반이주자 포퓰리즘 같은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이주자들에 대한 외국인 혐오 인식들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이주자들에게 위험한 여정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 ① Together initiative- 이것은 유엔에 의해 추진된 세계적 계획으로, 난민과 이주자의 존중, 안전, 그리고 존엄을 촉진하고 외국인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노력을 한다. 함께 소셜 미디어와 기술을 사용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관심을 인정하는 동안 이주가 경제와 국가에게 주는 장점을 나눈다.
- ② ‘I am a migrant’ website -이것은 이주자들의 증언을 통해 다양성과 이주자의 사회에서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이주와 이주자들의 배경에 대한 솔직하고 진실된 인간적 이야기들을 비추고 제공하기 위해 각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Refugee Cultural Festival -이것은 다른 문화와 음식을 나누는 많은 관련 활동을 통해 스위스의 난민의 날과 함께 세계의 이주민과 난민들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이 축제는 지역 공동체와 다른 문화를 연결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현재 난민 상황

세상에는 6억5천6백만 명의 강제적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 이는 전 세계 70억 인구의 약 10분의 1정도를 차지하는 큰 수치이다. 또한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 중에 2억2천5백만 명, 즉 세계 인구의 30분의 1정도는 난민이다. 현재 세계의 많은 난민들이 불안정한 사회모습, 그리고 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해당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피난해 오는 3곳의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그리고 남수단이다.

2011년 시리아 난민사태 이후에는 4천 8백만 명의 난민들이 시리아에서 터키, 레바논, 요르단, 그리고 유럽으로 생존을 위해 도망쳐 갔다. 이것은 난민들에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크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들은 피난 간 제 3국가의 시민들과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때로는 민족적인 차별, 그리고 외국인 혐오를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롭게 정착할 정착지조차 찾지 못한 난민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유럽으로 도망쳐 가는 것은 매우 험하다. 성공을 위해선 비좁은 배 안에서 안전도구도 없이 한정된 양의 식량과 물 만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는 날들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아 새로운 정착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더욱이 아니다. 아일랜드의 그의 여정에서 끝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배 안에서의 여정에서 목숨을 잃는다.

## ‘UNHCR’이란?

UNHCR은 유엔난민기구의 약자이다. 그들의 역할은 난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소중한 하나의 목숨을 지켜내며 인권이 무참히 침해당하는 상황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온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도와 주는 세계적인 인도주의 선수로 현재 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130개가 넘는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있다.

## UNHCR의 역사



## 1945 - 세계 2차 대전의 종식

1945년 - 6천 만에 이르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이로 인해 수 많은 난민들이 발생한다. 난민들은 주변 국가로 피난을 갔고,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밀려오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 하지만 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식량이나 피난처, 그리고 각국의 재난은 턱 없이 부족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갑작스런 난민의 유입을 범세계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UN총회에서 난민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50 - UNHCR 설립. 원래 UNHCR은 설립 후 3년 간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기로 되어있었지만,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꾸준한 노력 없이는 지속적인 세계평화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현재까지 그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 1951 - 첫 번째 노벨상, 그리고 1981 - 두 번째 노벨상

UNHCR 은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51년, 그리고 베트남전쟁 이후인 1981년에 이은 총 두 번의 노벨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는 UN산하기구에서 유일하게 두 번의 노벨상을 받은 기구이다.

### <UNHCR 의 임무>

- ① 보호; UNHCR은 난민으로 하여금 그들이 종교적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국가로 원치 않게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그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한 국가로 망명 가거나, 제3국가에서 재정착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그들의 삶을 다시금 찾아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쉼터 제공; 어려운 상황에서의 단 하나의 쉼터는 누군가의 생존과 죽음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때문에 UNHCR에서는 텐트를 제공하고, 플라스틱 시트를 배분하며 응급상황 시의 도구들이나 행동요령 등을 개발 및 발전 시키고 있다.

- ③ 옹호 활동; 난민, 무국적자, 실항민 등을 위한 UNHCR의 활동들 중 옹호정책은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망명국과 출신 국 모두가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구조 면에서 국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을 통해 UNHCR의 보호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도움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한다.
- ④ 건강 관리; UNHCR은 모든 난민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보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들의 건강을 UNHCR의 우선과제로 다루고 있다. 때문에 다른 보건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난민들의 사망률과 질병률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⑤ 개인 보호; UNHCR은 그들의 집을 떠나 도망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박해나 차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이어주고,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그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 분쟁의 한 가운데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사치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교육은 난민과 같이 자신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고 삶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문에 UNHCR은 긴급상황에서조차도 교육의 중요성을 느껴 INEE(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의 창설에 관여했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 UNHCR의 인도주의

유엔난민기구는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난민을 돕는 유엔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난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재 건설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해결책들을 찾고, 실행하기 위해 도와준다. 2016년, 난민들을 위한 독특한 인도주의적 조치가 있었다. 8월 10일, 난민 운동선수들은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처음으로 난민 올림픽 팀의 멤버로 경기에 참여함으로써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유엔난민기구와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결정과 참된 노력은 난민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난민 선수들은 그들의 원래 국기가 아닌 오륜기를 걸고 경기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그 난민들 중에서는, 시리아에서 온 한 소녀도 있었다.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가던 중, 시리아 해변을 건너다 그만 보트가 난파되었다. 수영을 배웠던 그녀와 그녀의 언니는 3시간 동안 헤엄을 쳤고, 그들은 결국 그리스의 한 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극적으로 살아난 후에, 유스라는 올림픽 선수가 되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유엔난민기구의 도움과 난민 올림픽 팀이 없었다면, 유스라 말디니아와 다른 난민 올림픽 팀 멤버들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꿈을 이룰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인도주의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던,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던, 그들은 동등하게 대우 받고 두 번째 기회를 얻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꿈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 IOM과 UNHCR

앞서 말했듯, 국제이주기구와 유엔난민기구는 이민자와 난민들을 UN의 정부간 기구로서 도와주는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두 기구는 모두 인도주의의 4가지 원칙 하에서 일하고 있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OCHA)의 조정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 유엔난민기구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태이며 그들은 많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최근에,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는 다른 관련 파트너들과 함께 유럽의 난민과 이주 상황을 해결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착수했다. 게다가, 국제이주기구와 마찬가지로 유엔난민기구 또한 분권화 되어있으며 세계에 많은 현장사무소를 두고 있다.

두 기구의 주된 차이점은 그들이 다루는 범위이다.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유엔난민기구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박해나 전쟁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같이 오직 난민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집중하는 반면, 국제이주기구는 난민이 아닌 이주자, 경제적 이주자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도와준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나라에 남겨진 사람들의

보호에 더 중심을 둔 기구이고, 신청서를 처리하며 난민의 지위를 판단한다.



그러나 국제이주기구 난민들과 함께 재정착에 관하여 일을 하며 신청서를 처리하기 보다는 국내 실향민에 관해 일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이주기구와 유엔난민기구의 일은 보충적이며 두 기구의 공존은 우리의 세계를 더욱 결속시켜주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 <전체 소감 및 후기>

#### **홍준영, 등대글로벌스쿨**

Day 4를 발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발표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IOM과 UNHCR의 강연을 통해 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억에 남는 경험 덕분에 저는 이제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는 길에 한발짝 내딛게 된 것 같다. 또한, 인도 주의적 시스템의 여러 원리와 같은 새로운 자료에 대해 연구한 후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또한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난, 많은 정보들이 나에게 새로운 정보로

다가왔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김지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UNHCR 소속 국제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나로서는 이번 시간이 정말 특별하고 영광스럽게 느껴졌다. 실제 UNHCR 본부에 가서 현재 그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교육들 중에서 UNHCR 교육이 가장 유익하고 또 흥미로웠다. 나는 이번 경험이 나의 미래 꿈을 실현시키는데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고, 난민과 관련된 이해뿐만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지식들을 확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번 TP KOREA 10기 참가를 시작으로 앞으로 내가 꿈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서 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좀 더 능동적인 학생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전혜진, 청다오청운한국학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난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IOM과 UNHCR에서 두 강의를 듣는 동안, 나는 난민 위기에 대한 문제는 나에게서 동 떨어진 개념이 아닌란 걸 느꼈고, 난민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했다. UNHCR의 강의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한 달 동안 어린이가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과,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한국 돈 1000원이면 할 수 있다는 말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세계적 문제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국제 이슈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다. 이 강의는 나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었고, 이러한 잊을 수 없는 강의를 나에게 선물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 **강태은,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처음에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을 받고 나서 차근차근 그 날의 해당 기구를 살펴보니, 유독 마지막 날 이었던 Day 4가 내 주의를 끌었다. IOM과

UNHCR를 대표해서 나오신 강연지분들과 내가 학교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사했던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서로의 견해를 들어볼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나는 강연에 깊이 빠져들었고 내내 한 내용도 빠트리기 싫어 내용 정리를 하느라 바빴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들과 새로 배우게 된 작은 디테일 및 사례들, 프랑스 칼레에 있는 스티브 잡스 벽화의 의미 및 상징 등을 알게 되며 머리 속에서 퍼즐 맞추어 지듯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혐오 및 반 이민자 포퓰리즘이 지금 현재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후, 오랜 시간 동안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던 학생으로서 앞으로도 세계 이슈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미래에 지금보다 더 공존하는, 받아들이는,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는 세계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IOM과 UNHCR의 강연자이셨던 Amy Rhoades, 그리고 이원재 직원 분께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헛갈리는 컨셉의 질문들에 친절히 그리고 자세히 답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팀 프리젠테이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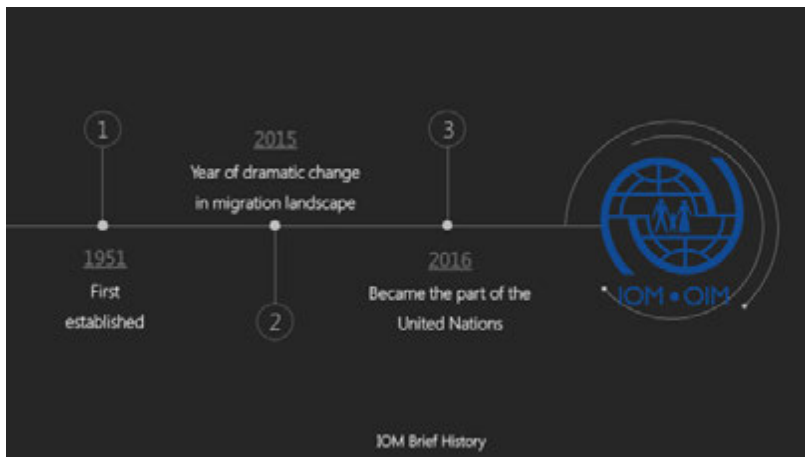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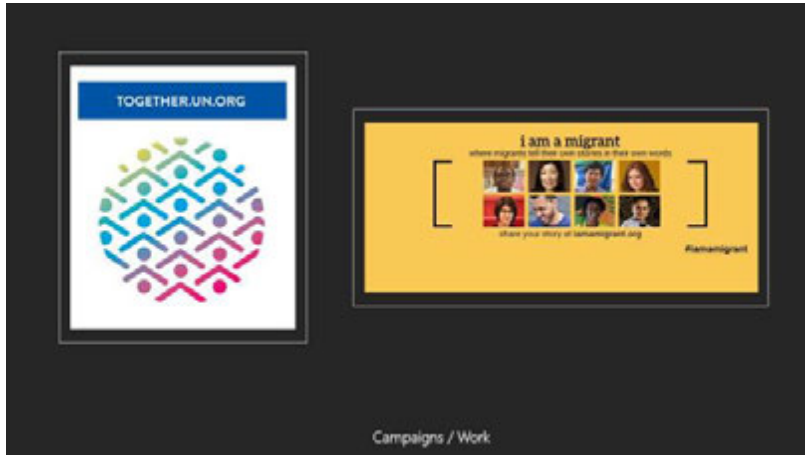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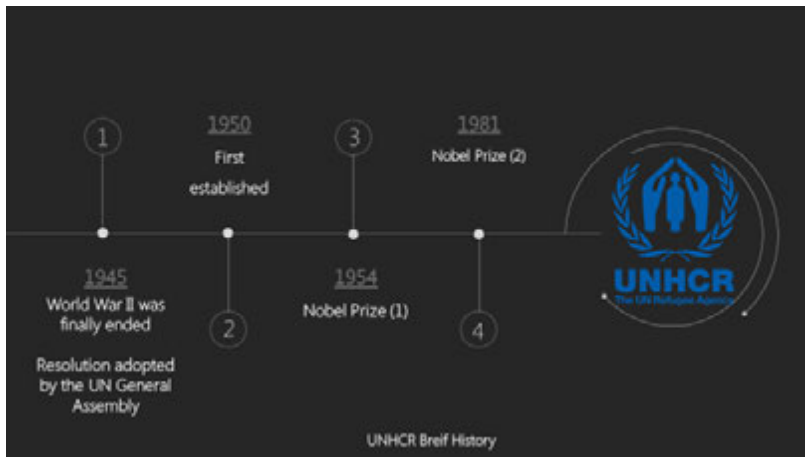
	"Migration"	the movement of people to a new area or country in order to find work or better living conditions
		<i>*Economic Migrant</i>
	"Refugee"	a person who has been forced to leave their country in order to escape war, persecution or natural disaster
	"Stateless"	those who are not recognized as part of citizen in an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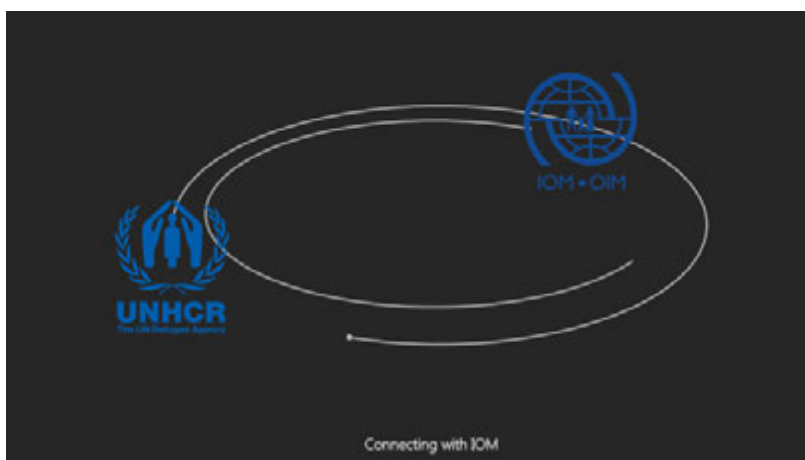
Definitions Source: Oxford Dic.





Campaigns / Work





## 6)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Jeonnam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Yoo Jin Kwon  
Anya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Hyunjai Park  
Myung 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Yaein Jung



With great expectations on visiting UN, we arrived at UNOG. First of all, we were informed of the schedules of the program, and received welcome remarks from WFUNA. After that, Hans Fridlund from UPR-info delivered a lecture about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Agenda.” Following the lecture, we had lunch time in the cafeteria of UN, then we listened to the lecture of Hermosa Jessica Anne from WTO. Among the valuable lectures of Day 1,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Agenda” and “The Introduction to WTO” will be introduced in this report.

###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Agenda

The world is currently facing refugee crisis. This crisis can be seen as a conflict between states concerning the danger of refugees, and the organizations which aim to encourage the migration of refugees. The states have the right to reject

the influx of migrants, and immigrants have the right to be guaranteed of happiness, so the refugee crisis is perceived as an insoluble task. Then what is the exact notion of conflict among rights prevalent in the global society, and what efforts are the countries doing to solve this?

### **1. HRC& UPR-info**

In 2006, UN Human Rights Council was established based upon the resolution from the UN General Assembly. The Council consists of 47 UN member states elected from the GA. The Council aims to guarante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Specifically, it monitors and prevents human right abuses, sets international standards to guarantee human rights, makes legitimately powerful organizations and fosters human rights. The Council holds a Special Session annually, and this conference is held at least for 10 weeks in Swiss Geneva at the third week of March, April, and June. Nations, civi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The notable characteristic is that there are independent human right advisories who report human right status in each country. The conferences and the resolutions are delivered to UN member states and the GA, and they may influence the government or policy making.

In 2007, after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as established, the Council's policy institution UPR was established based upon "Institution-building package." UPR is an acronym for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it monitors guaranteeing human rights in 192 UN member states. The monitoring conference is held every 5 years, and every year 42 countries are chosen to lead the conference in winter, summer, and autumn.

The most notable characteristic of this conference is peer review. UPR's conference method is to recommend policies to other countries through peer review without professionals who criticize and evaluate member states' human right guarantee status. The recommendations should be related with human rights and be able to be viable. However these recommendations have no coercion, so it can not compel countries to apply these recommendations. Another characteristic is that the conference is held through cooperation and mutual conversations, not criticism.

Every country aims to prevent human right violations than to criticize other countries' human right status. Then the doubt that the government will distort its human right status comes into mind. Fortunately UPR is maintaining its objectivity by allowing each country's shareholders and UNHCR agencies to participate in briefing the country's human right statu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UPR, which is excessive friendship among countries. A country can recommend vague or easy resolutions to countries with friendly relationships and recommend extremely specific and difficult policies to countries with which are diplomatically on bad terms. UPR's conference method displays impartiality but ironically includes inequality in indirect ways, so it can be said that this method is two-sided.



## **2. Human Rights in the UN agenda and the problem that UPR is facing**

The concept of human right appeared in the global community on December 10th, 1948, after the UN GA proposed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fter the World War II was ended,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announced to protect human's violated rights. This declaration stimulated 9 primary treaties which guarantee human rights. These treaties allowed UN member states to protect people's political, civil, social, cultural and sexual rights.

However, there were limits. The first was the collision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The second was the conflict between cultural relativism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laws can not infringe upon state sovereignty, s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an not compel the abolition of policies that violate an individual's human right. The notable example is Trump's anti-migration policy and the culture of honor killing in Israel.

### **3. Human Rights Game**

Despite of the basic information written above about human rights, it would still be difficult to apply the human right problems in real life. Also, many people only think of refugee or North Korea crisis when they hear the word 'human right problem.'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of prevalent human right violations, the most notable example being power harassment.

As economic disparity deepens, there are many cases of the rich treating the poor unjustly, but the media focuses on the rich's atrocities, not on the victim's deprived human right. Therefore, to inform people of human right problems not known to the public and to actually apply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in real life, we made the "human right game."

This game is a MUN style game that triggers the audience's active participation, and the agenda is "It is imperative that member states should alleviate economic disparity and power harassment through humanitarian approaches and domestic cooperation." 4 teams of three people were assigned to India, China, South Korea, and Germany. We gave out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recent income distribution status and provided the participants with examples of actual life power harassment cases.

After 5 minutes of discussion, each country proposed a solution to economic inequality in their country considering human rights. Their opinions were reflected in our resolution, which read:

- ① Equal status between entrepreneur and employee
- ② Decreasing the gap of information level between rich and the poor
- ③ Levying more taxes on the rich
- ④ Inform people more about inequality

#### **<Reflection>**

#### ***Yoo Jin Kwon, Jeonnam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I still remember the feelings when I listened to the first day's lecture of UN Training Program with a trembling heart. After listening bunch of new things about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I reflected myself only knowing the basics. I felt I was dreaming when visiting the UN's conference

room after the lecture. Lecture about World Trade Organization was my one of favorite. I could satisfy my curiosity I had before such as how the conference goes along. Also by asking the organization's position about current issues, I could compare opinions and values between my personal and the organization. Since the first day's lecture was my top interest and ideal organizations for me, I have made some specifics about my future course. Although the lectures stopped from organization's introductions and some specifics, it was a precious time for me to meet the practitioner of the institute, ask diverse questions, and take their advices.

All the lecture and question period made me harden myself to work much harder than now and come back to UN with great improvement. Teammates who were supposed to prepare the presentation and report was one of my best team I have ever met before. Even though I joined the team a little late, they welcomed me and tried to figure everything together. Thanks to them, I could do all activities with confidence and finished unforgettable presentation to all participants. For me, not only the first day but every 10 days were my best experience and time ever in my life.

### ***Yae-In Jung, Myung 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I was nervous and thrilled when I got to have my first training at UN. Although I had done many background research, I was no doubt very excited, but nervous at the same time. Due to this experience, I learned more about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s, and independent departments such as WTO, and UN's humanitarian system. It could be concluded that it was a funny and educative program. I can firmly say that the lecture about WTO was the best lecture during the 10 days, so I am honored to introduce WTO in this report.

Another thing that remains in my mind are my team member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preparation for the final presentation. However, with my friends' support and enthusiasm, we could finish our report and presentation flawlessly. I was happy to have all these good friends for 10 days.

This UN training program helped me a lot. It gave me new dreams about my future since I was dreary of studying and was idling without any definite goals. It gave me a wider perspective on the world. As a growing Korean youth, I now aim to study harder and return to UN departments. It was a great experience which influenced me a lot.



***Hyunjai Park, Anya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I remember myself thinking, "What if I don't understand the lectures, unlike other friends?" before the camp. Butterfly fluttered in my stomach as I entered the front door of UN on the first day. However, my concerns faded away as I heard a lecture about the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UPR. The speaker also informed us of how they manage a conference, and the limitations of UPR. The lecture let me consider the measures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is often referred to "a tiger without teeth." During the UN tour afterwards, we visited the conference rooms that we had seen on TV, and had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UN. The tour motivated me to take part in international agencies. The following was a visit to WTO, where my interest towards economics sprung to life as we learned about the agendas and policies of the organization. It was also a rar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and be answered by a professional, so I asked about actual examples of WTO policies applied in international society. It was satisfying to be informed of conflict between USA and China in the past years, and how WTO arbitrated between them. After these lectures, our teammates all participated actively for the presentation, and as a result, we could deliver a best presentation among our classmates. Not only preparing for the presentation but also having lots of personal conversations, this camp has been a perfect opportunity for networking, not to mention the knowledge we attained during the lectures.



## 6)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전남외국어고등학교, 권유진  
안양외국어고등학교, 박현제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정예인

유엔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제네바 유엔 본부에 도착한 우리는 가장 먼저 WFUNA의 축하 연설과 이번 프로그램의 스케줄을 안내 받았다. 그 후 UPR-info의 Hans Fridlund님께서 “국제 안전에 등록된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다. UN의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즐긴 후에는 UNOG 건물 내부를 투어하고, WTO로 이동해 Hermosa Jessica Anne님의 강연을 들었다. 모두에게 유익했던 첫날의 강연들 중, “국제 안전에 등록된 인권”과 “WTO에 대한 소개”를 이 보고서에 다뤄볼까 한다.



## 국제적 안건 속의 인권

현재 전세계는 각종 인권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난민 문제를 예시로 들자면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우려하는 국가들과 난민의 이주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기구들의 갈등이 있다. 국가들에게는 난민들을 거절할 권리가, 난민들은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에 이는 아직까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국제 사회에 각종 권리 간의 충돌을 가리키는 명칭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 1.HRC와 UPR-info

2006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바탕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설립되었다. 이사회는 유엔 총회에서 선발된 47개의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권 유린의 상황을 감시하며 방지하고, 인권 보장의 국제적인 기준을 세우며, 합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기구들을 설립하고 인권 보장을 본격적으로 촉진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1년에 1번 특별 회의를 개최하는데, 3월, 4월, 그리고 6월의 셋째 주까지 최소 10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다. 회의에는 국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이 참여하는데, 그 중 특이한 점은 회의마다 주제별 관점에서 인권을 보고하고 조언하는 독립된 인권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이다. 회의주제에 관련된 산업이나 정책이 발달된 나라들의 조언을 반영하거나 주제에 관련된 시의 기관들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진다든 점 또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회의의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과 유엔 총회로 전달되며 각국의 정부나 법안에 영향을 미친다.

유엔이사회가 설립된 이듬해, 2007년에는 “기관 형성 결의”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정책 기구인 UPR이 설립되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2개국의 인권 보장 상황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데, 검토 회의는 5년마다 진행되며, 매해 42개국을 선정해 겨울, 여름, 가을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동료 비평으로 진행된다는 점인데, 모든 국가의 인권 보장 상황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없이 각 국가들이 서로에게

권고하는 것이 UPR의 진행 방식이다. 이 때 다른 국가가 권고한 방안은 인권 보장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각국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참고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비판이 아닌 협력과 상호적인 대화를 중점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국제 사회가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가의 정부가 자국의 인권 상황을 왜곡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UPR에서는 각국의 시민들과 UNHCR의 에이전시들도 브리핑에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해 보이는 UPR에도 한계점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들의 지나친 정치적 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자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게는 모호하거나 실행하기 쉬운 정책을 권고하고, 외교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에게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을 권고하는 것이 그 예이다. 공정함을 표방하지만 어느 정도의 불평등함을 내포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강제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 UPR의 회의 방식이야말로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겠다.



## 2. UN안건에서의 인권과 UPR가 겪고 있는 문제

인권이라는 개념이 국제 사회에 등장한 때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된 이후이다[2]. 전세계를 파멸로 몰아넣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침해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포된 세계 인권 선언은 후대에 인권 보장의 9개 중심 조약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경제적, 정치적, 공민적, 사회적, 문화적, 성적 권리 등을 다룬 9개의 중심 조약은 유엔 회원국들이 각 국민들의 권리를 본격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끔 하였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첫째, 국가의 주권과 인권 보장의 충돌, 그리고 둘째, 문화 상대주의와 권리 보장의 충돌이다. 국제 기구와 국제법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기에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국제 기구가 정책 폐지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한계의 핵심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들 수 있다.

또한, 인권을 침해하는 한 나라의 문화를 문화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딜레마가 두 번째 한계의 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스라엘의 명예 살인 문화가 있다. 이처럼 국제 기구의 강제성 부재와 국가의 주권 존중으로 인해 막을 수 없는 인권 침해는 UPR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 3. 인권 게임

지금까지 인권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알아보았는데, 실제 생활에서 인권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난민 문제나 북한 주민 문제 외에도 인권 침해 문제는 우리 주변에도 산재해 있으며 여기에는 갑질 문화도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언론은 부자들의 만행에 초점을 맞출 뿐,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 침해는 다루고 있지 않다. 우리 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권 문제들을 알리고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부터 해결책을 적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 게임”을 만들었다.

MUN 형식의 일부를 반영하여 청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안건은 “인도주의적 접근과 국내 협력을 통해 회원국들은 빈부 격차와 갑질을 줄여야 한다” 로 세웠다. 3명씩 한 조로 총 네 조를 만들었으며, 각각 인도, 중국, 한국, 독일을 배정하였고 그 나라의 현 소득 분배 상황 및 경제 불평등 현황과 실제 갑질 사건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했다.

5분 동안의 토의 후에, 각국은 인권 보호를 고려하며 자국의 빈부 격차를 해결할 방법을 내놓았다. 그 방법들을 취합해 결의안이 완성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경영자와 직원 사이의 공정한 관계
- ② 부자와 빈자 사이의 정보 수준 차이 해결
- ③ 부자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청구
- ④ 사람들에게 불공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 제공



WFUNA 강연자 Nikolaos Kyfonidis 님에게 TP: Korea 10기 수료증을 수여 받으며

## 7)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Jeonnam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Yoo Jin Kwon  
Anya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Hyunjai Park  
Myung 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Yaein Jung



### 1. Introduction

In today's world, globalization is reaching out to even infinitesimal parts of the globe, and the concept of 'trade' is becoming important than ever. We can see this by looking at the number of FTAs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the records of WTO, in 1976 there were only 2 notified FTAs, but in 2016 that number increased to 138. Showing the burgeoning growth.

In this new era where trade is essential for co-existence among countries, the role of WTO is emphasized as well. Considering that WTO is the only authoritative trade management institute, there is an imperative need to take an elaborated look into WTO.

## **2. Trade**

According to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trade is the activity of buying and selling or exchanging goods and services between people or countries. Trade can be classified into two: open trade and closed trade. Open trade is the act of lowering the country's trade barriers while closed trade is closing the doors to other countries. Open trade is more advantageous because it benefits in three dimensions. For consumers, they can be provided with a wide variety of products for a rational price. For economies, open trade can activate global and local economies in a positive way. In 2015, global trade produced 16.5 trillion dollars in profit, which was 9 times the economic output of the United

States. For societies, open trade can lead to struggles for climate change prevention, gender inequality solution, poverty resolution, etc.

There are 5 principles of open trade according to the lecture:

- ①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 ② Open, fair trade.
- ③ Non-discrimination.
- ④ Exemptions for the environment.
- ⑤ More beneficial for less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se are the five main principles of trade defined by WTO. If a country violates any of these principles, then WTO may intervene and take action to solve this violation. This is the overall review of trade and the framework of it. Now, we have to move on to the real topic: WTO.

## **3. WTO – what is it?**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is the only glob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aling with the rules of trade between nations. The fundamental element of WTO is the WTO agreements, which set the trading rules negotiated between countries. Its main goal is to help trade flow as fluently as possible, while consid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official terms, it aims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to provide the forum for negotiations, to dispute settlement, and to enforce coherence in global policy making.

In the 1920s and 30s, US decided to close trade and not import because they wanted to liven up the country's autonomous liability. However this was a disadvantage to other nations, so other nations closed the doors to retaliate. As



a result, 25% of the global trade was frozen from 1929 to 1932, and it resulted in the Great Depression. To solve this catastrophic situation, nations began to trade again. After this painful experience, nations agreed that this should not happen again, so they formed the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promised they would not close trade so easily as then.

However this agreement had a meager effect on actual trade, so in 1982 countries convened and studied the articles of GATT, which is called the Uruguay Round. In 1994 countries finally announced the Marrakesh Agreement based on GATT and founded the WTO in 1995. There are currently 164 members including the countries and independent cities like Taipei, Hong Kong. These members are the owners of the WTO, and they lead 98% of world trade.

Among these members, there are special members called the Secretariat. It is a group of 634 professional individuals under the lead of the WTO Director-General. Its primary roles are to supply technical and professional support for various councils and committees,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for less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o monitor and analyze developments in world trade,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the media and to organize the ministerial conferences. The ministerial conferences are annual meetings where all member states convene to discuss important trade issues.



#### 4. WTO's functions

WTO has four primary functions: trade negotiation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dispute settlement, and building trade capacity. The main function is 'dispute settlement' function. Disputes happen when there is violation or fault with the trade laws. The main steps are: consultation – panel investigate – panel report – appellate report – compliance & arbitration. This is shown through the instance of China and the rare earths minerals.

Rare earths minerals are essential in making electronic gadgets such as cell phones. China controls 97% of this mineral production, but in 2012 US filed a case to the WTO court that China is not exporting all its rare earths resources. This is the consultation process. China of course retorted, but WTO nonetheless investigated China's trade. This is the panel investigate process. In 2014, the WTO ruled against China, which is the panel report process. China tried to appeal back in the appeal and appellate report process, but later succumbed and exported all the minerals again. This is the compliance and arbitration process.

However the problem of this function is that it takes too much time. In case of China, it took 2 years for the WTO panel to investigate. It would be a lot better if the whole procedure was simplified so that conflicts could be solved quickly and global trade flow without disruptions.



## 5. WTO's future, and the main issues

With Trump leading the US and many changes in the trade market, WTO will have a lot to decide. In the following ministerial negotiation this year in Buenos Aires, Internet trade will be mainly discussed. There are some issues to think about Internet trade.

The first is E-commerce. In the trade dimension, the problem of E-commerce is 'standardization' and 'barrier.' In China, Facebook and Google cannot be circulated in the market, so how global standards upon these social Medias should be laid down? Also, could this ban on social media be seen as a trade barrier?

The second is 3D printing. Let's say that one's arm is hurt, so he decides to use a robot arm. He orders the arm in Korea, but the construction of that arm is made in Europe. Should this be taxed? How should tax be levied in 3D printed products, or necessary parts of the 3D printer?

These questions need a worldwide, existential reflection on the overall trade. Now the new era of Internet communication is coming closer and closer. It is necessary that Korean youth be educated more about WTO so that they can lead the world trade in the future.

### <Reflection>

#### *Yoo Jin Kwon, Jeonnam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I still remember the feelings when I listened to the first day's lecture of UN training program with trembling heart. After listening bunch of new things about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I reflected myself only knowing the basics. I felt I was dreaming when visiting the UN's conference room after the lecture. Lecture about World Trade Organization was my one of favorite.

I could satisfy my curiosity I had before such as how the conference goes along. Also by asking the organization's position about current issues, I could compare opinions and values between my personal and the organization. Since the first day's lecture was my top interest and ideal organizations for me, I have made some specifics about my future course. Although the lectures stopped from organization's introductions and some specifics, it was precious time for me to meet the actual people of the institute, ask diverse questions, and take their advices.

All the lecture and question period made me harden myself to work much harder than now and come back to UN with great improvement. Teammates who were supposed to prepare the presentation and report was one of my best team I have ever met before. Even though I joined the team a little late, they welcomed me and tried to figure everything together. Thanks to them, I could do all activities with confidence and finished unforgettable presentation to all participants. For me, not only the first day but every 10 days were my best experience and time ever in my life.

***Yaein Jung, Myung 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I was nervous and thrilled when I got to have my first training at UN. I did read background information but didn't know many things, so I was worried. Due to this experience, I learned more about UN departments and independent departments such as WTO, and UN's humanitarian system. It could be concluded that it was a funny and educative program. I can firmly say that the lecture about WTO was the best lecture during the 10 days, so I am honored to introduce WTO in this report.

Another thing that remains in my mind are my team member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preparation for the final presentation. My English is not that good, so I worried about harm I can do to our team. However, with my friends' support and enthusiasm, we could finish our report and presentation flawlessly. I was happy to have all these good friends for 10 days.

This UN training program helped me a lot. It gave me new dreams about my future since I was dreary of studying and was idling without any definite goals. It gave me a wider perspective on the world. As a growing Korean youth, I now aim to study harder and return to UN departments. It was a great experience which influenced me a lot.

***Hyunjai Park, Anya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I remember myself thinking, "What if I don't understand the lectures, unlike other friends?" before the camp. Butterfly fluttered in my stomach as I entered the front door of UN on the first day. However, my concerns faded away as I heard a lecture about the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UPR. The speaker also informed us of how they manage a conference, and the limitations of UPR. The lecture let me consider the measures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is often referred to "a tiger without teeth."

During the UN tour afterwards, we visited the conference rooms that we had seen on TV, and had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UN. The tour motivated me to take part in international agencies. The following was a visit to WTO, where my interest towards economics sprung to life as we learned about the agendas and policies of the organization. It was also a rar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and be answered by a professional, so I asked about actual examples of WTO policies applied in international society. It was satisfying to be informed of conflict between USA and China in the past years, and how WTO arbitrated between them.

After these lectures, our teammates all participated actively for the presentation, and as a result, we could deliver a best presentation among our classmates. Not only preparing for the presentation but also having lots of personal conversations, this camp has been a perfect opportunity for networking, not to mention the knowledge we attained during the lectures.

## 7) 세계무역기구

전남외국어고등학교, 권유진  
안양외국어고등학교, 박현제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정예인

현대 국제 사회에서 세계화가 지구 곳곳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무역”의 개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WTO의 기록에 따르면, 1976년에는 알려진 자유무역협정의 개수가 단 2개였으나 2016년에는 그 수가 138개까지 증가하였다. 나라들의 공존을 위해 무역이 필요한 현재의 새로운 시대 속에서, WTO의 역할의 급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이다. 짧은 역사를 지녔음에도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유일한 권위적인 무역 관리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WTO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 1. 무역

캠브릿지 영어사전에 따르면, 무역이란 사람들이나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를 지칭한다. 이 완벽한 정의를 기초로

하여 무역에 대한 분류로 넘어가보면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이 있다. 자유 무역은 국가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행위인 반면, 보호 무역은 타국과의 거래를 줄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유 무역은 소비자,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보호 무역보다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자유무역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방면에서는 지역 경제와 국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는 2015년에 국제 무역이 미국의 경제적 생산량의 9배인 16.5조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방면에서는 기후 변화의 예방과 성차별 근절, 기아 해결 등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이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강연자 Anne에 따르면 자유 무역에는 다음 5개의 원칙들이 있다.

- ① 무역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 ② 자유롭고 공평한 거래.
- ③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무역.
- ④ 환경을 위한 예외의 적용.
- ⑤ 후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혜택

이는 WTO가 정한 원칙들로 만약 한 국가가 이 원칙들 중 하나라도 따르지 않는다면, WTO에게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부여된다. 이것이 무역과 무역기구의 개괄적인 틀이다. 이제 WTO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 2.WTO란 무엇인가?

WTO는 국가 간의 무역 규칙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WTO의 기본적인 요소는 WTO 협상으로, 대화를 통해 국가간 무역 규칙을 설정한 것이다. 기구의 핵심 목표는 무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는 동시에 아무 문제없이, 가능한 한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WTO는 나라 간에 협상한 정책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협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정책을 제정할 때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미국은 자국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수입을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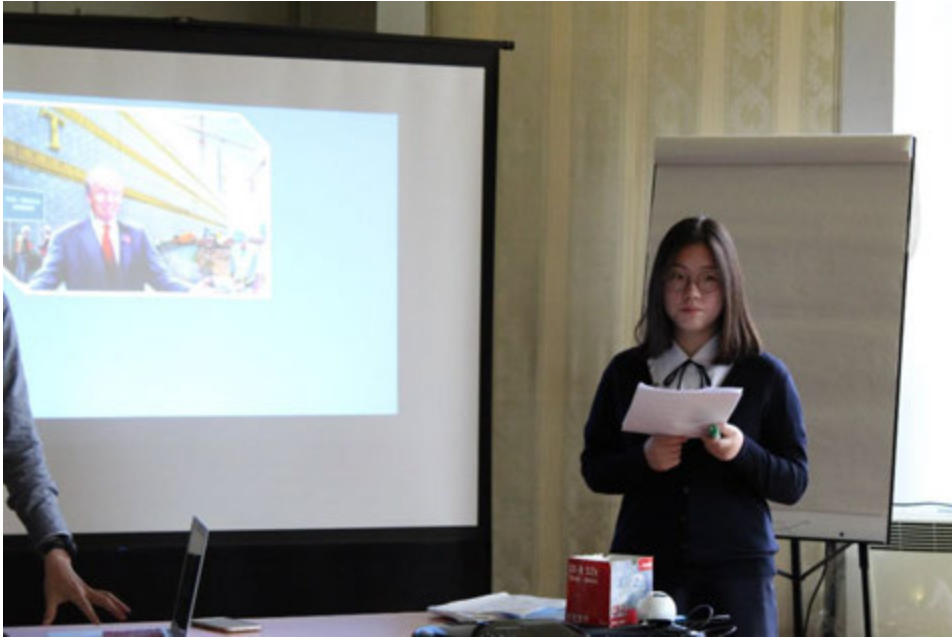
않고 보호 무역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타 국가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결국 캐나다와 유럽,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복수하기 위해 미국을 따라 하였다. 그 결과 1929년부터 1932년까지 3년간 약 25%의 국제 무역이 동결되었고, 실업률과 빈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경제 대공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 파국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무역을 다시 시작했으며, 국가들은 쓰라린 경험 이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래서 GATT가 세워졌고, 모든 국가들은 돌연 보호 무역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실제 무역에 미약한 효과를 끼쳤고, 결국 1982년에 국가들이 모여 GATT의 항목을 다시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루과이라운드이다. 1994년, 마침내 국가들이 마르케시 협정을 맺은 뒤, 1995년에 WTO가 설립되었다. 현재 여러 국가들과 타이페이, 홍콩과 같은 독립적 도시들로 구성된 164개의 회원이 WTO의 주인이자 관리인이며, 98%의 국제 무역을 이끌어간다.

회원국들 사이에 비서라는 특별한 회원이 있는데, 이는 WTO 국장의 주도 하에 634명의 전문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비서들의 주된 역할은 다양한 회담과 위원회를 위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게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제 무역의 발전을 관리하고 분석하며, 대중과 대중매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관 회담을 조직하는 것이다. 장관 회담이란 모든 회원국들이 당시의 중요한 무역 사안들을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정기적인 회담이다.

### 3. WTO의 기능

WTO는 4가지 중심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역 협상, 실행과 검토, 분쟁 처리, 무역량을 늘리는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분쟁 처리”의 기능이다. 분쟁은 무역 법을 어기거나 결점이 발견되었을 때 일어나므로, 담화를 통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WTO의 법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때의 진행 순서는 협의-전문가의 조사-전문가의 보고-항고심사-순응과 중재이다. 이 절차는 중국 희토류의 예시에서 잘 드러난다.



희토류는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데에 필수적이다. 중국이 생산의 97%를 차지하지만, 2012년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이것이 협의 과정이다. 당연히 중국은 항변했지만 WTO는 중국의 무역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전문가의 조사 과정을 시행했고, 2014년 전문가의 보고서에서 WTO가 중국에게 불리한 결의를 하였다. 중국은 항고심사 과정에서 항소하려 했지만, 결국 굴복하여 희토류를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순응과 중재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문제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위의 사건 같은 경우, 전문가의 조사과정에서만 2년이 소요되었다.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고 국제 거래가 장애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단히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 **4. WTO의 미래와 주요 이슈**

트럼프가 미국뿐만 아니라 무역 시장의 변화를 이끌게 되면서, WTO는 현재 상의할 것이 많을 것이다. 또한 금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장관 회의에서는 인터넷 무역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인터넷상 무역에서



고찰해 볼 만한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다.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이다. 무역의 관점에서 보자면, “접근성”과 “장벽”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시장에 허용되지 않는데, 이런 소셜 미디어에 대한 국제 표준은 어떻게 규정될 것인지,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금지시키는 것은 무역 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예정이다.

두 번째는 3D 프린팅이다. 한 사람이 팔을 다쳐, 로봇 팔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그는 한국에서 로봇 팔을 주문하지만, 팔의 제작은 유럽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관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3D 프린팅된 제품이나 3D 프린터의 부품들에 관세는 어떻게 징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국가들이 이론하고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질문들은 전반적인 무역과 그 역사를 세계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게 한다. 인터넷 소통의 새로운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 한국 청소년들이 미래에 세계 무역을 주도할 수 있도록 WTO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 <소감>

### **권유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UN 본부 교육 첫날에 대한 떨리는 마음으로 강연을 들었을 때의 감정은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인권 이사회와 UPR의 역사와 회의 진행방식, 특징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은 단순히 기본지식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명을 들은 후 본부의 회의실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다. WTO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신 강연 또한 내가 캠프 내내 가장 좋았다고 느낀 강연 중 하나였다. 본 기관에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갖고 있던 궁금증들을 풀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입장까지 많은 질문을 해 기관의 입장과 내 개인적인 생각, 가치관을 비교해보며 진로를 생각해보기도 했다.

비록 강연들이 전반적인 소개에 그쳐서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 사소한 질문까지 할 수 있었고 직원들이 기관에

대해 갖고 있는 솔직한 의견까지 들을 수 있어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모든 강연과 질의응답들이 지금부터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발전된 모습으로 UN에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굳혀주었다. 발표와 보고서를 준비하게 된 조 또한 이번 캠프에 있어 최고였다. 예상치 못한 일로 마지막으로 팀에 합류했지만 조원들이 환영해주고 불편할 수 있었을 텐데 열정을 갖고 모든 일을 같이 하려고 했다. 조원들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질문도 하고 이번 캠프에 참여한 그 누구에게도 잊혀지지 않을 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유엔 교육의 첫날뿐 만이 아닌 10일간의 캠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경험이었다.

### **정예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UN 본부에서의 첫 교육이라 많이 긴장하고 떨렸던 것 같다. 사실 UN 배경지식을 탐독은 했지만 여전히 아는 것이 별로 없는 편이라 걱정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다양한 UN 기구들과 WTO 같은 독립적 전문 기구들, 그리고 UN의 인도주의적 지원 시스템에 대해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요약하면 되겠다. 특히 WTO에 대한 강연은 10일 동안 들은 강연들 중 가히 최고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WTO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최종 발표를 위해 열심히 수고했던 우리 조원들이다.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 조원들에게 누가 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조원들의 응원과 열정으로 보고서와 발표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어 보람차다. 10일 동안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정말 좋았다. 이번 UN 교육 프로그램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한창 공부에 지쳐 방황하던 나에게 진로에 대한 새로운 꿈을 심어 주고, 세상에 대한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해주었다. 자라나는 한국 청소년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여, 나중에 UN 기구에 돌아오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경험이었다.

### **박현제, 안양외국어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전 많은 조사를 했지만 친구들에 비해 강의를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했던 게 기억난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UN으로 향한 첫날, UPR의 특징과 회의 진행 방식, 그리고 인권 보호의 한계점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내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UPR에 대한 강의는 나에게 국제

기구의 역할과 한계점을 깨닫게 해주었고, 강제성이 없어 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실행시키지 못하는 UPR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UN 투어에서는 TV에서만 보던 회의장을 직접 방문하며 UN의 역사와 설립 배경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고, 전 세계를 위해 일하는 국제 공무원이 되고 싶은 나에게 동기 부여가 되었다. 투어 후에 방문한 WTO에서 알게 된 WTO의 역할과 정책들, 그리고 법률위반에 대한 처벌방식을 통해 경제 분야에 대한 나의 관심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또 일상생활에서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주신 강연자에게 감사 드렸다. 특히 정책의 실질적인 적용에 대해 여쭙본 나에게 중국과 미국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주신 것이 인상 깊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설명해주시니 더욱 이해가 수월했다. 이처럼 곤란한 질문들에 대답해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심화 개념을 설명해주신 점이 마음에 들었다. 만족스러운 강연을 들은 후 발표를 맡게 된 우리 조는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세 명 모두 발표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열정적으로 준비한 끝에 최고의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발표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도 나누고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이 캠프는 국제 기구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기회까지 제공한 최고의 경험이었다.



<팀 프리젠테이션 자료>



## World Trade Organization

### “Flow Fluently”

-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 Provide the forum
- Dispute settlement
- Enforce coherence in global policy m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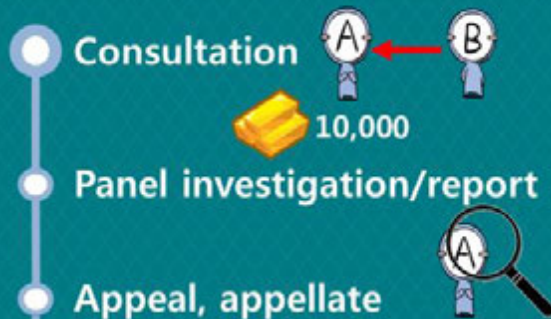
## World Trade Organization

GA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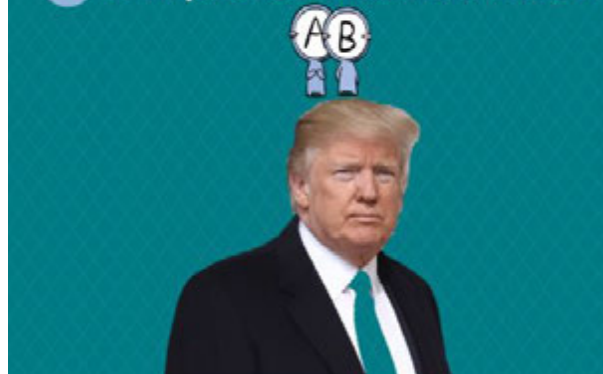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64 members  
98% of Global Trade

### “Dispute Settlement”



### ● Compliance and Arbitration



## “Human Rights”



### Human Rights Council

Monitor human right  
abuses

Set international  
standards

Make  
organizations



Make  
organizations



## Universal Periodic Review

### Universal Periodic Review

Held every 5 years, 42 countries

### Peer Review

Cooperation and mutual conversation

### Limitations

Not Mandatory

No interference in  
**State Sovereignty**  
&  
**Cultural Relativism**



## Agenda

It is imperative that member states should alleviate **economic disparity** and **power harassment (갑질)** through humanitarian approaches and domestic co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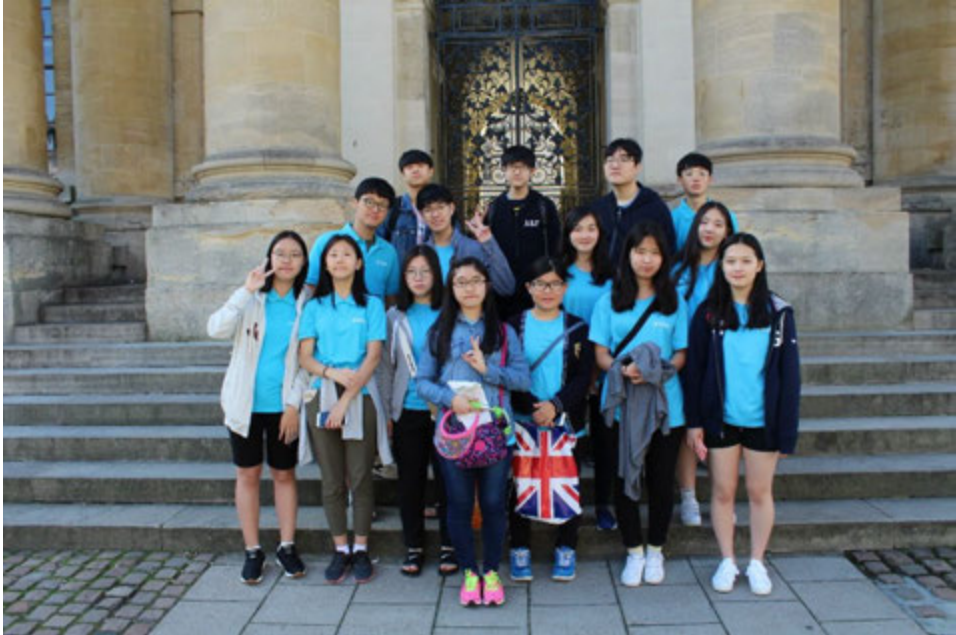
# 05.

## University Tours

### 영국 대학 탐방

- University of Oxford 125
- University of Cambridge 144

## 1) University of Oxford



### Branksome Hall Asia, Ran Seo

Fans around the world who read Harry Potter make such a wish once. It is to see the mysterious and beautiful Hogwarts School. Instead of visiting the magical school that only exists in our imagination, the UN program members visited a University that is similar to the Hogwarts. On the last day in England, we visited the Oxford University, which became a model for the school of fantasy. To be honest, I could not recognize the university at a glance even though I was nearby. Before I met the guide, I was not aware of Oxford University, which was right behind me, while I was taking pictures for a while. The entrance to the university seemed to be part of the village, naturally permeating the color and atmosphere of the surrounding buildings. It was not until I met Stuart, a guide who was born in Oxford and graduated from college. In fact, the old university has created a bundle of existing universities, so the boundaries between towns and universities are not clear. The town is soon Oxford, and Oxford is the town.

Oxford is a town that became famous, as Oxford University's reputation became known. It was known as the first educational center in England, but education was an unpleasant topic for the villagers. At the time when only privileged people

were able to study, students were given a majority of the time they did not. It is said that today's Oxford University was founded when 38 small-scale universities were established to protect them when the students were killed. Pointed steel bars protected some of the windows and there were also legs designed to move to other universities late at night. As time has passed, nowadays anyone who wants to go to college can go to college, but the atmosphere of the town at that time, which was dangerous because students are students, still permeates the university.

In the center of the university there was a main library called Camera, which means room. The library's books have accumulated copies of all published books in Britain for 400 years. In addition to literature, Oxford University has many well-known students who have graduated from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I was surprised when I noticed that inconspicuous buildings were the college where famous politicians were attending, or the library used by the author of the <Lord of the Rings>. It was like treasure hunting to know hidden stories in every corner, every corner. The historical streets of Oxford Street I walked in were the same. At another time, in the same place, I watched and watched the traces of great graduates and spent a curious time. If you knew more about the history of famous people before visiting Oxford, you would have had a better time in Oxford. Gothic style universities that were very refined and delicate evoked the illusion that I was on a time travel to the nine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Old bricks, stained railings showed signs of those years. The mossy backdrop of the building walls and the faded building decor seemed to tell the age of the university. In addition to the facade of the buildings, Oxford's age is felt through the university tradition that still continues. An example is the tradition of wearing formal socks when they take the test, the traditional graduation clothes, and the day-to-day college banque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does not keep the tradition, but Oxford thoroughly requires new students to keep it. Some students said that it is not right to adhere to this rigid tradition. But I would like to applaud Oxford University for choosing the classic way rather than forgotten tradition history. Of course, keeping tradition makes the limits of freedom, but I think it is important to keep the university's unique history. It was not easy to keep tradition for 900 years, so I felt great efforts to keep the University's history. Sometimes it is because the high figure is keeping orthodoxy and shining.

The highlight of the visit to Oxford University was the presentation of the university TA, Seung Hun. At the briefing, I could not ask the crazy guide, and I could find out more about the story. Starting in 1096, Oxford University became the cradle of education for 900 years. The most surprising thing about such universities was a college graduate. About 26 British Pr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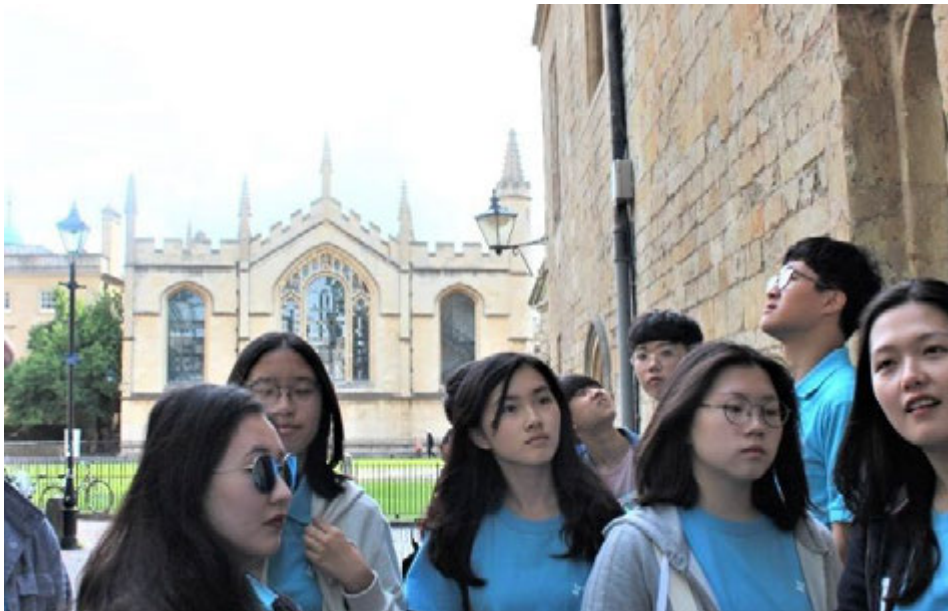
Ministers, 30 international delegates, 50 Nobel Prize winners and 120 Olympic medal winners were from the Oxford University. The fact that even the movie characters are going to Oxford, I learned a lot about the university. So, what kind of education is available to students who have studied at the age of tenure and have entered this school with a high competition rate? The 'tutorial system', which is actively used by universities, is the only method used in the world. This is a class with a student and two teachers, as the number of professors makes the environment more than the students and receives tutoring once every few weeks. Other college professors do not pay particular attention to students who have dozens in one class. On the other hand, Oxford University is a place where you can care about all students. Through this system, students can study deeper studies and receive help.

When we reached the end of the session, the TA prepared the event. It is a mock interview, one of the entrance exams of Oxford University. After interviews with grades and college documents, it takes about 30 to 40 minutes. The special reason for this interview is to read a given article in advance, and to deeply and accurately assert its thoughts on the subject of the article. At this point, the point is to discuss with the professor who refuted him - the host of the interview - and make sure his argument is correct. I challenged a mock interview with TA to experience the difficulty of entering Oxford University. When I saw the sister who experienced the interview before me, I started to see it without difficulty. But as soon as I heard the subject of the mock interview, my whole body got hardened.

The subject was whether or not "justice is equal". As soon as I heard it, I realized that I challenged for the most hard interview / test in my life. I have been thinking for a long time about where the TA is going to be, depending on where the traps are and what decisions are made. I thought what my refutation would be and what my refutation would be. But all the scenarios have blocked the TA's strong refutations like huge barriers. I had to strongly assert my opinion, but rather I was persuaded by TA's opposing opinion. Every time I spit a word, my mouth burned up and every time I heard TA's refutation, I had a cold sweat. I was panicking enough to make my assertion even cloudy. When I was half mental due to the cold air around the room, the gaze of the people around me, and the stress, my interview was finished after one of the oldest UN members continued the discussion for me. As a result of this experience, I became aware of my lack of study. I also learned that I need to improve the ability to solve and cope with a given problem, and a deep understanding of one topic. I also felt that when I solved the problem, I practiced showing calmness and had to build up knowledge so that I could understand the basic background of any problem. If the five-minute simulation were a hit, it would certainly have dropped out of the

entrance exam. With this occasion I felt the bones of how much I was scarce and the way to go. My dream is to go to a famous university, and I have time to reflect on how much effort I have made to pursue my dream.

Oxford University, one of the top universities that everybody wants to go to, is a fantastic school like Hogwarts School, but it is worth the price. In order to go to a beautiful university where tradition is alive and breathe, it is necessary to work twice harder than now. After my experience at the briefing session, I came back to see older brothers and sisters who participated in the UN Training Program. When I was with them, they were nice and funny like neighbors, but they are trying very hard to go to college and clearly knowing a direction to their own specific goals. They all seemed like prepared players who have been training for a long time. However, I am in the middle of preparing a race for the excuse that I'll be all right because I'm too young to experience hard reality. I dreamed of going to college with great people and excellent students, but I was not able to make an effort to realize my dream. Who should not end up in Oxford or any other college with the idea of 'being a great college'. I have to be careful about what decisions I make and go to college and compare myself to the tens of millions of people trying to go to college besides me. Also, I must constantly think about where I am now. Since I've been to Oxford, I have come to reflect on my decisions and decisions that I have been playing so far. As a result, it became a chance to face realities and participate in the race in earnest.



## 1) 옥스퍼드 대학교

### 브랜섬홀아시아, 서란

해리포터를 읽기 전 세계의 팬들은 한 번쯤 이런 소원을 하게 된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호그와트를 가보는 것이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 마법 학교와 비슷한 현실 속의 호그와트를 방문하였다. 영국에서의 마지막 날, 환상의 학교의 모델이 된 Oxford 대학교를 탐방하였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근처에 있었음에도 대학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였다. 가이드를 만나기 전, 잠시의 여유를 틈타 사진을 찍는 와중에도 바로 뒤에 있던 Oxford 대학교를 자각하지 못하였다. 주변 건물들의 색깔과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마치 대학의 입구가 마을 일부분으로 보였다. 옥스퍼드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까지 한 가이드, Stuart를 만나고 난 후에야 대학이 눈에 띄기 시작했을 정도다. 실제로 오래된 대학교들은 기존에 있던 여러 대학들을 한 묶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을과 대학교의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다. 마을이 곧 옥스퍼드이고, 옥스퍼드가 곧 마을이다.

옥스퍼드는 Oxford 대학교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지게 된 마을이다. 이곳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의 중심지가 된 곳으로 알려졌지만 교육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불쾌한 주제였다고 한다. 특권을 가진 자만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기에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과반수의 시기를 받았다. 학생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번번이 발생하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대학들이 설립되고, 그 38개의 대학을 하나로 묶어 오늘날의 Oxford 대학교가 설립된 것이라고 한다. 몇몇 창문들은 뾰족한 쇠창살들로 보호되어 있고, 밤늦게 다른 대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들도 설계되었던 것을 보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다. 점차 세월이 흘러 지금은 누구든 대학을 갈 수 있고 가고 싶어 하게 되었지만 학생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위험했던 당시 마을의 시대적 분위기는 아직도 대학 건물에 스며들어 있다.

대학교 중심 쪽엔 Camera-방이라는 뜻의- 메인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반지의 제왕>의 작가 또는 다른 유명 인사들이 졸업한

대학교답게 이 도서관의 책들은 400년 동안 영국의 출판된 모든 책의 복사본들이 쌓여 있다고 한다. 문학 말고도 Oxford 대학은 철학, 정치, 경제 과목을 공부해 졸업한 위인들이 많으므로 이 세 과목도 잘 알려져 있다. 눈에 띄지 않는 건물들이 유명한 정치인이 다니던 대학이거나,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가 사용하던 도서관인 것을 알아갈 때 마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구석구석, 골목마다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걸던 Oxford 거리를 역사적인 인물들도 똑같이 다녔다는 것이다.

Oxford를 방문하기 전 유명한 인물들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면 옥스퍼드에서 더 알찬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다른 시간, 같은 곳에서 위대한 졸업생들의 흔적을 보고 듣고 만지며 호기심 가득한 시간을 보내었다. 품위 있고, 섬세함 같은 고딕 양식의 대학들은 마치 내가 19세기, 18세기로 시간 여행을 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오래된 벽돌들, 얼룩진 난간이 그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이끼로 뒤 업힌 건물 벽들 그리고 뭉뚱해져 해진 건물 장식들이 대학교의 나이를 알려주는 듯했다. 건물들의 외관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어지는 대학교의 전통을 통해서도 Oxford의 나이가 느껴진다. 시험을 치를 때 양말까지도 격식을 갖추어 입고, 단속까지 하는 전통과 정해진 전통 졸업 옷 그리고 정해진 날마다 열리는 대학 연회가 그 예이다.

Cambridge 대학교는 Oxford보다 전통을 지키고 있지 않지만, Oxford는 철저히 신입생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한다. 몇몇 학생들은 이러한 딱딱한 전통을 고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전통이 과거의 역사로만 잊혀지는 것보다 클래식한 방식을 택한 Oxford 대학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물론,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자유에 대한 한계를 만들지만, 대학교 고유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00년동안 전통을 지키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때때론 고지식한 모습이 정통을 지키고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

Oxford 대학교 탐방의 하이라이트는 채승훈이라는 대학 TA의 설명회였다. 설명회에서는 미처 가이드에게 물어보지 못하거나 지나친 이야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1096년에 시작되어 Oxford 대학교는 900년 교육의 요람이 되었다. 그러한 대학교에 관해 가장 놀란 점은 대학

졸업생들이었다. 약 26명의 영국 국무총리, 30명의 국제적인 대표들, 50명의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120명의 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이 이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였다. 영화 캐릭터들조차 Oxford를 다닌다는 내용이 많은 것을 통해 대학교의 특별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죽기 살기로 공부해, 높은 경쟁률을 가진 이 학교에 입학을 된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는가?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튜토리얼 시스템’이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교수님의 수가 학생들 보다 많은 환경을 만들고 몇 주마다 한 번씩 과외를 받듯이 1:2 수업이다. 다른 대학교수들은 한 반에 수십 명씩 되는 학생들에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지 못한다. 반면에 Oxford 대학에선 모든 학생을 신경 써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더 깊은 학문을 공부하고,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

설명회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TA분께서 이벤트를 준비하셨다. 바로 Oxford 대학 입학 시험 중 하나인 모의 인터뷰이다. 성적과 대학에 들어갈 서류들이 통과하게 된 후 진행되는 인터뷰는 원래 약 30분에서 40분이 걸린다고 한다. 이 인터뷰가 특별한 이유는, 미리 주어진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한 주제에 관련해 자기 생각을 깊고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때 그에 반박하는 교수님 -인터뷰 진행자와 토론을 하며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옳다고 해야만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나는 Oxford 대학 입학이 어렵다는 말을 경험해 보고자 TA와의 모의 인터뷰에 도전해 보았다. 나보다 먼저 인터뷰를 경험한 언니의 모습을 보고 어렵지 않아 보여 무작정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뵘싸, 모의 인터뷰 주제를 듣자마자 온몸이 굳어져 버렸다. 주제는 “정의는 곧 평등이다”라는 것과 동의하는지에 대해서였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을 모르고 내가 인터뷰에 도전했음을 알게 되었다. 무슨 결정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 어떤 갈림길이 나올지 오랫동안 고민하였다. 나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무엇이 될 지와 그것에 대한 나의 반박은 무엇이 될지를 생각하였다.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들이 TA의 강력한 반박들이 거대한 장벽처럼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내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했지만 오히려 내가 TA의 반대 주장에 설득 당하는 처지였다. 한 마디 한 마디를 뱉을 때마다 입이 바짝 타 들어 가고 TA의 반박을 들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다. 내 주장의 확산조차 흐릿해질 정도로 나는 패닉하고 있었다.



방안을 맴도는 차가운 공기와 주변인들의 시선, 그리고 스트레스로 반쯤 정신이 나갔을 때 고학년 오빠가 바통 터치로 나의 인터뷰는 끝이 났다. 만약 그 5분간의 시뮬레이션이 실전이였다면 분명히 입학시험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내가 공부에서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다. 주어진 문제를 풀고 대처하는 순발력 그리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력이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때 차분함을 보여주는 연습을 하고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기본적인 배경은 알 수 있도록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갈 길이 먼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꿈은 유명한 대학교에 가는 것인데 나는 꿈을 좇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보며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상위권 대학교 중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Oxford University는 호그와트 학교처럼 환상적인 학교지만,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대학교에 가기 위해선 그곳에 입학한 학생들만큼의 실력을 늘려야 하며, 두 배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설명회에서의 경험 이후 UN Training Program 에 참여한 언니 오빠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함께 있을 땐 그저 상냥하고 재미있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 피 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경주를 위해 오랫동안 훈련해온 비장한 선수들의 모습으로 말이다. 하지만 정작 난 중3은 아직 어리니까 괜찮다는 핑계를 대며 이제야 준비운동을 하는 꼴이다. 위대한 위인들과 뛰어난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을 가는 꿈을 꾸지만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그 누구도 Oxford, 또는 다른 대학들을 보고 '멋진 대학이다' 라는 생각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은 대학을 가기 위해 어떠한 결정을 내렸고, 내릴지에 대해 신중해 져야 하고 나 말고도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수 천만 명의 사람에게 자신을 비교해 봐야 한다. 또한 나는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왔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Oxford를 다녀온 뒤로 나 또한 지금까지 놀기만 해온 내 모습과 결정에 반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제는 현실을 직면하고 경주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맘을 먹은 계기가 되었다.

## Jeonnam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Yoo Jin Kwon



As a person who only use Oxford notebook at school, who watched the Harry Potter series in a row after knowing that it took much of Oxford's atmosphere and exterior, visiting Oxford university was one of the most exciting tour for me.

Stuart, who got the Oxford's bachelor's degree guided us. The history of Oxford was related to British monarchy; Henry 2 issued Imperial ordinance to English international students who were studying abroad the France. He issued to stop their studies and return to the country. By the ordinance, students started to gather and study at all around the Oxford city. The university was finally established building lecture room, cafeteria, and library by their needs.

Walking along the Oxford's street, Stuart talked about the school's system. He said Oxford University is a unity composed with 38 colleges and 6 halls, which is a smaller school than college like the United States made up with 51 states. My most impressive part was Christ Church College, one of the most popular college where students study and heal during daytime and take exams while examination period. 'Sub fusc'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part I knew from the tour. It is an old tradition of academic dress, which should be worn at all formal University ceremonies including degree ceremonies. Unfortunately, we could not visit the library and Lincoln College's hall because it was Sunday morning. Also we got our

first rain there, but it was one of my best tour ever.

After the tour, we met Seung Hun Chae, who was in the doctoral course of PPE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Nuffield College, one of Oxford's college. He told specifics of the college system and explained how to enter the school. All colleges were built in different ways and times and students apply in the college, and that was the reason why college rankings are important. Not only through the Norrington table which open every students' grade with determined ranking, but also through each colleges' characteristic, people can compare and decide which college to apply. For example, our senior college is famous for having more professors than students, which is good for students to face them and have a conversation more frequently than others.

I was quiet surprised listening the way to enter the school, because it had much difference between Korea. All local and international have to apply through the UCAS system. They do not accept high school's grade but only official tests such as A-Level, AP. Also, rather than application empathizing that I am holistic, they prefer an application which shows how I am skilled and interested at my bucket major. The professor chooses students to teach for 3 years through a mock tutorial system for about 40 minutes.

By listening explanation about the Tutorial system and some activities, I could find some parts which I misunderstood before and straightened it. Only Oxford has the Tutorial system in the world. Students meet professors personally for 2 times a week and study the part he learned. I knew that it was just a private lesson before, but I was surprised that it is not just a lesson but the ideal education which students can sit together with the most famous person in his major, think rationally by debating with his professor, and hold the center of the lesson by speaking up and learn values and posture he have to take when he becomes center of the whole world. Finally, our senior mentioned Cambridge's supervision that they just changed the name of tutorial and do exact same but Oxford is the original and that made us finish with bunch of smile from being very serious.

Though the tour, I think I became a semi expert of Oxford University. Not just looking up the school's mood, tradition and position but knowing its view of education and world, I once again thought I wanted to study at this school. It was a precious experience to me who had been tired of studying continuously, and I was able to reflect on the direction of my career again.

## 전남외국어고등학교, 권유진



소소하지만 학교에서 항상 옥스퍼드 노트를 쓰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모습이 많이 담겨있다는 소리를 듣고 해리포터 시리즈를 처음부터 몇 번이나 돌려본 나에게 옥스퍼드 대학교 탐방은 이번 캠프에서 가장 기대되는 투어 중 하나였다.

옥스퍼드 대학교 투어는 옥스퍼드에서 학사과정을 마친 가이드 스텐더트가 해주었다. 옥스퍼드의 역사는 영국왕실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바로 헨리 2세가 프랑스에 있던 영국 유학생들에게 학업 중단 및 고국으로 귀국하라는 칙령을 내린 것이다. 그 칙령으로 인해 파리대학에서 떠나 고국으로 돌아온 영국 학생들이 넓게 펼쳐진 옥스퍼드 지역에 도착해서 함께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위해 필요한 강의실과 식당, 편의시설들이 옥스퍼드 시 전체에 골고루 생겨나며 옥스퍼드 대학이 탄생했다.

옥스퍼드를 걸어 다니며 자연스레 대학교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옥스퍼드 대학교는 38개의 칼리지와 6개의 홀이라 불리는, 칼리지 보단 작은 단과대학까지 총 44개의 대학이 연합된 것이라고 하셨다. 마치 51개

의 다른 주들이 모여 미국이 되었듯이 말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Christ Church College였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칼리지 중 하나로 학생들이 낮 시간에는 수업을 듣거나 안정을 취하고 시험기간 때 모두 이곳으로 몰려와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 시험 이야기가 나오자 옥스퍼드의 아주 오래된 ‘sub fusc’ 라는 전통을 알려 주셨는데, 이는 옥스퍼드 대학교가 건립된 이래로 전해져 온 전통으로 전교생 만찬회, 시험 등 옥스퍼드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자리에는 정해진 복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 시험에 응시하는 신기한 전통이었다. 일요일 오전에 방문한 탓에 도서관도, 링컨 칼리지의 대식당도 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영국의 첫 비를 맞았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너무나도 좋은 투어였다.

투어가 끝난 후 옥스퍼드의 칼리지 중 하나인 Nuffield College에서 PPE(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신 채승훈 선배님과 간담회를 가졌다. 선배님께서서는 칼리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입학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다. 칼리지들은 건축된 시기나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한국과는 다르게 옥스퍼드에서는 학생들이 칼리지에 지원하는데, 그러기에 칼리지의 랭킹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산출된 성적을 순위로 매겨 공개하는 노링턴 테이블을 통해 각 칼리지들을 비교할 수 있고, 성적뿐 만 아니라 동문, 교수 등 칼리지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원하는 칼리지를 선택한다고 한다. 선배님의 칼리지 같은 경우 학생수가 교수의 수보다 적어 교수님과 많이 마주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고 하셨다.

학교에 입학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한국 대학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영국 학생과 유학생을 가리지 않고 모두 UCAS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제출하는 성적은 고등학교 성적이 아닌 A-Level 이나 AP 같은 공인시험만 반영하고 전인적인 사람임을 강조하는 자기소개서 대신 자신이 지원한 전공에 얼마나 능력이 있고 관심이 있는지에 집중된 글을 제출한다고 한다. 실제 면접 때는 옥스퍼드에만 있는 교수방식인 튜토리얼 시스템을 입학사정관이 없는 대신 전공교수가 약 40분간 진행하고 자신이 3년간 가르칠 학생을 직접 뽑는다고 한다.

튜토리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다른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튜토리얼 시스템은 세계에서 옥스퍼드만 유일하게 갖추고 있는 시스템인데, 1주일에 약 2번 교수와 학생이 개별적으로,

많게는 3명에서 만나 수업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한다. 개별 과외라고만 생각했던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 점은 튜토리얼을 통해 자신이 공부하는 학문의 최고라 볼 수 있는 인물들과 눈을 맞추고 토론을 하며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수업의 중심이 되어보며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을 때 가져야 할 가치관이나 자세까지 배우는 이상적인 교육방식이라는 점이였다. 마지막으로 선배께서 캠프릿지의 supervision이 사실 옥스퍼드의 튜토리얼을 똑같이 하지만 이름만 바꾼 교육법이며 옥스퍼드가 원조라고 언급해주신 덕에 진지했던 우리가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간담회를 끝낼 수 있었다.

이번 탐방을 통해서 옥스퍼드에 대해 많은 것들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단순히 학교의 분위기나 전통, 위상만을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육관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다시 한번 이 학교에서 꼭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데만 지쳐있던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진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 Korea International School, Min Jeong Joo

I was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antique University of Cambridge because I have wanted to major in economics in Cambridge University since 9<sup>th</sup> grade. University of Cambridge is famous for economics and economist John Keynes. Therefore, I longed to visit Cambridge University. Seeing college buildings and shops, I became curious where the border between the university and city was. According to the guide's explanation, city is university, and university is city. This was so interesting because the campus had a huge difference with Korean universities, which have visible boundary lines.

We visited colleges such as Queens' college and Kings' college in Cambridge University. The most memorable college was Kings' college. Kings' college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colleges in Cambridge. The wonderful garden of Kings' college welcomed us. It was so peaceful beautiful that it looked similar with the garden of the Royal family. Moreover, Kings' college was significantly memorable for me since there was a chapel in Kings' college. The chapel was decorated with stained glass. Various pictures depicted in stained glass surprised me because of its sophistication. Characters in the Bible and unique patterns were described in the church in detail. Colorful lights penetrating the window brightened the chapel. I wondered how people in the past created such delicate pieces, which are still appreciated by experts. Looking around the Kings' college, I felt I wanted to study here, surrounded by nature with quiet ambience. Not only King's College, but also the other colleges had their own unique architecture styles. I wish I would study in all thirty-one colleges.

At the end of field trip, it started to rain. I felt good in this wet weather since I expected it would rain. Rather than becoming irritated, I walked happily in rain. It was special for me to sightsee University of Cambridge on a rainy day. If more time is given, I would like to absolutely visit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This bookstore is the oldest one all around the world and prints more millions of books per year, and distribute them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Imagine reading a book from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in cafeteria in rainy weather; how wonderful it is.

On top of that, The Corpus Clock, a distinctive shaped clock, operates by the grasshopper running on the clock. Dim blue light shows the exact time from hour, minute to second. The nickname of the clock is The Time Eater Clock. It was

extraordinary that clock was made with gold. Also, a large amount of money was spent to create this unique clock.

The meeting with a senior was helpful. He explained renowned majors, application process, and career. I asked many questions about economics and architecture with great interest. I thought students who majored in economics became economist or work as economics columnist, which are entirely related with economics. Unlike my expectation, however, these days, people who majored in economics go to investment bank or law school. Therefore, I could broaden my view about jobs. Also, the senior said his friend is currently working at Multinational Corporation. If I had opportunities, I would like to ask his friend about finance and economics.

Afternoon, we visited Cambridge cafeteria. Not only students, but also visitors were allowed to eat in the cafeteria. I was excited to visit the cafeteria. The senior and I continued talking about the life in England and racial discrimination. I misunderstood that England had serious racial discrimination, however, stereotype about Britain racism gone away after listening to senior's talk. Moreover, the majority of Korean goes study abroad to the United States so there is little information about effectively preparing for England universities. Through the meeting time with the senior, I learnt what I had to prepare for entering UK schools.

Before visiting the Cambridge, I thought of Cambridge just as a prestigious university. Seeing the Cambridge university and listening to the explanation wholly changed my perspective when choosing the university. I considered the school with beautiful appearance the best. However, I realized that environment for studying was a lot crucial than beauty of the university. Passionate students, intelligent professors, and supportive alumni were important factors of being good universities. I hope to go to University of Cambridge since these three elements are well established. I want to challenge myself to University of Cambridge.

Meeting with the senior helped me to better prepare for University of Cambridge and what kind of mindset I should have. My dream is not exactly confirmed yet. Sometimes, extreme worries depress my mental health. The senior advised me that uncertain dream did not matter now. I can further explore our dreams through college education after entering Cambridge University. Therefore, I do



not have to suffer from extreme worries and tension. I am interested in diverse kinds of subjects so dream is unclear now. From now on, I decided to see the world in a macroscopic view through reading a lot of books and having a variety of experiences.



## 한국국제학교, 주민정

9학년때부터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을 전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기대되었다. 캠브리지는 경제학으로 유명하고 경제학자 존 케인스가 졸업한 대학교이기 때문에 방문하고 싶었다. 컬리지 건물과 상점이 보이면서 도시와 대학교의 경계가 어디인지 궁금했다. 가이드님 설명에 따르면 도시가 대학교이고, 대학교가 도시라고 한다. 도시와 대학교 간의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점이 한국대학교랑 달라서 신기하였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college중 kings' college, queens' college 등을 방문했다. 가장 인상 깊은 college는 kings' college였다. 킹스컬리지는 케임브리지에서 가장 유명한 컬리지 중 하나이다. 킹스컬리지 정원은 왕족들이 살아도 될 만큼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평화로웠다. 킹스컬리지

안에 chapel 교회가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대학교 건물 내에 웅장한 성당이 있어서 그런지 kings' college가 유독 다른 college들보다 기억에 오래 남았다. Chapel안에 있는 스테인드글라스 그림은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독특한 무늬였다.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스테인드글라스의 색깔이 아직까지 다양하였다. 오래된 건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어서 중세 인들의 정교한 조각기술이 대단하였다. 킹스컬리지를 견학하면서 나도 예쁜 전경을 가진 킹스컬리지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연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경험해보고 싶다. 킹스컬리지 뿐만 아니라 다른 컬리지들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건축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각기 다른 31개의 컬리지에서 공부해보고 싶다.

킹스컬리지 투어 끝날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여서 비가 왔을 때 기분이 별로 나쁘지가 않았다. 오히려 흐린 날이 많은 영국에 놀러 와서 비를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해서 기분 좋게 걸었다. 옷이 젖기도 했지만, 비를 맞으면서 영국을 관광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시간이 많았다면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상점도 가보고 싶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1년에 몇 백만 부의 책을 전 세계에 출판하는 유일무이한 케임브리지 서점. 여유가 있다면 책을 사서, 비와 함께,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싶다.

케임브리지대학교의 메뚜기 금박시계(The Corpus Clock-The Time Eater Clock)는 디자인적으로 특이하여서 기억에 남는다. 메뚜기가 발로 시계를 돌리고, 시간은 분침과 시침의 약한 파란 불빛으로 알 수 있다. 대학교 탐방 중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선배와의 만남' 시간이 유익하였다. 나는 경제와 건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로 경제학과와 건축학과에 대해 질문하였다. 경제학을 전공하면 경제학자가 되거나 경제칼럼니스트처럼 경제와 연관된 분야에서만 일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은 경제학과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학을 전공한 후 로스쿨을 가거나 투자은행에 취직할 수 있다. 한 분야를 전공했더라도 꼭 그 분야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다. 또, 영국에서 다국적 기업

에 취직하신 분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기회가 되면 꼭 뵈어서 금융, 경제에 대해 자세히 여쭙보고 싶다.

오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내식당에 방문하였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재학생 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기대했다. 케임브리지 급식을 먹으면서 선배님과 영국생활, 인종차별 등에 대해 계속 얘기했다. 영국은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대학교와 생활에서는 뚜렷한 인종차별이 없다는 말을 듣고, 영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다. 보통 유학을 가면 미국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영국유학에 대한 정보는 적다. 그래서 케임브리지대학교에 계신 선배님과의 면담을 통해 영국유학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방문하기 전에는 케임브리지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좋은 대학교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학교를 결정하는데 어느 것이 중요한 요소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외관이 예쁜 학교를 최고라고 여겼다. 그러나 학교를 탐방하고 나서 공부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학구열, 훌륭한 교수들과 동창들이 좋은 대학교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3가지 요소가 잘 마련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도전할 것이다

‘선배와의 만남’ 시간을 통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뚜렷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지금 당장 명확한 꿈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대학교 와서 공부하면서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과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가장 와 닿았다.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아서 한 개의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해서 불안해하였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걱정을 접어두고 다독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혀 세상을 넓게 볼 줄 안목을 기를 것이다.

## 2) UNIVERSITY OF CAMBRIDGE



### **Lycee International Xavier, Esther Youngmi Ki**

#### **Cambridge in a Small Village**

Our tour started near Darwin College with our guide, David. We had a delightful visit, thanks to our engaging and polite guide. One of the interesting facts he told us was about how Cambridge was made. In 1209 there was a fight between some Oxford students and the local citizens. Then students from Oxford came here to start a new college name Cambridge. So the University of Cambridge was originated from Oxford. This was weird for me because today these two universities are considered as two different colleges to most people.

During our visit, I learned that many famous individuals went to Cambridge University. You may have heard of:

- 1953: Crigg and Watson discovered the DNA
- Isaac Newton was one of the Nobel prize winners
- One of the colleges in Cambridge University is named after their student, Charles Darwin (1827)

I was also shocked by the number of Nobel prizes won by the students and citizens at Cambridge. Since 1901, Cambridge has won in total 96 Nobel prizes which are more than France who has 65 Nobel prizes.

We visited about 20 places over the college. Three areas stuck in my head. First of all, the 550-year-old Queens' college. "Queens'" has an apostrophe because it's plural. Queens' was built by not only one queen but two. This college was initially built by Margaret of Anjou, the queen of Henry VI but after Henry VI died and Edward IV came to the throne. The building on the right bank of the river is the original part. As time passed, it expanded across to the left bank of the river. Over the river, there is a bridge called the Mathematical Bridge. It got its name from the curve and the fact that it's made out of oak of which the ends touch the tangent of the curve.

Next, I enjoyed the center square of Cambridge. There were many buildings, mainly colleges, chapels, restaurants, and shops. A queer golden clock in a glass window caught my eye. It was different from any other clock I had ever seen. This clock did not have any numbers or hands. Instead, you could tell the time by looking at the blue lights shining through little slots. The cost of it shocked us all, a nine-year-old clock being a million pounds. The man who designed it donated money to a nearby library. He added a running grasshopper on top because, in the 1700s, sailors had no way of calculating longitude. John Harrison discovered a way to calculate it and called it the grasshopper escapement. I wanted to see the market square in action and visit the university's bookstore to get an information book about the University. Sadly, we didn't get the chance to do everything we desired due to the lack of time.

Lastly, the Chapel at Kings College. It was set up by Henry XI who was a solid Christian. During this era, there was the Wall of the roses when two dynasties fought. Because of this, the construction stopped many times but finally ended in the 1500s. One dynasty had a white rose as their symbol and the other a red rose. Afterward, to show their peace, they sculpted their roses on many buildings. We could see in many places in the campus buildings a symbol of a big rose with red and white layered petals. According to the guide, This Chapel is an excellent example of gothic architecture. The best part of the chapel was the colorful windows which the priest used to use. These simple looking master pieces took 30 years to make. Before, the people believed that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were linked, so the top part consisted of the old and the bottom the New Testament. The style of the building reminded me of the chapels I saw in France. So it was easy for me to understand how it was built and why for example the Fan Vott ceiling. The inside was divided into two parts by an impressive oak screen which consisted of an organ and 400 pipes. The right side is the nonreligious part where there are sometimes music concerts or meetings and

the left side called the Quire, is the spiritual part where there are services.

We couldn't take a lot of photos because I had to focus on what David was saying and we had to keep up with the group. It was a shame that I couldn't take many photos during our visit.

Once our visit was over, we went to the Cambridge University center, and a Korean student came to give a brief presentation about Cambridge and to answer our questions. I asked him "Have you ever changed your major in college?" and his answer was "No. In England you have to choose your major before you apply and changing your major in an English college is very hard".

Although there were a few mishaps, such as the food, or the interaction, it was a meaningful visit. We were able to learn many interesting and new things. I do want to go to a college abroad, but I don't think I will go to England. I am looking for colleges with a diversity of clubs and a great campus life. I am also planning to study psychology as my major and try out biology along the side if possible. In my opinion, England is for students who sure of what they want to study. But I want to discover other subjects as well as studying my major.

Our visit to Cambridge made me realize that visiting the colleges in person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the one you want to go to. So I guess I will keep on looking!



## 2) 캠브릿지 대학교

### Lycee International Xavier, 김에스더영미

#### 작은도시에 있는 캠브릿지

우리의 투어는 Darwin college 가까이에서 우리의 가이드, 데이비드와 시작했다. 우리는 매우 친절하신 가이드 덕분에 굉장히 즐거운 대학방문을 할 수 있었다.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흥미로운 사실들 중 하나는 캠브릿지 대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였다. 1209년에 옥스포드 대학 학생들과 시민들 간에 싸움이 터졌었다. 그 이후에 그 학생들은 옥스포드에서 나와 새로운 학교인 캠브릿지 대학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캠브릿지 대학의 기원은 옥스포드 대학이다. 이것은 내게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왔다. 왜냐하면 이 커다란 다른 두 대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독립된 두 개의 대학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대학을 탐방하는 동안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캠브릿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 본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

- 1953년에 크락과 왓슨은 DNA을 발견했다.
- 아이작 뉴턴은 노벨상을 수상했다.
- 캠브릿지 대학의 한 단과대학은 캠브릿지를 졸업한 한 학생의 이름을 따왔는데 그 학생의 이름은 생물 진화론의 찰스 다윈(1827)이다.

나는 또한 캠브릿지 대학의 학생들과 그 시민들에게 수여되었던 노벨상의 숫자를 듣고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1901년 이래로 캠브릿지는 전체적으로 96개의 노벨상을 수상하였는데 프랑스가 수여 받은 65개의 노벨상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우리는 캠브릿지에서 20군데가 넘는 곳들을 방문했다. 그 중 세 곳이 가

장 기억에 남는다. 먼저, 550년된 퀸즈 대학이다. 퀸즈대학의 이름에는 아포스트로피 부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개를 뜻하는 복수 형태이다. 왜냐하면 두 명의 왕비들이 지은 건물이다. 그러나 퀸즈대학은 헨리 6세의 왕비였던 안주의 마가레트에 의해 죽은 후에 에드워드4세의 왕위에 오른 후에 세워졌다. 퀸즈대학은 캠강의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본관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캠강에 왼쪽 독으로 가로질러 확장되었다. 강 위에는 수학적 다리(Mathematical Bridge)라고 부르는 다리가 있다. 이 다리는 오크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 굴곡과 다리의 끝부분이 탄젠트의 굴곡에 닿아있어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교회당과 같은 이례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이 간결한 스타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나는 캠브릿지 대학의 중심부가 굉장히 흥미로웠다. 교회, 성당, 단과대학 등 많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특히, 나는 중앙 유리창에 있는 금시계에 시선을 뺏겼다. 그것은 내가 이제껏 본 시계들과는 달랐다. 이 시계는 숫자도 없고 바늘도 없었다. 시간을 알려면 작은 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파란 빛을 보고 시간을 말한다. 그 가격은 다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9년된 시계가 1만 파운드 라니…… 이 시계를 만든 분은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그 돈을 모두 기부했다고 한다. 그가 뛰고 있는 메뚜기를 그 위에 달아 놓 이유는 1700년도쯤에 선원들이 경도를 측량할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 후 존 헤리슨은 경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것을 메뚜기도피구 라고 불렀다. 나는 시장광장과 캠브릿지 대학에 대한 중요한 책들을 찾아볼 수 있는 도서관도 둘러보고 싶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시간 문제로 우리는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은, 킹스 대학 (Kings College) 에 있는 아주 강한 크리스찬이었던 헨리 11세가 지은 성당이다. 그 당시에 “장미의 벽” 이 있었는데 그 때 두 가문이 싸움이 터져 공사는 시작과 동시에 멈추게 되었다. 킹스대학은 1500년대가 되어서야 완성되었다. 킹스대학의 한 가문은 하얀 장미를 상징으로 두었고, 다른 가문의 상징은 빨간 장미였다. 그 후에 그들의 화해의 상징으로 남겨둔 흰 장미와 빨간 장미의 꽃잎들이 서로 층을 이룬 아주



커다란 장미 상징들을 학교 건물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이 성당은 고딕양식의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는 건축물이라고 저희 가이드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 저는 신부님이 쓰던 여러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 창문들이 제일 좋았다. 이 간단해 보이는 예술작품은 30년이 걸쳐 만들어졌다. 그때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믿기 전이었다. 그래서 그 꼭대기 부분은 구약으로, 아래 부분은 신약으로 구성되었다. 이 건물들은 내가 프랑스에서 보았던 성당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래서 건설된 방법을 보면 왜 이것이 팬 붓 천장인지 쉽게 이해가 되었다. 그 안은 400개의 파이프들과 한 개의 오르간으로 구성된 인상 깊은 오크나무 스크린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 오른쪽 부분은 가끔씩 콘서트나 회의 같은 것이 열리는 비종교적인 부분이었고 다른 왼쪽은 콰이어(the Quire)라 불리는 예배를 위한 영적인 부분 이었다.

우리의 방문 중에 비가 많이 내렸다. 그래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지나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여러 번 물이 이곳 저곳으로 튀었고 우리의 우산들이 서로 부딪혔다. 그래서 나는 내가 참으로 유용한 비옷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기뻐다. 방문할 동안 사진을 많이 못 찍어서 아쉬웠다. 데이비드가 해주시는 설명에 집중해야 됐고, 그룹으로 다녀야 했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못 찍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학교방문일정을 마친 후에, 우리는 캠브릿지 센터에 갔다. 거기서 한국인 캠브릿지 학생인 선배님께 캠브릿지에 대한 간략한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그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한가지 질문을 던졌다. “대학에서 전공을 바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선배님은 “아니. 영국에는 전공을 고르고 지원을 하고 영국 대학에서 중간에 바꾸기 힘들어.”.

우리는 같은 빌딩의 더 높은 층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것은 뷔페 식 이었는데 그다지 맛있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TP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반응에서 그들도 나와 일치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몇 가지의 좋지 않은 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좋았던 대학방문 이었다. 우리는 많은 흥미

로운 것들과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해외의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나는 영국에 있는 대학에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스포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은 나의 이목을 끌었던 좋은 경험 이었다.

음식이나 스피커와 대화에서 몇 아쉬운 점들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나는 해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지만, 나는 영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양한 동아리와 좋은 캠퍼스 생활을 갖춘 대학을 찾고 있다. 나는 또한 나의 전공을 심리학으로 공부할 계획이며, 가능하다면 생물학도 배울 계획이 있다. 내 생각에는, 영국 대학교는 무엇을 공부하고 전공으로 고를지 확신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 하지만 나는 전공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발견하고 싶다. 우리가 캠브리를 방문하고 나서 대학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특히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을 때. 그러니 나는 계속 찾아 볼 거다!



## Myung 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Yaein Jung

Riding the bus to Cambridge, one of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I was flabbergasted at the thought of walking among the students of Cambridge. Oh, how sweet the university air would be! Oh, how smart the students would be, and how brilliant their studies would be! These thoughts excited my mind so much that even the old brick buildings and stained-glass structures seemed beautiful and glittering in the morning ray.

When we arrived, we met our guide David. Before starting the tour, he briefly told us the history of Cambridge. When people think of Cambridge, they typically think that Cambridge and Oxford are rivals. However, these two are not entirely separated – Cambridge was actually generated from Oxford. 808 years ago, in Oxford, the townspeople and the rich university students battled, and some students even lost their lives because of this animosity. This tragic incident incited the students to leave Oxford and settle in Cambridge, and this became the origin of Cambridge University. I then wondered if Oxford and Cambridge are on bad terms since Cambridge virtually mimicked Oxford, but they seemed to be “friendly” rivals. Tomorrow we visit Oxford, so I intend to find out mor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most notable thing to remember about Cambridge is that it is run by the 'Collegiate' system and the 'Supervision' system. To simply describe these systems, the collegiate system defines university as a collection of colleges. There are 31 colleges in Cambridge, and each of them are individual education establishments. All these colleges are added up to form one big university: Cambridge University. The Supervision system is a one-to-one tutoring program of a student and a professor, so it helps the students understand the studying material in a more detailed and fuller way. They are different educational concepts from those of Korea, so I felt disconcerted at first but later found the system engrossing.

Through this division of colleges, a student can choose from a wide variety of colleges and share professional knowledge with students in the same college. The Collegiate system is the key to inspiring students and maintaining the creativity in them. The Supervision system is also unique because it only exists in Cambridge and Oxford. Korean students detest meeting their professor because they feel uncomfortable, but due to this system a student can meet his or her professor 2 times a week! I was impressed. So THESE are the systems of famous universities! I could realize why people sing of Oxford and Cambridge education.

For the next two hours, we walked among the campus and toured many colleges, museums and sites of historical importance. I would like to describe some places that I found most interesting. The first is Queens' College. It was built 550 years ago by the wife of Henry the sixth. Then why is it Queens' College, with the plural's? It's because the construction of the college was started by the queen, but it was not completed during Henry the sixth's rule. After Henry the sixth died, Edward the fourth came to throne. Queens' College's construction was stalled for a moment, but was continued by Edward the fourth's wife. I thought of it as a play on words, so it was very funny.

Second is the Old Cavendish Laboratory. Let me list the scientific achievements. At this laboratory, J. J. Thomson found the electron, which is the groundwork for physics and computing. In 1920, Rutherford discovered the proton and in 1932, Chadwick discovered the neutron. In the same year, an atom was first analyzed. In the 1940s Morris invented the first mathematical computer calculator. In 1953, Watson and Crick discovered the structure of DNA. Overall, over 30 scientists from this laboratory were rewarded the Nobel Prize. I was shocked by the sheer number of it. Over 30? France has approximately 65 Nobel Prize winners, and in this laboratory half that number of people won the prize. I could realize how inspiring Cambridge really is.

Then we had a small talk with a Korean undergraduate in Cambridge. He again described the collegiate system and the Supervision System, stressing the

importance of these systems in the Cambridge academia. He also talked about college life in Cambridge, when the semester starts, how the exams are tested, the role of the Senate House in revealing your horrible grades, etc. He was very knowledgeable of the admission procedure, so many of my friends asked him about the AP, SAT, interviews, and all sorts of necessary things to enter Cambridge. It was surprising that he was from a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because it's rather difficult for those students to enter colleges outside Korea. I could imagine his enormous efforts.

Overall, my strongest impression about Cambridge was the difference in educational systems. Here in Korea, it is almost mandatory for a person to enter college to get a decent job. Students are forced by outside pressure to enter college, and even when they do enter college, they cannot have their proper lives. However, U.K. was different. The campus air was whispering to me, "Do whatever you want to do as long as you take responsibility. We trust you with your life. Our role is to help you live a successful life. Have fun. Have a beautiful life." I loved this independence, and I firmly believe that the Korean education system should adopt this spirit of trust and independence,

After the tour and the talk with the undergraduate, our visit to Cambridge finished. It was sad to leave Cambridge because the visit inspired me in many ways. When I arrived in London yesterday, I was worried and anxious about whether I could overcome jet lag and take the most out of all these great programs planned.

However, Cambridge was great enough to blow away my fatigue. It captivated my mind. I still remember the small, well refined court of Cambridge, the green grass and the smell of morning mildew. I still remember the quaint brick buildings, red, white, brown, fancy golden, and the students idling here and there. Even when I close my eyes, I can still feel the enthusiasm, the spirit of trust and independence and the love for studying among students. It was impossible not to fall in love with Cambridge. Even though I have no intention of entering foreign universities, this experience is invaluable and will become one of the unforgettable moments in my life.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정예인

명문 대학교 캠프릿지로 가는 버스를 타며, 나는 캠프릿지의 학생들 사이에서 걷는 생각만으로 설렜다. 대학교 공기는 얼마나 달콤할까! 학생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그들의 연구는 얼마나 훌륭할까! 이러한 생각들로 내 가슴은 너무나도 두근거리어서, 낡은 벽돌 건물들과 스테인드 글라스 구조들조차 아침 햇빛 속에서 아름다웠고 반짝이는 것 같았다.



도착했을 때, 우리는 가이드 David 씨와 만났다. 대학교 탐방을 시작하기 전, 그는 우리에게 캠프릿지의 역사에 대해 말해주었다. 사람들이 캠프릿지를 생각할 때, 그들은 보통 캠프릿지와 옥스퍼드가 서로 라이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두 대학교는 완전히 개별적인 학교는 아니다 - 캠프릿지는 사실 옥스퍼드에서 발생한 학교이다. 808년 전, 옥스퍼드에서 마을 주민들과 부자인 대학생들이 서로 싸웠고, 몇몇 학생들은 심지어 둘 간의 협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학생들은 옥스퍼드를 떠나고 캠프릿지에 정착했는데, 이것이 바로 캠프릿지 대학교의 유래이다. 나는 캠프

브리지가 옥스퍼드를 따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옥스퍼드와 캠브릿지가 사이가 나쁠까 고민했지만, 대강 보니 이 둘은 서로에게 우호적인 라이벌인 듯 했다. 내일 우리는 옥스퍼드를 방문하므로, 나는 이 둘의 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캠브릿지에 대해서 기억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Collegiate system’과 ‘Supervision system’이다. 기본적으로 설명하자면, Collegiate system은 대학교를 소대학의 집합으로 본다. 캠브릿지에는 31개의 소대학이 있는데, 각각의 소 대학은 개별적인 교육 기관이다. 이 모든 소 대학들이 합쳐져 하나의 커다란 대학교 재단, 캠브릿지를 만드는 것이다. Supervision system은 학생과 교수와의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더 자세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과는 약간 다른 개념들이어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아주 매력적인 시스템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 대학의 구분을 통해, 학생은 입학할 수 있는 다양한 대학을 고를 수 있고,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 지식을 같은 대학의 다른 전공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다. 결국 개인에게 영감을 주는 데 이 시스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각 학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조금 더 발전되고 복잡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소대학의 구분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소 대학들 중 하나를 골라 입학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뒤 그 지식을 같은 대학의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다. 개인에게 영감을 주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유지시키는 데 이 시스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Supervision system도 독특한데, 이 시스템은 오로지 캠브릿지와 옥스퍼드에만 존재한다. 한국 학생들은 교수를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데, 이 시스템으로 인해 학생들은 교수를 일주일에 2번씩은 만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 교육 시스템에 감명 받았다. 이것이 바로 유명 대학들의 교육 시스템이구나! 사람들이 왜 캠브릿지와 옥스퍼드의 교육을 노래 부르는지 알 것만 같다.

다음 2시간 동안, 우리는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많은 대학들과 박물관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띠는 다양한 장소들을 탐방했다. 나는 지금 여기에 내가 가장 재미있게 여긴 몇 가지 장소들을 적어볼까 한다.

첫 번째는 Queens' College이다. 이 건물은 550년 전, 헨리 6세의 아내에 의해 지어졌다. 그러면 왜 Queens' College에서 's' 인 것인가? 그 이유는 이 대학의 건설은 헨리 6세의 아내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헨리 6세의 통치 기간 동안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헨리 6세의 서거 이후, 에드워드 4세가 왕위를 물려받았다. Queens' College 건설은 잠깐 멈춰졌지만, 에드워드 4세의 아내에 의해 계속 지어졌다.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 추가적인 's'에 의해 순전히 호기심이 들었다. 언어유희라 생각할 만큼 재미있었다.

두 번째는 Old Cavendish Laboratory이다. 그 과학적 성취들을 나열해보자. 이 실험실에서, J. J. Thomson은 물리학과 컴퓨터의 기초가 되는 전자를 발견했다. 1920년에 러더포드는 양성자를 발견했고, 1932년에 채드윅은 중성자를 발견했다. 같은 년도에 핵이 처음으로 분열되었다. 1940년대에 모리스는 세계 첫 번째로 수학적 컴퓨터 계산기를 발명했다. 궁극적으로 3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노벨 과학상을 받았다. 나는 이 숫자의 위대함에 깜짝 놀랐다. 30명 이상? 프랑스는 국가적으로 65명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실험실에서만 그 숫자의 반이 되는 인원이 노벨상을 받은 것이다. 캠브릿지가 얼마나 영감을 주는지 깨달았다.

그 후, 캠브릿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선배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Collegiate system과 supervision system을 다시 설명해주었고, 캠브릿지 학계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캠브릿지에서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언제 학기가 시작하고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며 너의 끔찍한 성적들을 밝히는데 Senate House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 말했다. 그는 외국 대학 입학 과정에 대해 아주 박식해서, 내 친구들은 AP, SAT, 인터뷰, 그리고 캠브릿지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온갖 것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외국 대학을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가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외국 대학에 들어오기 위한 그의 노력을 상상할 수 있었다. 캠프릿지에 대한 나의 가장 강한 인상은 교육 시스템이다. 한국 경우, 직장을 얻기 위해 대학에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외부 압력에 의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강요당하고, 대학에 입학해도 그들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 하지만 영국은 다르다. 캠퍼스 공기가 나에게 속삭이는 것이다, “네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의 삶을 믿는다. 우리들의 역할은 네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즐겨라. 아름다운 삶을 가져라.” 나는 이 독립심을 사랑하고, 한국 교육 시스템도 이러 신뢰와 독립의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굳건히 믿는다.

대학교 탐방과 선배와의 간담회로 캠프릿지 방문은 끝이 났다. 캠프릿지를 떠나는 것이 무척이나 유감스러웠는데, 이 방문이 나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어제 런던에 도착했을 때, 내가 시차를 적응하고 계획된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온통 걱정했는데, 캠프릿지는 시차 부적응을 날려버리고 여행 피로를 해소해줄 만큼 멋졌다. 캠프릿지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아직도 캠프릿지의 작고 잘 정돈된 정원을, 초록 풀과 아침 이슬의 냄새를 기억한다. 나는 아직도 진기한 벽돌 건물들, 빨강, 하양, 갈색, 화려한 황금빛의 건물들과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기억한다. 눈을 감아도 그들의 열정과, 신뢰와 독립의 영혼, 그리고 공부를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캠프릿지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해외 대학을 지망할 의향은 없을지라도, 이번 경험은 정말 소중한였고 내 인생의 잊을 수 없는 순간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5. TP Overall Report

- 전체 참가 후기 158
- 대학생 가디언 참가 소감 185

## 전체 참가 후기 - 참가자



### **Qingdao Chingwoon Korean School, Hyejin Chun**

When I think about TP (Training Program at United Nations), inside of my mind was like the weather of London, the place that we visited at first, before I participate in TP. Like the capricious weather of London, it was sunny, imagining about going to UN, but soon, it became rainy, worrying about my English skills and the situation that I cannot do anything because of my poor English. I hummed with joy packing my bag for TP, but soon, I was worried about how to make new friends and what can I do if anyone does not like me. I arrived at Incheon airport with excitement and anxiousness, and then new friends and I flew 12 hours and finally arrived at London. After arriving at London, the teacher told our room number and roommate in the evening. Luckily, I was able to be a friend with my roommate just for one day, and I could made lots of good friends. However, there was a bigger anxiousness for me, speaking English.

Was that anxiousness the reason? I did not ask question much in the London. However, the lecture given by a big senior in the university stimulated me to participate harder, and I really participated a lot from the next they at the Switzerland. Luckily, unlike my concern, there was no disaster that people cannot understand my English. His lecture made me to think like this. As a student

preparing for university entrance, the high school vacation during sophomore is really important and I was using that important time. Shouldn't I get valuable lessons using this important vacation? Seniors who do their best after entering the university stimulated a lot. Two seniors from Cambridge University and Oxford University gave us lecture, but I loved Oxford University more because the field that I am interested in is well-organized in Oxford University.

Both of the seniors said that GPA and academic interview are main factors that determine the entrance. I was preparing for domestic university, but I was surprised because there were lots of students who want to go to foreign universities. The senior from Oxford University did model academic interview for us. It was really helpful since I could think about what should I do when I received that question in the future interview, and I could also broaden my perspective by listening other people's various opinions.

We arrived at Geneva in our third day, and we started UN education from the fourth day. Two instructors from WFUNA was really nice. Actually, I did not expected to becoming attached with them, but in the last day of UN, it was so sad to leave.

At the first day in UN, I was shocked, realizing that since the topic that I make presentation will be discussed on the fourth day in the UN, I have a time to prepare the presentation less than a day. It was so shocking for me because I have never prepared presentation perfectly with just a day. As we have less time than the other, we studied about our topic from the first day in the UN. We also studied in the second and third day, but the things that we could do was checking background knowledge, making some questions to ask. We also made outline of our presentation, but it changed significantly after listening the lecture. The areas that we were dealing with were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Migrants), UNHCR (UN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and humanitarian systems.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our team was that there were lots of similar parts. It was a little confusing because of similar parts, but I think the flow of the presentation was nice thanks to this. It was pretty nice presentation despite the short time to prepare. Above all, there were so many things that I learned from the presentation.

At first, our team thought that our presentation was spoiled after hearing about the short time for preparation. I encouraged them, saying positive words, but actually, I was not that confident also. As we have limited amount of time, we prepared so hard during that night, and we could finish our work. I thought that I should not give up or discouraged even before trying. In addition, I could learn so much, watching other teams' presentation. There was a team that used unique presentation method and I learned various ways to attract public's

attention and presentation skills. Preparing UNHCR part was my responsibility in my team, and I could remember the words from the lecturer in UNHCR. When a student asked a question about helping children with just a little amount of money, he responded like this. “I’ve been to Bangladesh as I work in UNHCR, and the price in there is really cheap.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is possible to provide clean water and nutritious meal with a little money of us.” Also he said that just paying attention to refugees can be also helpful.

After hearing his words, I remembered a friend who participated in Model United Nations before. She said “What is the point of ‘MUN’ after all? No matter how brilliant our solutions are, passionate we are about the issues, we are faced with a reality in which we cannot do anything to actually solve these issues. All the efforts, time, and resources used to prepare for each conference have gone to waste.” I said to her that it cannot be the waste since we can change the situation in the future, just not now. I thought that it was quite nice response at that time, but now, I want to change that response a little bit.

There are people dying because of overweight and over nutrition, but in the other part of the world, there are people who are dying from hunger and dehydration. Actually, I have thought that it is a ridiculous situation, but I have never voluntarily shared my own things, except for participating in hopeful penny bank program of Good neighbors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and donating money minding others.

How can I change the future situation and do the great work, without doing this mere trifle? If I hear the same question again from my friend, I want to make answer as follow. “Just paying attention to this global issue can help to change the situation, and there are easy things that we can do for the issues. When will you do except for now and who will do except for us?”

When I wrote the essay to participate in TP, I wrote that I want to join the program to achieve my dream. I think it was opportunity to be closer with my dream as I wrote before. Actually, it is hard for high schooler to have lectures from UN diplomats and ask questions directly, and give presentation in front of them. Throughout this opportunity, I could gratify my curiosities about diplomats, my dream job, and I could learn the things that I should as a global citizen. When I go to UN Geneva in the next time, I hope that I am more improved thanks to the lessons from this UN program, and I go there as a diplomat.

##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전해진

TP 에 참여하기 전, TP 를 생각할 때의 내 마음은 마치 이번 일정에서 가장 먼저 갔던 런던의 날씨와도 같았다. 변덕스러운 런던의 날씨처럼, 드디어 내가 유엔에 간다는 설렘에 맑았다가도, 내가 제일 영어를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면 어쩌나 걱정돼서 비가 오기도 했었다. TP 에 참여할 때 가져갈 짐을 싸면서 절로 콧노래가 나오다가도, 아무도 나랑 친구를 해주지 않으면 혼자 뭐해야 할까 걱정되기도 했다. 그렇게 걱정 반, 설렘 반인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처음 보는 친구들과 처음으로 비행기를 12시간이나 타서 런던으로 갔다. 런던에 도착해 저녁 때쯤 숙소에 도착해서 룸메이트와 방을 배정 받았다.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만난지 하루만에 나는 룸메이트와 친해졌고,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영어라는 더 큰 걱정이 남아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처음 런던에서는 별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런던에서 대학 탐방 중에 강의해주셨던 선배님 덕분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았고, 바로 다음 날 스위스에 간 후부터 정말 열심히 참여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곳에서 나의 영어를 못 알아듣는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선배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고2 여름방학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내어서 왔으면 그만큼 값진 것을 얻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대학에 가서도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가는 선배님의 모습은 많은 자극을 주었다. Cambridge와 Oxford 두 대학의 선배님들께서 간단하게 강의해주셨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Oxford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Oxford 대학에 더 마음이 갔다. Cambridge와 Oxford 대학에서 간단하게 강의를 해주셨던 선배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은 성적과 학술적인 내용을 묻는 면접을 통해 입학이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국내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해외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다. Oxford 대학의 선배님은 모의로 학술적인 면접도 봐주셨다. 내가 실제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해와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셋째 날 밤에 제네바 공항에 도착해 넷째 날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UN 본부 교육이 이루어졌다. WFUNA에서 오신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두 분 모두 유쾌하셨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렇게 정이 들지 몰랐는데 유엔에서의 마지막 날 헤어질 때 너무나도 아쉬웠다. 첫째 날, 최종 프레젠테이션 주제가 유엔 4일차라서 다음 날 바로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하루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큰일이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단 한번도 하루 만에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준비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팀에 비해 시간이 매우 부족했던 우리 팀은 유엔 1일차부터, 간단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강의를 듣기 전인 2일차와 3일차에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고작 배경지식 조사와 질문거리를 만들어 놓는 것뿐이었다. 개요를 짜기도 했지만 원래 짰던 개요의 상당 부분이 강의를 들은 후 바뀌었다.

4일차 수업을 듣고, 우리 조가 다뤄야 할 내용은 IOM(국제이주기구)와 UNHCR(유엔난민기구)에 대한 내용과 인도주의에 대한 내용이었다. 우리 조 주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제별로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는 점이다.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헛갈리기도 했지만 덕분에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서 좋았다. 짧은 시간 동안 준비했지만 꽤 관촬은 발표였던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짧은 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배운 점이 참 많았다.

처음에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하루도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조원들은 망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는 조원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나도 정말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밤을 새면서 급한 만큼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끝났고, 해보지도 않고 망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다른 조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독특한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사용했던 팀도 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프레젠테이션 스킴들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우리 조에서 UNHCR 위주로 조사하여 준비하였는데, UNHCR에서 강의하셨던 이원재 강연자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난민 후원 광고들을 보면 1000원이면 아이들이 한 달 동안이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며 정말 작은 양의 돈으로도 꽤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나오지만, 진짜 그 적은 돈으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은 한 학생에게 이원재 강연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하면서 방글라데시엔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곳의 물가는 상상 그 이하로 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적은 양의 돈으로도 충분히 깨끗한 물과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런 곳에서 과장이 아닙니다.” 또한 작은 후원 말고도 학생으로서 난민 문제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듣고, 예전에 모의유엔을 같이 했던 친구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결국 모의유엔의 의미는 뭘까? 우리의 해결책이 얼마큼 뛰어나던, 우리가 문제에 얼마나 열정적이던 간에 사실 우린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잖아. 한 번의 모의 회의를 위해 준비한 모든 노력, 시간, 힘이 낭비가 되어 버리는 걸.” 그 때 나는 친구에게 비록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미래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으니 절대 낭비는 아니라고 대답했었다. 꽤 괜찮은 대답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강연자님의 말을 듣고 대답을 조금 고치고 싶어졌다.

사실, 지구에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과 같은 성인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음식은커녕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왔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Good neighbors에서 나눠준 희망의 저금통 이후에는 길 가다가 눈치 보여서 모금한 것 빼고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



진 것을 나눠주려 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이런 사소한 일조차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미래에 상황을 바꾸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만약 그 때 그 친구의 말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국제적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그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지금 하나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며,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냐고 말해주고 싶다.

나는 이번 TP 지원 에세이에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유엔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고 썼었는데, 정말 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사실 고등학생이 유엔의 직원 분들과 국제기구에 파견된 외교관 분들에게 직접 강의를 듣고 질문하며, 프레젠테이션을 해볼 기회는 정말 적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외교관이라는 나의 꿈을 품으면서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내가 할 일을 배울 수 있었다. 다음에 UN 제네바에 올 때에는 내 꿈인 외교관이 되는 것을 이루고, 이번에 배운 것들을 통해 훨씬 성장한 모습으로 오고 싶다.

## **Dan-Kook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Seung Jun Kim**

There are two reasons for participating in United Nations' training program at Geneva. The first and foremost reason was that I wanted to learn more about the roles that UN play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 want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actually talk with the staffs working in the UN organizations. The program definitely helped me fulfill all the objectives of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The training not only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roles of UN, but also specific functions that each organization played inside UN. We heard lectures about Red Cross, IOM, UNHCR, WTO, and many more. The lecturers were all experts in these fields. The information that they provided was different from the knowledge that we could just obtain through books. The experts told us the challenges and problems that they encountered as they worked in certain UN organization. They even talked about the limits that UN had in 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s. This helped me understand the roles of UN more deeply and also pushed me to think what people can do to solve the limits of UN.

Another valuable experience I had in the training program is that it helped me get one step closer to my dream. I am a student who wishes to become a judge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earing lectures about the humanitarian laws and implementing these laws to case studies helped me understand laws more accurately. Also, the staffs and lecturers working in the UN spent long time answering any questions that we had about any kind of information. This really helped me clarify and understand misconceptions that I had.

I would like to recommend this training program to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working in UN. This program provides information that no books can offer. On top of that, students can have a vivid experience of how it is like working in UN.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김승준

제가 제네바에서 유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유엔이 국제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더욱 상세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또한 유엔기구 직원들과 실제로 이야기 할 기회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를 모두 성취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엔의 역할 뿐만 아니라 유엔 내부에서 각 조직이 수행하는 특정 기능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적십자, IOM, UNHCR, WTO 등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들은 모두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 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공 한 정보는 우리가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유엔 조직에서 근무하면서 직면 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UN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의 한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유엔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며 유엔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에서 얻은 또 다른 귀중한 경험은 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인도주의 법에 관한 강의를 듣고 사례 연구에 이러한 법을 적용하면 법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엔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강사는 오랫동안 우리의 다양한 질문에 대답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이 가진 오해를 명확히 하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엔에서 일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책이 제공 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UN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생생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 Suwon Academy of World Languages, Ji Won Kim



August 4, Friday, there were some friends who had a little bit of fun and a little bit of anxiety like me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veryone got their tickets and passed through immigration. In spite of these short times, we could get along well rapidly. With so much emotion, we completed the day at a hotel near the British Heathrow Airport after about 11 hours of flying.

The first day of a full-fledged schedule, we departed for the University of Cambridge in early morning. After arrived at University of Cambridge we met tour guide, David. He gave us very detailed explanation of one of the school buildings. After the University tour and meeting with school student, we had a lunch and set off for House of Parliament. I worried about the weather because

in the morning, there was raining but, fortunately, it seems the sun rose again, so I thought 'This is the real British weather.' In the House of Parliament, Paul explained to us the history of the British's democratic government with British history, so the explanation was better. The most memorable thing is that the Lord and Commons have the each specified colors. So the Lord uses red chair, red book, and the Commons use green chair and green book. Later, we saw Big Ben, the Palace of Westminster, Tower Bridge, the Thames River, London Bridge, and Buckingham Palace, and finished the first day in London. I remembered when I was drawing a Tower Bridge for my Art class that the theme was a "drawing a one place that you wish to go before you die", so I was so touched when I took pictures while I was seeing the Tower Bridge. It was most memorable moment.

The second day, last day in London started with University of Oxford. University of Oxford was also very cool.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like Korea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Cambridge and the University of Oxford were saying "I am the best!" I was so interesting when the Tour guide of the University of Oxford told us like "We are better than Cambridge." After finished the Oxford tour, we departed for the British Museum. I can't wait because I heard that one of the three greatest museums in the world was the British Museum, and actually the museum itself was very great, so I could have really meaningful time in there. The most memorable thing was the Parthenon Bible, because I only saw in a book like Greek Rome myth, I was so impressed when I saw its big size and the beautiful design. After we had short tour in the British Museum we departed for the airport to take a plane for Switzerland.

The Third day, the first day in Switzerland was filled with worry and excitement. In this day, we had presentation of WFUNA, session of Human Rights by Hans Fridlund from UPR, Guided Tour of the UN at Geneva, and the session of WTO. The most impressed thing in this day is UN Tour. Of course all of the other sessions were also very good, but I'm impressed at Human Right Room. I thought that's ceiling was so beautiful. All of the sessions were finished, we had dinner party with Nikolaos, Sophie and Casey. We ate Cheese Fondue. It's the first time in forever for eating cheese fondue, so I was so excited. The cheese was little bit salty but I loved it, and all of us had a great dinner time.

From fourth day to eighth day, if I have to choose only one session that I was most impressed, I would choose the session of UNHCR without hesitancy, because of my dream. My dream is an international civil servant of UNHCR, so during the session of UNHCR, I think I was very active. Because I did pre-investigation, I could do many questions. Won-Jae, Lee, the international civil servant of UNHCR said that he could get this job through JPO, so I thought that I would also try my best for JPO and have good result.

The long-awaited day of Final Presentation, from morning till noon, I watched the

script hardly and kept trying to be not nervous. I still feel inconvenience about I could not be fully aware of the script because the prepare-period was little short, but I put meaning to have an opportunity of presentation in front of many UN staffs. In my school also has English presentation class, I think school class helped to do final presentation, and also the experience of final presentation in here would help for my school presentation. Through this final presentation I learned that how can I do an English presentation more actively, so I thought it was one of the very helpful experiences for me. After all of the presentations ended, we had lunch time and certificate ceremony. And last we said goodbye to Nikolaos, Sophie, Casey, and Camille who gave us so many learnings and helping during 5 days. All of us so sad, because we could feel their careful helping for us until then and already grew attached with them.

And the last day for TP Korea 10<sup>th</sup>, we did check-out early and departed for Luzerne. We saw Lion Monument that to honor the 786 mercenaries who was killed while they tried to defend the palace where Mary Antoinette lived, Chapel Bridge, the oldest wooden bridge in Europe, and had lunch at the nearby Indian restaurant. And finally we moved to Zurich Airport, and took a plane for Korea. At the Incheon airport, the parting with friends was waiting. I felt that I would no longer be tempted to believe that I have to say goodbye to the friends who have been together for ten days. I thought that I wanted to make sure that my friends, sisters, brothers who had a learning points had their dream come true.

Actually, I was really hesitant when I applied for TP Korea 10<sup>th</sup>. But the experience with which I started with fear was enough to satisfy, and also to gain a lot of enlightenment. Ten days with friends who I met first time, and unfamiliar surroundings made me little scared, but the friends were my strength, and also the helps from teacher and staffs could be a big help to me, so this program would be really meaningful time. I would really recommend if there are friends who consider to participate at TP Korea, and I hope to participate at this program again if I would have an opportunity. Lastly,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my friends, teacher, and college guardian staffs for the last ten days.

##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김지원

8월 4일 금요일, 설렘 반 걱정 반하는 마음으로 간 인천국제공항에는 나와 같이 약간은 신나기도 하고, 약간은 걱정스럽기도 한 얼굴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다. 모두가 체크인을 마무리하고 모여 입국심사장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두 마디를 나누다가 벌써 친해진 친구도 있었다. 그렇

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약 11시간의 비행을 한 후 영국 히드로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첫 날, 우리는 아침 일찍 모여 영국의 캠브릿지 대학교로 향했다. 캠브릿지 대학에 도착해 만난 가이드 David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학교 건물 하나 하나를 정말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캠브릿지 대학 투어와 선배와의 간담회 후, 우리는 점심식사를 하고 국회의사당으로 출발했다. 오전에 비가 와서 날씨가 계속 안 좋을 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비가 걷히고 다시 해가 떠서 ‘이게 바로 영국 날씨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국회의사당에서는 Paul 강사님께서 우리에게 영국의 민주정치에 대한 얘기를 역사도 함께 겸해서 정말 잘 설명해주셨는데, 덕분에 설명이 더 잘 이해됐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Lord와 Commons 각각 지정된 색깔이 있어서 의자도 각각 빨간색 녹색으로 맞춰놓는 것이다. 의자는 물론 각종 회의내용을 기록해놓는 도서의 표지색도 맞추는 것이 되게 인상 깊었다. 이후로 빅 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보고 타워브릿지와 템즈강, 런던브릿지, 그리고 버킹엄 궁전을 마무리로 첫 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중학교 미술 시간에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장소를 그려보는 수업에서 영국의 타워브릿지를 그렸던 기억이 나서, 타워브릿지를 보며 사진을 찍을 때 감동적이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해서 이번 TP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날인 둘째 날은 옥스퍼드 대학교로 시작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역시 건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멋있었다. 재밌었던 것은 캠브릿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가 마치 우리나라의 연세대와 고려대처럼 서로 자기가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이었는데, 옥스퍼드 대학교 투어 가이드님께서 “우리가 캠브릿지 보다 낫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재밌었다. 옥스퍼드 투어를 마치고 나서는 대영박물관으로 향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가 대영박물관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명성에 걸맞게 박물관 자체도 건축물이 매우 멋있었고, 안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파르테논 신전이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책에서 그림으로만 봤지 실제로 그 크기가 얼마지를 처음 느끼게 되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다. 대영박물관에서 짧게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스위스 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출발했다.

스위스에서의 첫 날은 걱정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첫 번째 날은 WFUNA,

UPR에서 오신 Hans Fridlund 강사님의 Human Right 강의, 그리고 UN 투어, 마지막으로 WTO 강의를 듣는 날이었다. 첫째 날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UN 투어다. 인권 강의와 WTO 등 다른 강의들도 물론 최고였지만 UN회의장과 각종 본부 건물들을 둘러보는 투어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특히 Human Right Room의 특이한 천장 디자인이 신기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모든 교육 일정이 끝나고 Nikolaos, Sophie, 그리고 Casey와 함께 디너파티로 스위스의 치즈 풍류를 먹었다. 치즈 풍류를 처음 먹어봐서 되게 떨렸는데, 생각보다 치즈가 엄청 짜서 약간 의외의 맛이였다. 그래도 다들 맛있게 먹었던 것 같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둘째 날부터 Final Presentation을 하기 전 날인 넷째 날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개인적으로 좋았던 교육을 딱 하나 뽑아보라면 나는 망설임 없이 교육 마지막 날의 마지막 강의였던 UNHCR을 꼽을 것이다. 나의 꿈이 UNHCR 소속 국제공무원이기 때문인데, 비교적 참여도가 낮았던 다른 강의에 비해 UNHCR은 정말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또 열심히 사전조사도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다. 강의를 해주셨던 이원재 강사님께서 JPO로 국제공무원이 되셨다고 했는데, 나도 나중에 꼭 JPO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망의 Final Presentation 날, 아침부터 대본도 열심히 보고, 계속해서 떨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 같다. 준비기간이 그리 길지 못해서 대본을 많이 외우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자료를 UN 직원 분들 앞에서 발표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기로 했다. 학교에서도 영어 발표를 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 때의 경험이 도움이 된 것도, 이번의 경험으로 영어를 좀 더 적극적이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도 있어서 여러모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고 Certificate 수여식을 갖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Nikolaos, Sophie, Casey, 그리고 Camille와의 포토타임 및 작별시간을 가졌다. 5일 밖에 안 되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우리를 생각해주시는 게 피부로 와 닿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말 슬프고 아쉬웠다.

그리고 TP 10기의 마지막 날, 우리는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하고 루체른으로 이동했다. 루체른에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살던 궁전을 지키다 전사한



786명의 용병들을 기리기 위한 빈사의 사자상,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다리인 카펠교를 본 뒤 근처 인도 레스토랑 가게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이를 마지막으로 취리히 공항으로 이동해 한국 행 비행기를 탔다. 오랜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에서는 10일 동안 정들었던 친구들과와의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다. 열흘 동안 함께한 친구들과 1년을 함께 지내 온 친구처럼 친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는 게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쉽게 느껴졌다. 한 명 한 명 배울 점이 있었던 멋진 친구, 언니, 오빠, 동생들이 꼭 각자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TP KOREA 10기에 지원할 때 친구에게 상담까지 할 정도로 많이 고민했었다. 하지만 두려움을 갖고 시작한 이번 경험은 또 하나의 도전을 한 나를 나 스스로가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고, 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 처음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의 10일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함께했던 친구들이 힘이 되어 주었고, 또한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신 선생님 분들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되어 정말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TP KOREA 참여를 망설이는 친구가 있다면 꼭 추천해주고 싶고, 나 역시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더 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열흘간 함께 수고한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대학생 가디언 언니들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싶다.



##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Tae-Eun Kang

From the first day we arrived in London, the UK, till the day we left Switzerland, I have learned a lot through this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 This was not only about the training, the university tour, the knowledge itself, but also about friendship and creating unexpected bonds with each other. When I first met other 14 students in Heathrow, London airport, I was not able to handle this awkward atmosphere, no sense of intimacy, no chit-chats, but looking up at the sky and enjoying the air. Everyone seemed to be tired due to long hours of flight and we soon arrived at the Hotel nearby, only a few minutes away from the airport.

The second day was more interesting than the first day. My roommate and I had a fun morning with cheerful music to start the day energetically. After having breakfast, we headed to Cambridge which took about two hours from the hotel. Cambridge was fascinating, and as the tour proceeds, all I could say was 'WOW' because the things that I have learned in Chemistry class, Biology class, and economics class started to appear on the streets of Cambridge. The chemistry lab of Rutherford, Thompson, Bohr. Francis Crick and James Watson's "The secret of life" and lots more.

After Cambridge university tour, we went back to London city, where there are lots of tourist attractions. We first visited the House of Parliaments where the House of Commons and the House of Lords meet. It was interesting to hear brief history about the United Kingdom, stories behind the buildings, and different processes by each house. In fact, the old gentlemen, our tour guide has mentioned we are a very special group to be entering the Palace of Westminster. Korean tour guide also pointed out he only has visited the House of Parliament twice in his 8 years long life in London. Therefore, I have placed the entrance ticket deep in my wallet so that I can refer back to the special memory later in my life.

The second day was extremely busy and packed with activities compared to the first day. Along with the Palace of the Westminster, we also saw Westminster Abbey, the Big Ben, Buckingham Palace and Tower Bridge. Although it was a tight schedule, everyone was enthusiastic and taking a lot of photos of the others and themselves. However, on the way back to the hotel, everyone on the bus fell asleep catching up their sleep from yesterday.

On the third day, we went to Oxford, the dream school of mine. Oxford was just like what I have imagined of. Since young, I told my parents I want to go to Oxford University, but it was my first time walking on the streets of Oxford. My passion

towards Oxford grew bigger and higher as we toured around the University of Oxford but soon reached realization point to reflect on my grades after having a discussion session with PPE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master in Oxford. Still, He gave me strong motivation to study harder and get into Oxford in near future.

Around 7 p.m., we took a plane to fly to Geneva for the official start of our program, the Training at the UN. Although the training did not start yet, I was a little nervous but also really excited to listen and share stories with the lecturers. As a participant who also have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at the UN: New York, I was thinking what will b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headquarters. This question has made me more passionate and curious about the training starting the next day.

Soon, the morning has come and I wore my smartest clothes, my school uniform to get into the United Nations. It took us quite a long time to pass through the security gate and I was so jealous of those people with official blue name card to pass through the gate ten times faster than us. After few minutes, we got the security checks and finally entered through the main gate of the United Nations, Geneva.



Out of all lectures from seven different organizations and 11 speakers, I especially enjoyed WTO, the Korea Permanent Mission to the UN and IOM. WTO gave us real life examples to help us understand the principles and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Jessica truly inspired me to become a press officer in the UN organization, where I can combine two of my interest, diplomacy and media journalism. As a student who wished to become a diplomat, the Korea Permanent Mission to the UN was the place where I could hear about the global stance of Korea and its honest relationship with the UN and other countries. During the Q&A session, lots of hands went up including several of mine, and the officer was extremely busy answering all the questions in detail just to resolve our curiosity.

Finally, the IOM. I became more passionate about IOM after I started to do background research for final presentation and report. As I dig deeper, it was an organization that was totally different to what I have first interpreted. After the lecture, I considered a lot to summarize bunch of information into 10 minutes and several pages of the report and started to follow IOM twitter, both Geneva, and Korea. I also hope to participate in 'Together' campaign for the better humanity, better future for everyone.

When comparing this Training at the UN: Geneva with Training at the UN: New York, I personally think Geneva training is better as it allows me to feel the different atmosphere and the environment that is unique about each organization by visiting those specific buildings, unlike New York had main buildings containing lots of organizations together. This structure of the United Nations has enhanced my understanding even further. Furthermore, the United Nation's peaceful and calm, moderate image fits more effectively in the nature of Geneva than the busy, crowded city of New York.

Along with previous reasons, the usage of 'French' also contributed hugely in making this experience more special. It was so intriguing to see how people interact with each other in many different languages, French, English, German, and Spanish and so on. Like those UN workers, we, the 15 participants also have communicated in various languages.

As most of us are from foreign language school or international school, we took this advantag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tried out Japanese, Chinese, especially French and some Spanish. Once, I had a dream of learning every language existing in this world to be able to communicate with anyone in any place. With these experiences, I think if I approach different language in an open-minded manner, I might be able to achieve an absurd dream in the future.

Above all, it was an honor to be able to spend 10 days with those students who have similar interest and discuss current global issues. It is hard to find a situation where lots of teenagers around my age to have such a deep understanding of how the world goes around in many different areas like human rights, refugees, disarmament, technology etc. Consequently, every participant's presentation was in depth, in detail, and in good standard. I can still remember few scenes happened during the presentation. I think I will not forget the winning team's "Dear Diary" and "Absolutely Not!" forever as well as CERN's proton accelerator demonstration.

Amy Rhoades from IOM has defined the word 'Language' as a strong tool that expresses its country's culture and feelings and the key to building relationship and trust. Using English and Korean, I have made deep bonds not only with the participants but also with the staff from both Hope to the Future Association and from WFUNA. Finally, I would like to say, "We, the future diplomats, UN officers or even engineers, will be ready for any struggles that follow in our lives as we have see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rough the global eyes and application.

And we all managed to finish everything with no one failing" to other 14 participants. Thank you so much to all participants, friends, and staff for making me another unforgettable memory. Merci, Au revoir.



##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강태은

런던, 영국에 처음 도착한 날부터, 제네바와 취리히, 스위스를 떠난 그 마지막날까지 나는 이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다. 이번 경험은 교육, 그리고 대학 탐방, 지식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 친구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예상치 못한 친밀감 및 관계를 만들게 해주었다. 내가 처음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14명의 다른 참가자들을 만났을 때, 너무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 맑은 하늘만 쳐다보고 한국과는 좀 다른 공기도 느끼며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모든 사람들이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힘들어 보였고 우리는 곧 공항 근처의 호텔에 도착하여 휴식시간을 가졌다.

두번째 날은 첫 번째 날에 비해 더 흥미롭고 즐거웠다. 내 룸메이트와 나는 아침을 신나는 음악과 함께 힘차게 시작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우리는 약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도착하였다. 케임브리지는 작지만 자신들만의 특색이 있는 신비한 곳이었다. 학교 투어가 진행되면 될 수록, 나에게서 끊임없이 ‘우와’ 와 같은 탄성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교 화학, 생물, 경제 시간에 배우던 내용들 또는 인물들이 공부했던 장소들이 거리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러더퍼드, 톰슨, 보어의 화학 실험실, 그리고 DNA 구조를 발견한 프랜시스 크릭이 자주 술을 마시던 펍 등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케임브리지 대학 탐방을 끝내고, 우리는 다시 런던 도심으로 돌아와 관광지들을 구경하였다. 우리는 처음으로 국회의사당 내부를 구경하고 상원과 하원이 만나는 지점, 이에 얽힌 영국의 역사, 건물과 그 구조의 배경 내용 및 각 상, 하원에서 행해지는 진행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우리의 국회의사당 투어를 맡아 주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되게 특별한 곳, 들어오기 힘든 곳에 현재 와있다고 하셨다, 게다가 한국인 가이드 선생님께서도 자기의 8년 런던 가이드 생활 중 국회의사당은 딱 2번 밖에 안 와보았다고 덧붙이셨다, 그래서 나는 기념으로 받은 국회의사당 티켓을 나중이라도 이 곳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지갑 주머니 안쪽에 넣어 놓았다.

두번째 날은 첫째 날에 비해 매우 바쁘고 여러 장소, 활동들로 알차게 스케줄이 짜여 있었다. 우리는 국회의사당 외에도 웨스트민스터 사원, 빅벤, 버킹엄 궁전, 그리고 타워브릿지까지 하루에 구경을 하였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즐거워하셨고 다들 자신들의 모습, 친구들의 모습을 찍어주느라 정신 없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에너지가 방전되었는지 버스 안에 있던 나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은 단잠에 빠졌다.

세 번째 날, 우리는 나의 '드림 스쿨'인 옥스포드로 떠났다. 사실 케임브리지에 갈 때는 학교에 대한 환상과 두근거리는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옥스포드를 갈 때는 달랐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나중에 커서 꼭 옥스포드 갈 꺼야 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번에 처음 가본 옥스포드는 나의 환상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옥스포드 대학을 향한 나의 열정은 투어를 진행할 수록 더욱 더 커졌지만 옥스포드에서 철학, 정치, 경제를 석사까지 따고 박사를 준비하시는 선배님과의 간담회 이후 현실직시를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선배님의 조언들은 나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꼭 옥스포드를 와야지 라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다.

약 저녁 7시경, 우리는 제네바에서 있을 이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인 유엔 본부 교육을 받기 위해 영국항공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넘어갔다. 아직 교육이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내일부터 있을 강연, 현 이슈에 대한 논의,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공유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약간 무겁고 떨렸다. 미국 유엔 본부 교육을 받아본 참가자로서, 나는 과연 제네바 본부와 뉴욕 본부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라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질문은 밤새 다음날 있을 교육을 더 기다리게 했고 더욱 더 궁금하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학생 신분으로서 가장 단정한 옷, 교복을 입고 유엔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다. 유엔 본부의 보안 검사대를 통과하는 데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나는 유엔 직원들이 너무 부러워졌다. 그들은 공식적인 파란색 유엔 아이디카드를 목에 걸고 있어 우리보다 10배는 빨리 줄 안 서고 들어올 수 있었다. 자그마치 35분 정도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모두 보안검사대를 통과하였고 유엔의 메인 게이트를 무사히 통과하였다.

총 7개의 다른 기구들 그리고 11명의 스피커들의 강연 중에서, 나는 특히 세계 무역기구,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그리고 국제이주기구의 강연이 가장 인상 깊었다. 세계 무역 기구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들며 기구의 기능과 원칙을 설명해 주었다. 강연을 해준 제시카는 홍보 및 언론 책임자로서 나에게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전망을 주었고 나는 유엔 기구의 언론 책임자로 내 관심사인 외교와 언론을 동시에 해볼 수 있을 거 같아 더 이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졌다. 또,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치, 각 국들과의 관계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나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려고 기다렸고, 홍승태 참사관님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시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을 담아 답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국제이주기구가 기억에 남는다. 사실 처음에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 조사를 하였는데 내가 국제이주기구에 대해 더 깊게 들어갈수록 나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기구와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색다른 모습을 만나게 되어 더욱 나의 궁금증과 관심을 끌어 모았다. 강연이 끝나고 나는 그동안 쌓은 지식들을 어떻게 A4 몇 장과 20분의 발표로 요약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 발표 준비를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했다. 시간도 적고 힘들었던 발표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중요한 사례들을 잘 사용하여 발표한 거 같아 스스로 뿌듯하고 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매우 크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캠페인들 역시 알게 되었는데 나도 더 나은 인류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얼른 유엔이 주최한 'TOGETHER' 캠페인에 참여해 세상을 더 밝게 하고 싶다.

뉴욕에서의 유엔 본부 교육과 제네바에서의 유엔 본부 교육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제네바 유엔 교육에서 훨씬 얻어가는 바가 많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한 큰 건물 안에 많은 국제 기구들이 속해 있는 뉴욕과는 다르게 제네바 유엔은 각 기구들이 자기들 만의 느낌과 분위기로 꾸며 놓은 건물들이 있기에 각 기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상 바쁘고 발달된 도시 뉴욕보다 자연이 사방에 펼쳐진 제네바가 '유엔'의 평화적인 이미지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이유와 더불어, 제네바에서 사용하는 ‘불어’가 유엔이라는 곳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다. 사람들이 유엔 안에서 유엔처럼 영어 하나가 아닌 불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소통하는 장면을 보고 매우 흥미로웠다. 유엔 직원들 같이, 우리 참가자들 역시 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다양한 언어를 시도해 보았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외교나 국제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점을 이용해 서로에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대화를 나눠 보기도 하였다. 그 덕에 나는 프랑스어로 짧은 여러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카운터 계산대 아주머니와 아주 간단한 소통을 해보았다. 다른 친구들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등을 배우며 교육과 함께 재미있는, 또 매우 글로벌 한 시간을 보냈다. 한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배워보겠다는 야망이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약 내가 열린 마음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에게 다가간다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겼다.

다른 많은 이유들을 제치고, 지난 10일 동안 나와 비슷한 흥미를 가진 친구들과 현재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문제들, 주제를 따지지 않고 여러 분야를 다 포함해 깊은 이해도를 가진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한정적이어서 늘 아쉬웠다. 이번에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넓힌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에 당연한 것이겠지만, 모든 참가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자세하고, 심도 있고, 창의적이었다. 나는 이번 프로그램의 프레젠테이션 우승팀의 “Dear Diary”와 “Absolutely Not!”, 그리고 CERN의 proton accelerator 시범을 잊을 수 없을 거 같다.

IOM에서 나오신 Amy Rhoades직원분께서는 ‘언어’를 그 나라의 문화와 감정을 나타내는 가장 센 도구, 그리고 사람들간의 관계와 믿음의 핵심이라고 정의하셨다. 이번 TP10에서 나는 영어와 한국어를 통해 참가자들과 끈끈한 우정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또 미래희망기구 직원분들, 그리고 WFUNA 직원분들과도 좋은 인연을 맺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와 같이 갔던 다른 14명의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Merci, Au revoir.

## Lighthouse International School, Jun Young Hong

This “WFUNA 10th Training Program” was a really important experience to me. I was planning to go to “WFUNA 9th Training Program”. However, I got sick on the day we were leaving, so I could not join the program. I think that is why “WFUNA 10th Training Program” became more special to me. I think I was very lucky to meet many good friends and teachers and have experience to train and travel abroad. I always dreamed about traveling to the UK and it was also on my bucket list, but I thought I could never achieve that dream in my teenage years. Visiting London Bridge, Big Ben, House of Parliament in London, had truly made me feel lucky. Also, we visited places like Oxford University where the Harry Potter film was taken, and Cambridge University which is famous for its name value in the world. And also, it was a really honor for me to visit the UN headquarters. While listening to the lectures, I was very thankful, and it was a time where I could really reflect on myself. I could also never forget all the people that I met in the training session of UN. Every single of our group members were considerate, and we worked as a one family, including our Training Program team.

What I remember the most in England was, the authentic view and charming houses and buildings. Unlike Korea, UK used many bricks to build up the walls, and no tall buildings or houses could be seen, and the places that you would only see in Disney movies was actually true and genuine.

I could feel joy by thinking that I had visited the London Bridge and Buckingham Palace. Only by words that I heard it is famous, I never thought that I could really see it with my bare eye, and the buildings were very extraordinary, grand and enormous. Also, I tried to keep every view and pictures to my mind and eyes because the trip in UK was really like a dream for me and precious. The view was really gorgeous and I knew that the time like this will never come back so every minute was really sacred to me personally. Since, it was my dream come true, the time was especially special to me which made me more focused on the guide’s lecture.

In Geneva, due to the commencement of the education, I started to think about everything more seriously. By visiting places, I thought about what the people have felt at that time more deeply and carefully. In many lectures and education of UN there were many things that I already knew, but everything came as new to me and because so, I could easily find the source of the problem and the answer key for it. Additionally, the presentation that we prepared as a team really mesmerized my heart. I had a hard time being allocated on day 4 because compared to others, we had limited time to prepare the whole presentation. Still,

it was worthwhile and remarkable time to learn deeply about IOM and UNHCR. Due to this memorable experience, I think I am now one step closer to becoming the fully global minded student. Also, after researching about new materials like different principles of the humanitarian system, and even about the things I already knew, came to me as a new information after hearing from specialized experts.



## 등대글로벌스쿨, 홍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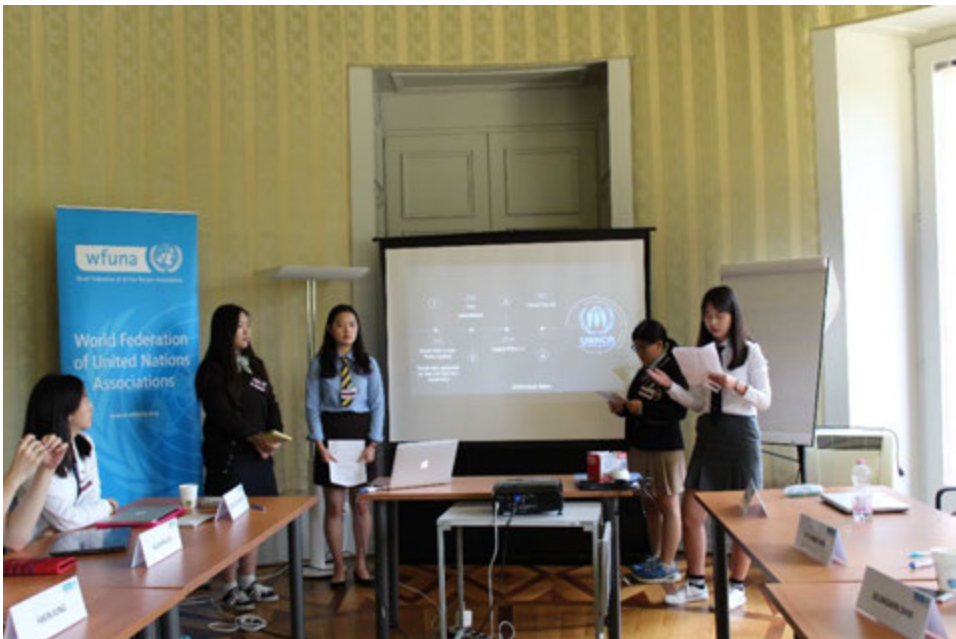
이번 TP10기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원래 나는 TP 9기에 가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부득이하게 아픈 바람에 함께 교육에 참가할 수가 없었었다. 그래서 이번 TP 10기 교육이 나한테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왔을 지도 모른다. 많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해외로 가서 관광도 하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큰 보람으로 다가왔다. 내 버킷리스트에는 영국여행을 가고 싶다고 항상 생각해왔고, 나는 절대 이 꿈을 10대에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다. 그러나 영국으로 가서 내가 꿈에 그리던 런던 브리지, 빅벤, 국회의사당 등 멋진 관광지를 둘러보며 정말 행복함을 느꼈다. 그리고 해리포터 촬영지로 사용된 옥스퍼드 대학교,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좋은 대학 중 하나인 캠브리지 대학을 걸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꿈에만 그리던 UN본부를 들릴 수 있어 나에게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UN교육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UN교육 때 만난 인연들도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한분 한 분이 정말 친절했으며, 정말 가족처럼 TP팀이랑 같이 활동을 했었던 것 같다.

영국에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멋진 풍경과 아기자기한 건물들과 집들이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벽돌을 사용해 건물을 많이 지었으며, 외관상 높은 집은 거의 없었고, 낮고 디즈니 영화에서만 볼법한 아기자기한 집들과 건물이 많았다. 영국에서 진짜 꿈에만 그리던 런던 브릿지와 버킹엄 궁전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항상 유명하다고 말만 들어왔지, 이렇게 내 맨눈으로 볼 수 있을지 생각조차 못해보았고, 그 멋진 건물들은 상상 이상으로 멋졌고, 웅장했고, 거대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이 영국 투어가 너무나 꿈만 같았고 소중한기에 정말 모든 배경 하나하나 다 마음과 눈에 담아 두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정말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고, 다시는 못 볼법한 생각이 들어 정말 일본 일본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스위스에서는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그런지 모든 것에 대하여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진짜 모든 곳을 방문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 그리고 느낌에 대해서 더 골똘히 생각하게 됐다. 교육 중에 내가 아는 내용도 많았지만, 모두 다 새로운 느낌으로 나한테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의 근원이나 해결방안도 잘 찾아냈다. 그리고 해외에서 팀끼리 합을 맞춰 발표 준비를 한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많이 남았다. 비록 내 조는 마지막 날인 Day 4 였지만,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발표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IOM과 UNHCR의 강연을 통해 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억에 남는 경험 덕분에 저는 이제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춘 학생이 되는 길에 한발 짝 내딛게 된 것 같다. 또한, 인도주의적 시스템의 여러 원리와 같은 새로운 자료에 대해 연구한 후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또한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난, 많은 정보들이 나에게 새로운 정보로 다가왔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가 소감 - 대학생 가디언



### Youjin Cho

I participated in the TP 10 UN education through the university student guardians. I have been leading freshmen at universities, but I was worried that this big event was my first time. Other high school and junior high school friends were students who traveled a lot in foreign countries and had no difficulty in English. I started with fear and anxiety rather than hysteria. The first day arrived in London after 12 hours of flight. I received instructions from the teacher on the instructions and instructions for students to lead. I returned to the hotel with anticipation, and prepared the next schedule. The second day and the third day were London tours before UN education. One of the most memorable of my London tour was visiting Cambridge University and Oxford University. I regret that I will study more hard in high school, and now my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are very envious.

Foreign universities have different systems from Korean universities, one of which is the Collegiate System. For example, Korean universities will end with a lecture, but Cambridge University and Oxford University will be able to listen to

each other's lessons in private lessons with professors and students at each college. I felt that Korean universities would like to take a lesson not only of exam but also of various opinions. It was a good experience to have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university visit.

From the fourth day until the last day, I received a full-fledged UN education in Geneva. I think it is a UN that everyone knows well but it does not matter to me. I learned more about the UN through such UN education. On the first day of training, listening to the students and supervising the students was hard to adapt. I could not understand any contents of the lesson that I could not speak English. I felt embarrassed and embarrassed when I saw younger students than I had understood the lesson better. But over time, the fear of English gradually faded away. I was able to work harder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in supervising students. At first, I was very angry with my teachers. But I grew up doing what I wanted to do, and it was a good experience to feel a lot through me as a 'small society' rather than 'family'. The most memorable education in UN education was UNHCR (International Refugee Agency). My grandparents donated a lot through UNHCR and I vowed to serve overseas when I became a college student. There, not only the sponsorship, but what I can do for the refugees now is that they are more interested in refugees than others. I was very proud that there was an agency that allowed people around the world to be interested in the UN.

After all the training schedule, I was able to feel the UN mechanism that felt far away a little closer. I started out with fear and embarrassment in English at first, but after finishing my education, I lost my fear of English and became confident that I could work through other difficulties. Although I was not a good example to students, I was able to get a sense of responsibility through education. I made a lot of mistakes for the first time, but if I have such a program next time, I want to participate again. It was a good experience to experience 'society' as well as English through education. I hope this TP education will be widely known to all students.

## 조유진

나는 TP10 기 UN 교육을 대학생 가디언즈를 통해 참여하였다.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통솔해봤지만, 이렇게 큰 행사는 처음이라 걱정이 앞섰다. 다른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은 외국에 많이 다녀보고 영어에 큰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이었다. 나는 설렘보다는 두려움과 불안함 마음을 안고 출발하였다.

첫째 날은 12 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런던에 도착하였다. 선생님께 학생들을 통솔하는데 있어서의 주의사항, 안내사항 등을 전해 받았다. 나는 부푼 기대를 안고 호텔로 돌아가 다음 일정을 준비하였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UN 교육에 앞서 런던 투어를 했다. 런던 투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캠브릿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를 방문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후회를 하면서, 내심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매우 부러웠다.

외국 대학교들은 우리나라 대학교들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Collegiate System 이었다. 설명하자면, 한국대학은 강의를 한번 들으면 끝이지만 캠브릿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은 각 College 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과외 식 형태의 수업을 따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시험이 전부가 아닌 이런 다양한 의견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대학 탐방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넷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제네바에서 본격적인 UN 교육을 받았다. UN 이라고 하면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나오는 상관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나는 그런 UN 교육을 통해 UN 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교육 첫 날에는 교육도 듣고, 학생들도 통솔 하는 것이 적응이 안되고 힘들었다. 그러나 차츰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영어를 못하는 나는 수업내용을 하나도 알아 들을 수 없었다. 나보다 어린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갔다. 또 학생들을 통솔 하는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임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께 많이 혼나기도 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거 다하면서 자랐던 나는 '가족' 으로써의 나가 아닌 '작은 사회' 로써의 나를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UN 교육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교육은 UNHCR(국제난민기구) 이었다. 평소 할아버지께서 UNHCR 을 통해 기부를 많이 하셨고, 나는 대학생이 되면 꼭 해외봉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었다. 거기서는 후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남들보다 난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UN 을 통해 한나라가 아닌 전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 있어 아주 뿌듯했다.

모든 교육 일정을 마치고 나는 멀게만 느껴졌던 UN 기구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시작했지만 교육을 마치고 나니 나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뿐 더러 다른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비록 모범이 되진 못했지만, 나는 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얻을 수 있었다. 처음이라 실수도 많이 했지만,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다시 참가 하고 싶다. 그만큼 교육을 통해 나는 영어뿐 아니라 ‘사회’를 경험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나는 이런 TP 교육이 학생들 모두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Seoul National University, So Young Kim

This year, TP held multiple meanings. It was my third go at the program, as it was my first TP at Geneva. It was also the first time I set foot in Europe. However, the moment I arrived at Incheon airport, instead of these rosy names, TP became a reality, a reality that I had to actually work, not sightsee, for ten days. My first proper “job” was to assist students with their online check-ins. This little first mission changed my point of view, making me see this program from the other side, as I was giving out the instructions, and not following them as I would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here were many other instances like this where I could spo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evious TP experiences and this one.

Before WFUNA’s Geneva program, we briefly stayed at London, mainly to tour the two renowned schools of Oxford and Cambridge. Ironically, it was more intriguing than when I visited Princeton and Harvard in New York. To a Korean high school student looking to enroll in a Korean university, Harvard and Princeton were mere names of great, yet unreachable schools. Thus, my only memories of those tours were empty vows that lacked any real or serious contemplation. Now, however, looking through the eyes of a university student, I could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students and the intricate school systems, and consider those schools as possible destinations rather than passing daydreams.



If my main job at London was to navigate the students through crowded tourist attractions without losing any of them, other more challenging jobs were thrown at my door once we arrived at Geneva. I, whose only real “work” experience was private teaching, could get a glimpse of what real work was like, and more importantly, how studying and working were separate, different activities.

Studying is fundamentally absorbing material that was given to you. In this context, everything that the student needs to know is handed in a platter, often explained to help comprehension or specified by page numbers of textbooks. Work is often vague, and more up to interpretation. This is well illustrated in the to-do-list on the Staff Recruitment Notice. Words as “Preparation”, “Guide”, “Instruct” show that work is not always quantifiable. That means that you cannot set it aside like homework. It needs to be done in the moment, and thus requires a constant level of responsibility and tension. Maintaining this for a whole week was not easy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Since this type of work is not specified in numbers, it is hard to divide one’s work equally among multiple people, making it the situation extremely difficult when one does not have the mindset to fulfill their share of work. However, these instances were a great eye-opener, and made me think about how to deal with these kinds of people if I should cooperate them in the future.

Finally returning to Korea, I took some time and thought about what had happened during the last ten days. Some moments I would be in awe at the grand landmarks of London and Zurich, while in others I would be seeing myself a couple of years ago in the students. The most important thing I leave with is, however, the lesson of how working and studying are different, and how I should balance these two aspects of life after I graduate.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WFUNA and Hope to the Future Association for giving me the chance to experience this program for the third time.

## 서울대학교, 김소영

이번 TP 는 저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번째 TP 이었지만 처음 가는 제네바 TP 이기도 하였고, 유럽 땅을 처음 밟아보는 여행이자 대학생으로 처음 가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TP 는 위의 추상적인 제목들을 단 여행이 아닌, 열흘 동안 각종 일을 해야 하는 현실로 갑자기 변했습니다. 제 첫 “업무”는 저보다 늦게 도착한 학생들과 가디언의 웹-체크인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어진 지침을 잘 따라가기만 했던 중, 고등학생 때의 TP 를 반대편에서 바라보고, 열흘 동안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참가한 TP 가 대학생 때는 어떤 방식으로 다가왔는지는 써볼까 합니다.

제네바에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기 전 영국에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을 탐방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뉴욕의 하버드와 프린스턴을 방문했을 때보다 역설적으로 더 재미있었습니다. 국내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버드와 프린스턴은 저와 너무도 거리가 먼, 대단한 이름들로만 존재하였고, 따라서 진지한 고민은 하지 못하고 감탄사만 남발하다 온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본 후, 타 대학들의 교육 시스템과 재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었고, 교환학생이나 대학원 등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주 업무가 혼잡한 관광지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는 것이었다면, 제네바에서는 다른 다양한 업무들이 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제대로 된 “일”이 과외뿐인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맞닥뜨려야 할 이 “일”이라는 요소를 잠깐 엿볼 수 있었고, “일”과 “공부”가 어떻게 다른지를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주어진 것을 잘 습득하는 작업인데, 이 때 학습 내용은 대부분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고, 교재의 페이지 수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반면 일은 공부보다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디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 항목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인솔”, “준비”, “보조”, “지도” 등의 한자어로 제시되는 이런 일들은 수치화가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수학 숙제처럼 시간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찾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책임감과 함께 항상 일정한 긴장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치화가 가능하지 않은 만큼 일의 정확한 분담도 힘들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난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래에 또 그런 사람과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된 좋은 계기였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되돌아 온 후 저는 TP 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영국과 스위스의 관광지들을 둘러보면서 감탄한 순간들도 있었고, 학생들의 모습에서 몇 년 전 제 모습이 보이던 나름 감성적인 순간들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TP 에서 얻은 가장 귀한 것은 제가 지금껏 해온 “공부”와 몇 년 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될 “일”이 얼마나 다른지, 제가 이 두 요소들 사이에서 앞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TP 라는 특별한 경험을 세 번씩이나 하게 해 준 미래희망기구와 WFUNA 께 감사드립니다.



## 09. 참고자료

주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CERN)
팀원	이규형(웰틴크리스천국제스쿨), 이성준(대구외국어고등학교), 김에스더(Lyce International Xavier), 신승민(과천외국어고등학교)
영상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1N7Ylw2N8UI">https://www.youtube.com/watch?v=1N7Ylw2N8UI</a>

주제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팀원	신정민(범계중학교), 서란(Branksome Hall Asia), 김승준(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주민정(한국국제학교)
영상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37ql6RI4E0">https://www.youtube.com/watch?v=l37ql6RI4E0</a>

주제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팀원	강태은(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전혜진(칭다오청운한국학교), 김지원(수원외국어고등학교), 홍준영(등대글로벌스쿨)
영상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5_VR-feimuc">https://www.youtube.com/watch?v=5_VR-feimuc</a>

주제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팀원	권유진(전남외국어고등학교), 박현제(안양외국어고등학교), 정예인(명덕외국어고등학교)
영상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hzkziSohY">https://www.youtube.com/watch?v=l-hzkziSohY</a>

주제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팀원	권유진(전남외국어고등학교), 박현제(안양외국어고등학교), 정예인(명덕외국어고등학교)
영상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hzkziSohY">https://www.youtube.com/watch?v=l-hzkziSohY</a>

**Final Report**  
**The 10th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 in Geneva 2017**

**(사)미래희망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6 다나빌딩 4층

전화 070-8280-1626

홈페이지 [www.hopetofuture.org](http://www.hopetofuture.org)

\* 본 결과보고서는 2017년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8박 10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진행된 청소년 대상 UN 전문가 교육과정인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에 참가한 학생들이 작성하였습니다.

\* 본 결과보고서에 있는 모든 사진의 저작권은 (사)미래희망기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Hope to the Future Association 2017



